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한 청중 이해와 설교 연구

A STUDY OF CONGREGATION AND SERMONS AS A LIVING COMMUNICATION

By

Yohan Choi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Riverdale, New York

2013

ABSTRACT

A STUDY OF CONGREGATION AND SERMONS AS A LIVING COMMUNICATION

By

CHOI, YO HAN.

The word communication is derived from a Latin word meaning 'shared' or 'common'. This indicates that communication is established, when we bring down the barriers existing between 'You' and 'I' thus become as one, 'We', and share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Church was built up on God's communication to us. God created us and came to us before we come to God. The consequence of original sin has severed our relationship with God, blinding our eyes and hardening our hearts, so that we can no longer see the glory of God and reside in the power of His presence.

However, God's love for man was so great that when we left God, He came to us through His Incarnation. This was His communication to us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which was conveyed not only by way of a verbal communication, the message declared, but also in the form of a non-verbal communication, the praxis that Jesus Christ had taught us. That is, Jesus Christ preached the kingdom of God while he himself embodied the message by fulfilling His words.

Jesus called his people to convert and people turned from the world to God because his communication of practice was in accordance with his communication of the

Gospel. We, pastors, mediate between God and people, as did Jesus by His will and plan. Therefore, we ought to take the same vision and passion with us as Jesus carried them

with him. Pastors ought not to regard their witnessing as merely preaching the sermon from the pulpit.

We are passing from the textual culture where we mostly obtain information by reading to the visual culture where visual media is the prevalent source of information. This social transformation of the media is spread out among all generations, even in the elderly. Preachers should keep up with this change, or rather, they should keep one step ahead of the general public. In this regard, this paper takes into perspective that people to whom the communication is directed, including those outside the church should be understood within a broader context, namely, human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To draw more effective approach to sermon, the history of Sermon is listed in chronical order, with the main focus on remarkable preacher figures and its trend today is also touched on. Futhermore, as said earlier, since the pastoral care and practice in life is just as much important as the content of communication I specifically bend my effort to introduce how pastors can achieve a versatility and become a successful leader of the people.

I hope readers will find this thesis helpful in developing their versatility. God has given each of us a talent we have. He wants us to respond to His calling each our own way and fills us with what we need.

To sum up, a pastoral care by communication harmonize the following aspects:

First, pastors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generations and their individual history, interests, needs and listen to what they really want from pastors with great care. Second, pastors are able to channel these knowledge through the sermon, where their

needs and questions do not rest unanswered but heartily responded on the back of the wisdom and the truth written in the Bible.

In doing so, a living communication with people can nurture them into a whole person. It is my wish that pastors as communicators will be able to correspond with people by harmonizing verbal communication with non-verbal communication.

목 차

표 목 차

그 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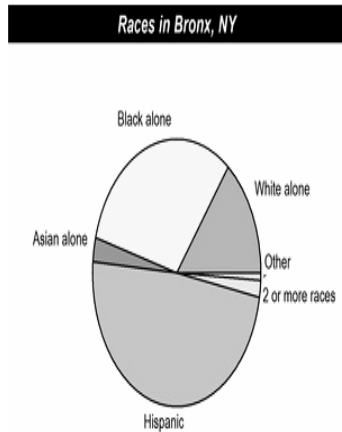
Ⅰ.서론

1. 연구 대상

본 연구자의 연구대상은 두 교회가 된다. 먼저는 브롱스(Bronx)에 위치한 뉴욕 베델교회(Bethel Korean UMC of New York)이며, 두 번째는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에 있는 뉴욕성결교회(New York Korean Evangelical Church)이다. 연구자의 연구 기간 동안 두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됨으로 인한 결과이다.

1) 뉴욕 베델교회

(1) 지역배경

Races in Bronx, NY

- 히스패닉 - 644,705 (48.4 %)
- 블랙 혼자 - 416,338 (31.2 %)
- 화이트 혼자 - 193,651 (14.5 %)
- 아시아 혼자 - 38,558 (2.9 %)
- 두 개 이상의 종족 - 27209 (2.0 %)
- 혼자 다른 종족 - 8,227 (0.6 %)
- 미국 혼자 - 3488 (0.3 %)
- 네이티브 하와이안 및 기타 태평양 혼자 - 474 (0.04 %)

브롱스는 미국의 가장 번화하고 큰 도시 뉴욕의 5 개 보로(Borough) 중 최상단지에 위치하며 인구 2007 년 7 월 기준으로 1,383,871 명이며 그 중 남자가 644,007 명, 여자가 739,864 명이다. 거주자 평균 연령은 31.2 년으로 젊은 편이다. 인종분포를 보면 위의 통계와 같다. [1] 뉴욕 양키스(New York Yankees)의 본 고장이기도 하고 식물원, 동물원을 포함하여 공원들이 상당히 위치해 있는데 브롱스 내에서만 42 평방 마일의 공원 녹지가 있다. 브롱스 동물원은 미국 최대 동물원으로서 4000 여 동물 및 6000 여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테니컬 가든(Botanical Garden)도 상당한 종류의 식물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에게 브롱스 하면 가장 먼저 받는 느낌은 대표적인 Afro-American 동네지만 본 교회는 북서쪽 브롱스로 남쪽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Dominican 과 Puerto Rico)이 주를 이루고 북서쪽 리버델(Riverdale)에 백인과 북쪽 용커스(Yonkers)에 혼합 인종으로 여러 민족 (유태계, 이탈리아계, 아일랜드계, 아프리카계, 인도계, 남미계, 독일계, 영국계, 중국계, 러시아계, 폴란드계 등)이

[1] *http://www.city-data.com/city/Bronx-New-York.html*, (accessed Oct, 15. 2011).

함께 주거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중 한국인은 4000 명 가량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 대부분 맨해튼과 브롱스를 중심으로 사업과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0 년 기준으로는 브롱스 보로 지역에는 약 1,411,654 명이 살고 있다. 그중 한인은 2008 년도 기준으로 4,000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3] 브롱스 보로에 사는 전체 인구의 0.24% 밖에 안 되는 극히 작은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한인들이 살고 있다.

(2) 교회 역사 배경

미연합감리회(UMC)에 소속된 뉴욕 베델교회[4]는 1977 년 4 월 10 일 Cumming St. N.Y.C. 10034 에 있는 Episcopal Church 에서 창립예배를 갖고 교회명칭을 '맨해튼 북부교회'라 짓고 박순종 목사가 담임목사가 되었다. 5 월 1 일 202 Sherman N.Y.C. 10034 에 있는 St. Matthew

---

[2]Source: U.S. Census Bureau, 2006-2008 American Community Survey, Population Division -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

[3]인터넷 구글 검색으로 검색한 결과(Oct15.2011)로 가장 최근의 기록이다,(accessed Oct, 15. 2011).

[4]인터넷 구글 지도 검색, 검색어; 3404 Bailey Ave., Bronx, NY 10463, (accessed Oct, 15. 2011).

Lutheran Chruch 로 이전했다. 1982 년 미연합감리회에 가입했다. 1984 년 12 월 19 일 3404 Bailley Ave, Bronx 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1985 년 2 월 14 일 교회 건축기공예배를 가졌고, 7 월 7 일 새 성전으로 이전했다. 9 월 1 일 교회 명칭을 뉴욕 베델교회로 변경했다. 10 월 27 일 새 성전 입당예배를 가졌다.

2003 년 7 월 1 일 최운돈 목사가 제 2 대 담임으로 부임했다.[5] 2007 년 4 월 15 일 창립 30 주년기념 및 박순종 목사, 최진선 장로 은퇴 찬하식을 가졌다. 현재 일요일(주일) 출석은 200 여명(아동포함)이며 예산은 32 만여 달러이다.

(3) 교인 직업 분석

교인들의 70% 정도는 브롱스 보로지역과, 브롱스의 서북쪽 인접지역인 뉴욕주 용커스 지역에 거주하며, 뉴저지와 맨해튼, 퀸즈 등 나머지 지역에서 약 30% 정도의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다. 직업은 성인 기준으로 Nail Shop 와 Laundry, Deli Store 의 직업을 가진 교인이 전체 직업인 기준 70% 이상이고, 노인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자녀들과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교인들이 있다.

(4) 신앙 전통 배경

[5]UMC 웹싸이트, *http://nypumc.net/?document_srl=4957*, (accessed oct, 15, 2010).

본 교회의 교인들의 성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때로 과거 500 여명 교인들이 출석했을 때의 향수에 젖어 있는 교인들이 새로운 젊은 교인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예배와 교회 헌신에 대한 열정들이 남다르기에 이 사역들을 통해 현재에는 화합을 이루고 현)제 2 대 담임목사님의 목회방침에 따라 전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교회는 D12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담임목회자의 목회의 중점 양육방향이 '제자훈련' 이기 때문이다. 또한 담임 목회자의 목회의 중심을 예배와 설교에 두고 있다.

(5) 비전 제시

본 교회는 예배의 성령 임재와 영적 체험을 위해 예배의 구성의 기본요소[6] 중에서 찬양과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를 중점에 두고 있다. 주일 낮 예배시에 찬양과 통성기도 시간을 대폭 늘렸고, 특별히 대표기도 순서를 빼고 경배와 찬양 후에 기도제목에 따라 시간에 제한 없이 상황에 따른 시간할애를 하며 다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 본 교회 담임목사님의 설교는 주로 1970 년 이후의 근 현대적인 설교 방식인 이야기식 설교(Story telling Sermon)와 귀납법적인 설교[7]를

---

[6]웹싸이트, *http://blog.naver.com/mokpojsk?Redirect=Log&logNo=130003824408*.

[7]정인교,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이해와 한국적 수용*, 복음과 실천신학 제 6 권(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CLC, 2003), 30.에서 설교 형식과 관련하여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주로 예전 설교 방법이었던 연역법적 설교[8]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설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금요기도회 예배설교시간을 통해서 간간히 Story telling 설교 등 귀납법(inductive preaching)적인 설교를 시도하게 되었다. 앞으로 본 연구와 더불어 시행할 과제는 청중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설교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유일한 도구인 성경을 우리 교회 청중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시대의 모든 청중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2) 뉴욕성결교회

(1) 지역 배경

본 교회가 위치한 스태튼 아일랜드는 뉴욕 시의 5 개 자치구 중 한 구를 형성하며, 허드슨 강 하구에 떠 있는 스태튼 아일랜드와 부근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151.5 km², 인구 약 44 만 명으로 리치먼드군(Richmond County)을 형성하고 있다.

것은 1958 년 루터란 설교학 교수인 데이비스(G. Davis)의 *설교디자인*(*Design for Preaching*)이 란 책이 발간되면서부터 라고 했다.

[8]Eugene L. Lowry, *The Homiletical Plot*, 이연길 역, *이야기식 설교구성*(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16.에서 1950 년 이전의 설교는 헬라의 설득적 방법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곳은 뉴욕시 다섯 개의 보로 가운데 주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으며,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북쪽지역은 맨해튼과 근접한 위치에 있고 무료 페리(Ferry)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맨해튼 직장인과 한인들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다. 이 섬의 이름은 네덜란드의 스타텐 제네랄(주 총리)의 이름을 딴 것이다. 1664 년 요크의 공작이 뉴네덜란드를 취득한 이후 잉글랜드와 웨일스 농부들이 이 섬에 집과 농장을 건립했다. 1898 년 이 섬은 뉴욕 시의 자치구 중 하나가 된 후 교외 주택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2009 년 10 월 'United States Census Bureau'의 조사 결과 스태튼 아일랜드에는 총 491,730 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태튼 아일랜드 인종 비율 상위 10 위까지는 Italian: 35.7%, Irish: 13.2%, German: 5.7%, Russian: 3.8%, Polish: 3.4%, English: 1.6%, Ukrainian: 1.3%, Norwegian: 1.0%, Greek: 1.0%, French: 0.9% 로 나타났다. 현재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인 거주 인원은 약 2700 여명, 약 0.8%로 추산되며 한인 커뮤니티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한인은 네일 업계와 세탁업 그리고 식료품 사업을 하고 있다.

(2) 교회 역사 배경

본 뉴욕 성결교회는 미주성결교회(Korean Evangelical Church of America)소속으로 1976 년 장석진 담임목사의 개척으로 시작되었으며, 1978 년

스태튼 아일랜드에 정착한 이후 35 년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교회이다. 1991 년 9 월 현재의 성전건축 완공과 동시에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한인교회로는 가장 큰 부흥을 이루어왔다.[9]

지역적으로 한인이 많이 분포 되어 있지 않은 스태튼 아일랜드 중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본 교회 발전의 이유를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본다면, 첫째는 교인들의 거주지가 스태튼 아일랜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쪽으로는 뉴저지와 근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며, 북쪽으로는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 그리고 롱아일랜드의 장거리에서도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인들 대부분이 혈연지간 즉 가족관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하려는데 기인한다. 둘째는 연령대별로 조직화된 각 선교회의 활발한 활동과 교제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중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주일에는 예배 후 각 선교회 별로 진행되는 친교와 나눔이 성장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셋째는 다양한 교회의 대내외 활동이다. Diaspora Concert, 청소년 문화 축제 등과 같은 퍼포먼스 위주의 행사들과 New Hope Sunday 전도축제와 성도 간의 기념일 등의 축하 행사에 솔선하여 동참 한다는 것이다.

3) 비전 제시

---

[9]뉴욕성결교회 역사편찬위원회, *뉴욕성결교회 25 년사 Mother Church* (서울: 진흥문화사, 2001), 64.

본 교회는 34년 동안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민자들의 방문과 등록 그리고 지연과 혈연으로 연결고리가 이루어졌고 성도의 교제와 담임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더욱 굳건한 교회로 세워졌다. 이제는 교회 주변의 불신자 한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목회자는 성도들과 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그들의 삶의 문제인 고민을 듣고 알아, 기도하며 위로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한 예배의 구성과 짜임새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의 동향을 잘 살피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성경으로 풀어 주어야 한다. 삶에 용기와 도전을 줄 수 있는 목회와 교회현장이 되어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자는 설교자와 성도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을 잘 이룰 수 있는 설교를 연구함에 있어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인간이해 영역에서는 현대인들을 세대별로 3부류(청소년, 중년, 노년)로 구분하여 그들의 문제와 갈등, 어려움 등을 분석해 본다. 세 번째로는, 설교의 이론을 개괄하여 설명하고, 역사적으로 각 시대별 설교자들의 특징을 고찰해 보고, 현대 청중들의 동향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설교의 방법을 모색해 본다. 네 번째로는, 연구 시행과 평가이다. 연구자는 뉴욕 베델교회에서 6 개월간 금요예배를 통해 매주 설교를 시행함에 있어 이를 적용하여 청중들의 반응과 변화와 성장, 성숙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연구반원들과 함께 평가해 보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통계를 내보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설교를 분석해 본다. 또한 5 개월간의 뉴욕성결교회의 사역기간 동안 설교를 시행하고, 또 찬양단 소그룹 모임을 통해, 그들의 경향과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등을 듣고 청중들을 이해해 보며 이를 설교에 반영하기에 힘쓴다.

정리하자면 이 시대의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설교자들에게 본 연구가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자인 현대 청중들을 이해하고, 그들 세대별 고민, 갈등,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알고, 그 발생된 문제들을 이해하고 설교를 통해 청중들과 설교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이루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대를 사는 청중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 현대인들에게 구원, 회복과 치유, 기독교적 비전제시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 범주로 한다.

3. 연구 목적과 목표

1) 목적

교회가 세워진 이후 설교의 중요성은 변함없이 강조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설교의 사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생동력이 움직이지 아니할 때 교회와 세계는 언제나 흔들려 왔다. 그러기에 설교의 사역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지향적인

자세만을 견지하면서 퇴색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미래지향적인 갱신의 물결을 몰고 온다.[10]

지금까지 설교에 대한 이해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특별히 윗사람의 말이 절대적인 권위를 소유한 유교적 전통이 자리잡은 한국의 교회에서는 설교에 대한 회중들의 평가나 거부가 허용되지 않은 채 무조건 '아멘' 으로 화답하여야 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의 교회가 젊은이들을 잃어버리고 맹종하는 무리들의 집단 마냥 변질되어 가고 있다. 비록 그 수적인 성장이 세계적이라고 하더라도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 현장에서 있었던 "우리가 어찌할꼬?"[11] 의 응답은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든 함성들로 사라져가고 있다.

본 연구자의 교회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70~80 년에 한국사회에서 미국사회로 이민 온 이민 1 세대들의 사고에는 설교에 관해 여전히 유교 전통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금요기도회에 참석하는 청중들의 70%가 이민 1 세대 어르신들이다. 이들에게 설교를 통해 영적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다양한 설교를 시도하며 더이상 설교가 권위적이고 교훈적인 일방적 가르침이 아니라 설교자와 청중 간에 설교 안에서 상호작용을 이루는 설교를 모색함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1 세기를 접어든 오늘의 교회는 설교를 새로운 시각에서 정의하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즉 그것은 설교란 설교자와 회중이 서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신언

---

[10]C. Pennington, M.R. Chartier, 정장복 역, *말씀의 커뮤니케이션*(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0), 7.

[11]개역성경 사도행전 2 장 37 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설교를 듣고서 나온 반응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 한다.

이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설교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방편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 기본적인 설교의 세계가 성공적으로 소통될 때 비로소 교회가 참 모습을 열어 갈 수 있다고 본다.[1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설교자가 현대의 청중의 성향을 이해하고, 더불어 본 교회의 모든 청중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설교의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설교의 노력이라 하겠다. 본 연구자가 매주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금요기도회 설교 시간과 그 외의 주일, 수요예배 등의 설교를 통하여 이를 시행해 보고 평가를 내려보고자 한다.

2) 목표

Chester Pennington 은 그의 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God Has a Communication Problem) 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30 년 동안 교회사역 현장목회를 해왔던 그의 관찰에 의하면 목회자가 대다수의 회중과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는 주된, 아마도 유일한 경우는 '주일예배' 라고 하였다. 그가 17 년 이상 시무했던 교회에서의 관찰에 의하면 그룹과 각 조직의 프로그램의 참석률은 전교인의 5% 정도밖에 안되며, 각 그룹들의 연합프로그램, 합동작전을 펼친 행사의

[12]C. Pennington & M.R. Chartier, 정장복 역, *말씀의 커뮤니케이션,* 8.

경우는 10~20%의 참석률을 보여 왔다고 했다. 그러나 매주, 매년 주일 아침에는 전교인의 35~40%의 성도가 교회에 나온다는 통계를 제시하였다.[13]

교회안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설교의 중요성은 매우 높으며, 목회자가 성도와 소통하는 중요한 기회로서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부인 할 수는 없다. 현대교회의 예배에서나, 또 우리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설교자와 성도들의 관심은 모두 '좋은 설교' 에 있다. 설교자는 보다 좋은 설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도들은 좋은 설교가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설교자의 개인의 노력만이 있어왔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오랜 동안 수동적인 입장으로 설교를 듣고만 있었으며, 더 좋은 설교를 향해서 이동하는 것을 그 해결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 시대는 설교자의 창의적인 설교 연구뿐만 아니라 청중들이 설교를 대하는 태도와 적극적 협력, 적극적인 자세에 대한 청중들의 변화도 같이 요구하고 있다.[14]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청중들의 의식변화, 행동변화, 구조변화를 요구하고,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이루는 방법을 모색해보며, 10 개월간의 설교의 시행을 통하여, 청중이 가장 능동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효과적인 설교,

---

[13]*Ibid*, 22~23.

[14]송현옥, 목회와 신학 제 14 호, *설교가 좋은 교회를 선택한다*(서울: 두란노서원 1990 년 8 월호), 128~137.

그로인한 교회내의 구조변화, 설교변화, 청중변화의 결과를 가져보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Ⅱ. 기독교 커뮤니케이션학 이해

1. 기독교 커뮤니케이션학의 이론

1)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다양한 대답이 나오게 한다. 이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만큼이나 난해하기 때문이다. 우주의 모든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1:1)는 것에서 출발하기에 커뮤니케이션도 '말씀(λόγος)' 이라.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에서 시작된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의 어원은 '공통' 또는 '공유'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커뮤니스(Communis)'에서 유래 되었다.[15]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다. 상호간 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매체로는 구어와 문어는 물론 몸짓, 자세, 표정, 억양, 노래, 춤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까지 포함된다.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도구와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소통을 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다.

---

[15] William F. More, *"Communication for Churchmen", B. F. Jackson, Jr. ed., Communication : Learing for Churchmen*(Nashiville : Abingdon Press, 1968), 25.

언어적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동물들의 경우 호르몬이나 변뇨의 냄새 또는 울음소리로 의사소통을 한다. 현대의 경우, 직접적인 소통 외에도 네이버, 다음, 네이트와 같은 포털 사이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서비스 등으로도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와 의사소통을 이루기도 한다.[16] J. H. Platt 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넓은 의미로는 생물체가 외부세계와 결합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가리키며, 학문적으로는 생물체가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서로 이해 할 수 있다는 사실, 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며, 어떤 특정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이라고 정의했고, C. H. Cooley 는 커뮤니케이션이란 그것을 통하여 인간관계가 성립되고 또 발달하는 Mechanism 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신의 모든 상징 및 그것을 공간적으로 운반하고 시간적으로 보관하고 지속해 가는 수단이다 라고 하였다.[17] W. F. More 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그의 환경, 환경과 환경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이해된 관계를 수단으로 하여 어떤 것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8]

이러한 정의들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자의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인간과 인간이 관계형성을 위한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겠다.

2) 커뮤니케이션의 종류

[16]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accessed Nov, 12, 2012).

[17]오미영,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6), 7.

[18]William F. More, *Communication for Churchmen*, 28.

커뮤니케이션의 종류는 3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일방향적 작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고 이를 수신하는 수신자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의 관점이다. 이는 한사람 이 메시지를 전달하며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수신한 후 다시 상대방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피드백을 하는 쌍방향성을 가진다. 그리고 각자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동작이 계속 반복한다. 세 번째 관점은, 교류의 관점이다.[19] 이는 누가 전달자이고 누가 수신자 인지를 구별하여 밝힐 필요 없이 두 사람이 동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하는 모습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여기서 말하기와 듣기가 분리된 행위가 아니고, 또 한번에 한 가지 행위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 교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피할 도리가 없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Berlo (David. K. Berlo)는 커뮤니케이션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그의 모델이 보여주는 과정은 일방향적이지만 그 후 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과정은 정보원과 수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쌍방향적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20]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살펴보면 수용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거친 후 수용자는 다시 정보원이 되어 또 다른 수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연쇄 과정을 불러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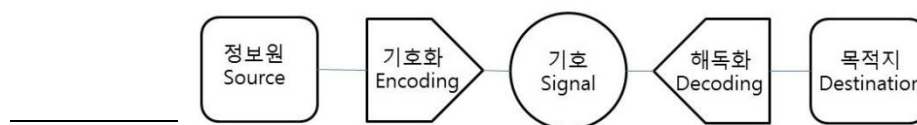
[19] 오미영,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8.

[20] David. k. Berlo, *The Process of Communication*(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23.

영접한 뒤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 한 사람에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요한복음 4:29)라고 말하였다. 연쇄적으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한 설교자의 관점을 일방향적 관점과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의 종류를 교류작용 관점으로 진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3)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된다.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통하는 상징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미가 교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21]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개의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즉 커뮤니케이터 메시지, 미디어 수용자, 효과,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상황 등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22] Claude E. Shanon 과 Warren Weaver 는 커뮤니케이션을 정보원에서 목적지까지 전달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Shanon – Weaver 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21]박근원, 오늘의 설교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30.

[22]David K. Berlo, *The Process of Communication*(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23. 여기서 '과정'이란 말은 요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Berlo 는 이것을 “시간”에 따라 연속적인 변화를 보이는 어떤 현상 또는 연쇄적인 작용 이라고 하면서 그 특성으로는 역동성(dynamics), 연속성(continuity), 상변성 (ever-changing), 진행성(on-going process)을 들고 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23]

그림 1. Shanon-Weaver 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정보원이 정보를 기호화 하여 메시지로 작성하며, 작성된 메시지는 음파나 전파 등의 기호로 바뀌어 채널을 통하여 전달된다. 전달된 메시지는 수신자에서 해독되어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Wilbur Schramm 은 위의 모델을 발전시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Schramm 은 위의 도해에서 나타나듯이 두 개체 사이에서 공통으로 이해된 영역을 나누어 갖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험 영역 사이의 공유된 부분이 존재해야 하며, 공유된 부분이 클수록 커뮤니케이션의 용이도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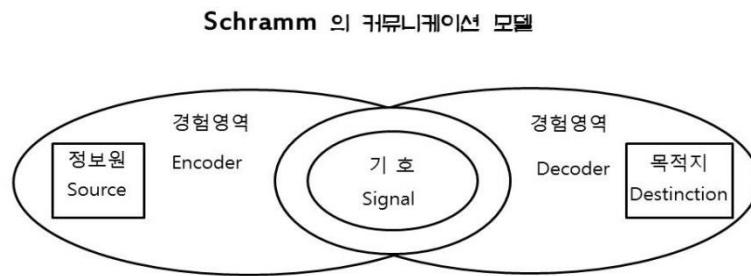



그림 2. Schramm 의 커뮤케이션 모델

그런가 하면 Berlo 는 위의 두 모델의 약점을 보완하였다. 정보원이나 수신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외적 요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을 보완하여 정보원이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수신자가 메시지를 해독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변화를 커뮤니케이션 기술, 태도, 지식, 사회제도, 문화라 보았다.[25]

[23]Claude … *munication*(Urbana, IL : University of Illi…

[24]Wilbur … *ts of Mass Communication*(…

[25]David … hart and Winston, 196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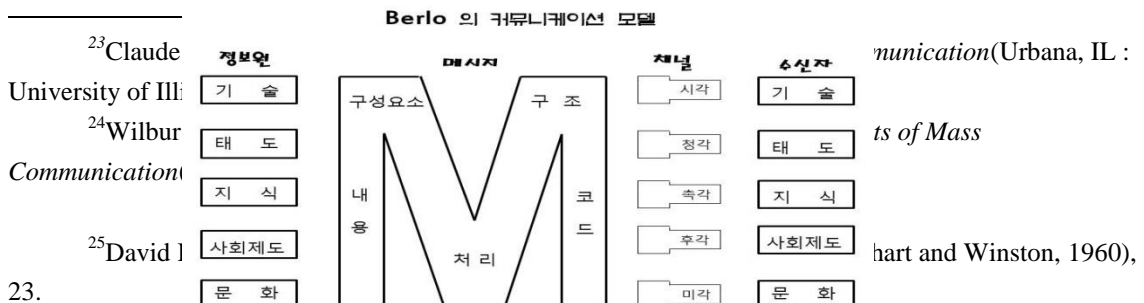



그림 3. Berlo 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4) 커뮤니케이션의 단계

최근 몇 년 동안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발전 가운데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많은 단계를 구분하는 경향이다.[26] Reid 는 1958 년에 출판된 Melvin L. Defleur 와 Otto N. Larsen 의 저서(The Flow of Information : An Experiment in Mass Communication)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의 일곱 단계를 설명하였다.[27]

① 전달 - 전달은 전달자가 자기 메시지를 전할 때 일어난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첫 단계요, 필연적인 단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달만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라디오 아나운서가 자기의 보도를 전하여도 아무도 그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어 주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 있어서 전달하는 자의 공신력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별히 More 는 1964 년 Williams Millard 가 General Electric, Alcoa 및 전국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스폰서한 프로그램들의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로서 전달하는 자의 공신력 문제는 교회 커뮤니케이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28]

② 접촉 - 접촉은 듣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발생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가 자신이 들었다는 사실을 전달자에게 알려 주지 않는 한, 전달자는 접촉이 성립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고, 또한 접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그치거나, 귀 기울여 듣는 깊이 있는 접촉이 발생할 수 없다.

③ 피드백 - 피드백은 듣는 사람이 처음 전달자에게 정보를 반영해 보이는 것에 따라 되돌아오는 과정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접촉 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 단계가 언제나 요구된다. 이 단계가 어떤 상태로든 용납 될 때라야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④ 이해 - 이해는 전달자가 전하는 메시지로써 의미하는 바를 듣는 사람이 자기의 의미체계 속에서 해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해석화' 라고도 한다. 이론상으로는 피드백이 없이도 이해가 가능하기는 하다. 특히 전달자가 아주

---

[26]Clyde. Reid, 정장복 역, *The Empty Pulpit*(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5), 63.

[27]*Ibid*., 63~68.

[28]조사 결과 일반 대중은 다른 어떤 집단 보다 도 교회 집단이 후원한 커뮤니케이션에 흥미를 덜 느낀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들은 교회측에서 스폰서 한 프로그램은 제목과 상관없이 보기를 원치 않았다.

분명하게 듣는 사람이 이해 할 수 있는 말로 전달한다면 이해는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피드백의 과정은 전달된 것이 이해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받아들임 - 받아들임의 단계는 전달자에 의해 전해진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용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듣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거부하거나 무시해 버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은 이 단계에서 단절이 되어 버린다.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 듣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거부하거나 무시해 버렸을 경우에도 전달자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⑥ 내면화 - 내면화의 단계는 받아들인 메시지를 확고히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자기에게 전달되었든지 이제는 자기 고유의 것으로 변화시켜 전달자와 똑같은 입장을 지켜 나가게 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듣고 반응을 보이는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 능동적인 그 메시지를 위한 새로운 전달자로 출발할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단계이다.

⑦ 행위 - 커뮤니케이션의 최종적인 목표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해진 메시지대로 행동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단계야 말로 전달자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독자적인 존재로서 메시지의 소유자가 된 것을 입증하는 최종 단계이다.

이와 같은 일곱 단계를 잘 요약하여 놓은 것이 그림은 다음과 같다.

1. 전달(Transmission)
2. 접촉(Contact)
3. 피드백(Feedback)
4. 이해(Comprehension)
5. 받아들임(Acceptance)
6. 내면화(Internalization)
7. 행위(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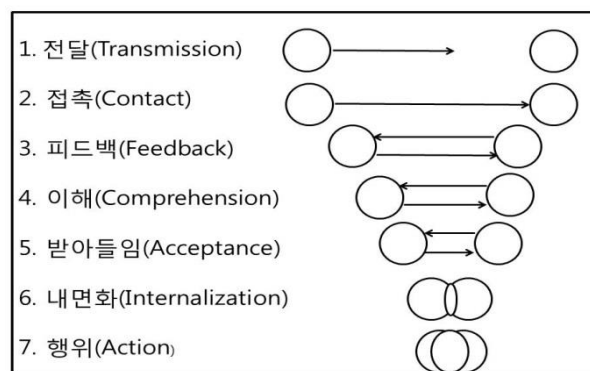



그림 4. Jim BorMann 의 도식

2. 신학적 접근

1) 기독교 커뮤니케이션학의 원리

기독교 초자연적 종교이며, 영적 실재를 인정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 그리스도의 성육신 등은 신학의 기본 골격이며, 기독교 커뮤니케이션학을 이해할 때에도 필요 요소가 된다.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는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 기초로서의 하나님과, 하나님 커뮤니케이션 대상으로서의 피조물이다. 신명기 6 장 4 절에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 6:4)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8 장 4 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을 강조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으며,[29] 이는 예배와 교회의 신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으며,[30] 초대교회의 예배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니케아 신조(325 년)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31] 하나님은 한 본체에 삼위가 따로 존재함으로써 서로 밀접한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커뮤니케이트를 하고 있다.

이 완전한 내적 사역으로서의 하나님 안의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기원과 궁극적 목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 신성 안에서의 하나님의 위격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와 너의 상호관계에 올바른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James Orr 는 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32]

>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신의 영원하고 초월적인 존재 안에서) 사랑이시다. 그는 분명히 자기 안에 완전하고 영원한 그의 사랑 (성자에 대한 성경의 교리인) 의 대상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신관은 성령을 (그들의

---

[29]손두환, *기독교회사(Ⅰ)*(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2), 184.

[30]Cyril Richardson, ed., *Early Christian Fathers*(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3), 174.

[31]Hans Küng, 정지련 역, *교회*(서울: 한들 출판사, 2007), 454.

[32]James Orr, *The Christian View of God and The World, as Centering in the Incarnation, 3rd ed*(Edinburgh: Andrew Elliot, 1897), 274.

> 사랑의 끈이자 매개체인) 통한 신격상호간의 완전한 교제 안에서 완성 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한분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사례를 두 가지로 들자면, 첫째로 천지창조의 역사에 삼위가 함께 사역했다는 사실이며,[33] 두 번째는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34]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들에서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님이며, 본질상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 기초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피조물이 되는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무(없음)에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창조교리가 기독교의 진리의 바탕이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결과를 반영한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하여 보존되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초대 교부들은 신성 안에 있는 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원형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어거스틴은 그의 논문 "삼위일체에 관하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관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35]

> "하나님은 그 자체가 최고의 선이시므로, 그가 넘치는 선하심으로 만물을 만드신 이상, 자체의 성질과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과 아무런 유사점도 지니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무리 적지 않는 분량이라 할지라도, 최고선과 닮은 점을 지니는 정도만큼은 선한 것이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과 유사점을 가진 피조물에 속한 모든 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려서는 안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뛰어나 있는 바로 그 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려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성질도 가로놓여 있지 않을 때에만 그 현상은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33]창세기 1:26.

[34]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요 17:5)와,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요 14:16)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하나님의 위격들의 행위를 보게 된다.

[35]Augustii, On the Trinity, trans. Stephen McKenna, C.S.S.R.,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45(Washington, D.C.: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63), Book 2, Ch.5, 328~29.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이 관계성은 범신론이나 이상주의적 용어로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범신론은 창조 질서를 신과 동일시함으로써,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플라톤적 이상주의는 하나님 대신에 영원한 이상이라는 존재를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36] 그러므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근거로 하며 하나님이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존재적, 내적 성향이 성육신으로 현현된 것이라 하겠다.

2)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단절

창조 – 타락 – 구속 – 완성에 대한 신학은 창조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과의 영적 교제는 창조를 통하여 수립된 하나님과의 피조물의 영적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파괴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했고 그 구속 사역에 의해 회복되어졌으며, 이는 종말에 가서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하고 계시며, 피조된 인간도 역시 창조주와의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고 있는 것이다.[37]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처음으로 창조의 동산인 에덴에서부터 단절되었다. 처음 에덴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다(창 2 : 16, 17, 19). 또한 아담과 하와 사이의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창 2:20~25)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36]Robert E. Webber, *God Still Speaks: A Biblical View of Christian Communication*(Nasfville: Thomas Nelson, Inc., Publishers, 1980). 69.

[37]*Ibid*., 112.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 받은 존재요’(시 8:5), ‘신묘막측한’(시 139:14) 피조물이라고 하였다. 또 창세기 1 장 26 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밝혀주고 계신다. 그러나 이것이 단절되므로 심각한 문제가 인간 사회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단절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발생되었다. 에덴에서의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창세기 기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의 모습을 “주의 낮을 피하여 숨었다”(창 3:8)고 표현하고 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현상을 로마서 5 장 12 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바울은 이 원칙을 인간의 전 역사에 적용 시켰으니 곧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은 인간의 육체적, 물질적 삶의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인간은 스스로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단절도 가져왔다. 자신 스스로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됨에서 부터 기인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참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벨을 죽인 가인의 경우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창 4:12)고 선고하였다.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관계성의 부정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왜곡시키며, 끝없는 방황과 의미 추구를 시도하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 의미의 상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본위의 존재가 되게 하고, 권력, 부, 성 등의

추구에 집착하게 한다.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은 자신의 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38]

세 번째로 대인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만드셨다.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문화적 존재로서 주신 문화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 개인 스스로의 단절, 그리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단절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는 노아시대의 죄악상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 6:5）라고 그 시대상을 진단하셨다.

인간 스스로를 자율적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된 바벨탑 사건도 결과적으로 인간 사이의 단절을 낳게 되고 말았던 사건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권리를 주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자연계가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 "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 3:17~19）

하나님은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였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이 상실되고, 자연의 원래의 존재

[38]Jacques Ellul, *The Meaning of the City*(Grand Rapids: Eerdmans, 1970), 4.

의미도 같이 상실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죄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켰다.[39]

3)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의 회복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 기독교는 역사적 구속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성이다. 즉 역사적 구속은 기독교를 현세적 종교이면서도 내세적 종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40] 인간은 삶의 사건들 속에서 즉 하루하루의 삶을 구성하는 그 사실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하게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역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과의 회복이다. 우리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자비와 사랑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만이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 계시는 항상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라는 의미이다.[41]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을 구성하는 그 사실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회복을 이루어가야 한다. 즉 시간의 흐름인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과의 인격과의 만남을 통해서의 회복이다.

두 번째로는 언어를 통한 회복이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하여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 언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

[39]김남식, *기독교 커뮤니케이션학*(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3), 59.

[40]Robert E, Webber, *God Still Speaks: A Biblical View of Christian Communication,* 78.

[41]*Ibid*., 79.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 위해서 또 인간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42] 성경은 이를 잘 증거 해준다. 구약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직접 말씀하셨던 족장시대를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고 대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출 19:9) 하나님은 간접적인 언어를 사용하신다.

구약에서 "주의 말씀이 임하셨다" 또는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간접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언어를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신 사실을 보여준다. 세례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의 수태고지(눅 1:12~23)나 동정녀 마리에게 나타난 수태고지(눅 1:26~38)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이었다. 그리스도의 첫 선포(막 1:15)도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한 일환이었으며, 베드로의 설교, 제자들의 전도가 예루살렘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전달되었다. "각기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기이히 여겼더라"(행 2:6). 이러한 기록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언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부터 유래하였고, 하나님의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안의 하나로 언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어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하겠고, 이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의 고귀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신적 언어를 잘 보존하고 사용해야 하겠다.

---

[42]Arthur F. Holmes, *"Symbol and Truth",Imagination and the Spirit, ed. Charles Hutter*(Grand Rapids: Eerdmans, 1971), 3.

세 번째로는 성육신을 통한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다른 방법은 성육신을 통해서 하신 방법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성육신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인격적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추이며,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이며, 성육신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다.[43] 예수 그리스도는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이며 그가 사용하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그 준거점이 된다. Charles Kraft 는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44]

> ①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려면 전달자와 수용자는 모두 똑같은 준거틀 안에 서 움직여야 한다.
> ② 준거틀 안에서 메시지의 예측도가 높을수록 그 메시지의 효과는 적어지고, 반대로 예측도가 낮을수록 메시지의 효과는 커진다.
> ③ 자료가 제시되는 형식의 특수성이 클수록 메시지의 효과는 커진다.
> ④ 메시지가 수용자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은 전달에 의하여 이해되고 일반화된 형식을 통하여 제시된 것 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커뮤니케이션은 수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하늘나라 복음'을 당시 사회가 수용하고 있는 문화 양식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전달되었다.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의 두 상반된 개념을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커뮤니케이션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커뮤니케이션의 접근 방법이었다. 이처럼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하여 가장 어려운 진리를 교훈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제시된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들의 삶 자체와 사회적 맥락을

[43] John W. Montgomery, "Mass Communication and Scriptural Proclamation", The Evangelical Quarterly(Jan.~Mar., 1977), 11.

[44] Charles H. Kaft, "The Incarnatio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Theory",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Fall, 1973), 278~82.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동화 되어야 하겠다.[45]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렘 17:9)라고 하였다. 즉 인간은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인 “하나님의 형상” 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 되는데, 하나는 죄의 결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그 요인이 되는 회복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커뮤니케이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관계(엡 5:22~23)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며 교회를 통해서 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짐을 말한다.[46]

이처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3 가지 요소, 즉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노력과 말씀하시는 언어의 하나님 즉 표현하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성육신의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회개와 용서, 그리고 구원의 회복으로 인한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3. 기독교적 관점으로 본 인간이해

1) 인간 존재적 기초 이해

---

[45]Charles H. Kraft, *"God's Model for Cross – Cultural Communication – the Incarnation"*(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Summer, 1973), 205~215.

[46]Paul Minear, *Images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1960), 84.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와 대상자인 인간에 대해 연구를 하면 자칫 인본주의적 경향으로 흐르기 쉬우나 이것은 바른 인간론 연구로 인간의 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은 피조성과 무죄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가지는 타락 이전의 인간의 본성으로서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추구하는 규범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 지음 받았다. 창조 받은 아담의 모습을 조명하므로 사죄의 은총을 체험한 인간들이 종국적으로 나아가야 할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47]

(1) 물질적 존재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물질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 받은 흙의 인간이다. 하나님이 물질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기에 물질적 피조물 자체가 본래 죄악된 것은 아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땅의 성질을 지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물질적 피조물에 대한 혐오감이나 근거에 대한 변명은 받아드릴 수 없다.[48] 이러한 물질적 피조물인 인간은 타락 이후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 죄악이 습관화 되어 버린 인간의 육체가 인간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물질성이 인간을 열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영과 육 모두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육신이 물질이라는 이유 때문에 육신을 학대하는 금욕주의는 성경적일 수 없다.

---

[47]Jay E. Adams, *More Than Redemption :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Phillipsburg, NJ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9), 104.

[48]*Ibid*., 105.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며,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물질이란 '죄'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성령의 소생케 하시는 역사를 강하게 소개하며 이것을 추구하도록 해야만 한다.[49]

(2) 영적 존재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령이 되었다' 는 창조 기사에서 인간은 물질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기와 영을 불어넣는 행위가 인간을 생명체로 만든 근원이 되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죽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영과 육이라는 이중구조가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인간의 이중구조가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50] 성경이 인간의 영과 육이 통합된 두 요소를 강조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성경에서 '영' 과 '혼' 이라는 단어가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오해가 많다. '혼' 이란 말은 인간의 전체성에서 '전인' 을 묘사한다. '혼' 이라는 말은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의 통일성을 지닌 인간을 지칭한다. '영' 은 항상 몸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비물질적 측면을 묘사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혼' 이라고 하지 않고 '영' 이라는 부르는 점이다.[51]

(3) 도덕적 존재

---

[49]*Ibid*., 106.
[50]박형룡, *교의신학 · 인죄론*, 49~53.

[51]Jay E Adams, *More Than Redemption :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114.

하나님의 형상은 “의” 와 “거룩함” (엡 4:24, 골 3:10)이며, 여기에 “완전한 지식” 을 더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완전한 지식, 참된 거룩함, 그리고 의(의로움) 이기에 도덕적이고 지성적이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도 반영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크리스챤들의 삶에서 구체화된다.

크리스챤들만이 하나님께 도덕적으로 용납이 가능하다. 이것은 자신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여하시는 은혜의 결과로 얻어진다.[52]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신다는 의미를 가진다(창 9 : 6, 약 3 : 9).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향하신 자신의 뜻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인간이 그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53]

도덕의 기준은 인간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비록 ‘도덕적 삶’ 을 영위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인간적 기준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 성경의 원리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이지만 범죄로 인하여 이것이 파괴 되었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54]

(4) 사회적 존재

사회학에서는 종교를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본다. 물론 종교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종교는 흔히 ‘영적’ 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종교

---

[52]*Ibid*., 120.

[53]*Ibid*., 121.

[54]존머리, 김남식 역, *성경과 기독교 윤리*(서울: 엠마오 서적, 1990), 42.

신앙은 절대자 혹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개인의 믿음과 관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마저도 대개는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믿어지고, 집단적인 신앙행위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교 현상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55] 이처럼 인간은 혼자서 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의 사회적 측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인간과 인간의 교제만으로 충족 되는 것이 아니다. 수직적이며 수평적인 두 가지 교제가 아울러 있어야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그러나 죄가 인간의 이러한 능력들을 부패시키고, 왜곡시켰으며 파괴 시켰기 때문에 그 죄의 모든 흔적을 지워 버릴 수 없다.[56]

완전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회복은 크리스챤의 참다운 신앙으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된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사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문제, 교회의 관계, 결혼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등 제기되는 문제가 많다. 또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고립적인 크리스챤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사회관계를 맺으며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

[55]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서울: 나남 출판사, 2005), 18.

[56]Jay E, Adams, *More Than Redemption :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126.

존재로서의 인간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정상화를 통하여 참다운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57]

2) 인간의 내적 요소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서의 인간이해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 이해는 또한 신학의 문제이다. 인간의 실체를 바로 알고 거기에 따른 삶의 자세를 정립 할 때에 다른 사람과의 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 인간의 실체는 내적인 요소를 이해함으로 시작된다. 내적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를 돌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기원과 구조에 관한 주장들을 정리해야 한다. 인간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여 왔다. 첫째로 '자연 발생론' 이다. 이는 고대 철학자들에 의하여 인간이란 자연 발생으로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 토생론이다.[58] 인간이나 동, 식물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여 기독교인들이나 비 기독교인 들에게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진화론' 이다. 진화론은 가장 성행되고 있는 이론이며 소위 말하는 과학적 가설이라는 전제하에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주장되어 오고 있다. 진화론은 생물학과 교육학에 까지 널리 유포되어서 교육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인문과학 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다.[59] 이 주장은 Charles Darwin 에

[57]죤머리, 김남식 역, *성경과 기독교 윤리,* 52.

[58]박형룡, *교의신학 · 인죄론*(서울: 은성 문화사, 1973), 26.

[59]Henry Morris, *Evolution and The modrrn Christian*(Phillipsburg, N.J.: Presyb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7), 7~10.

의하여 체계화 되었다. 그는 1859 년에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을 출간하여 당시 사상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다윈의 주장의 요점은 ① 변이(개체 변이), ② 유전(획득 형질의 유전), ③ 생존경쟁(적자생존), ④ 자연도태로 요약된다.[60] 고 한다면, 인간은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아메바에서 진화하여 유인원을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진화론은 증명되지 못한 가설로 존재하고 있으며, 비판의 핵심이 되는 것은 성경이 진화를 부인한다는 점이다.[61]

세 번째로 ‘창조론’이다. 이 주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성경에는 인간 창조에 대하여 이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창 1:26~27 과 창 2:7,21~23 에 나오는 기록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62] 인간의 기원은 다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행동에 기인하였다. 자연이 나아가는 과정은 인간이 산출한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다.[63]

Charles Hodge 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삶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는 말씀에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사람의 신체가 하나님의 직접적 간섭에 의하여 지어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

[60]한학수, *기독교와 과학*(서울: 한국 개혁주의신행협회, 1973), 153.

[61]H. Morris, *Evolution and The Modern Christian*, 32~35.

[62]John Calvin, *A Commentary on Genesis*(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5), 91-97.

[63]J. Gresham Machen, *The Christian View of Man*(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37), 131.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물로 구성케 하는 생명의 기운이었다고 하였다.[64]

인간 기원에 대한 대표적인 3 가지 주장들 가운데 우리의 입장은 ‘창조설’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창조설을 바탕으로 신학적 접근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성질이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신체와 영혼이라는 두 실체로 구성 되었다고 말한다. ‘삼분설(영, 혼, 몸)’과 ‘이분설(영혼과 몸)’이 있는데 삼분설은 성경적 근거가 빈약하다. 이들은 살전 5:23 과, 히 4:12, 고전 2:14~3:4 을 잘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사들은 인성 전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세 실체를 지적한 것은 아니다.[65]

반면에 이분설은 성경적 근거(창 2:7, 35:8, 왕상 17:21, 행 7: 59, 15:26, 시 31:5, 눅 23:46) 를 가지며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신체와 영혼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자아를 내적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로 고찰하려고 한다.

(1) 영혼

영혼은 내적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영혼기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혼 선재설’이다. 플라톤은 영혼의 선재나 전생을 믿었다. 그리고 Pilo 와 Origen 이 이 견해를 취했다.

---

[64]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Ⅱ*(Grang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40), 3.

[65]박형룡, *교의신학*, 53.

영혼 선재설의 견해는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계승된 것으로서 초대 교회에서의 많은 이단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 설에 의하면 영혼은 이미 전세에 어떤 상태로 존재해 있다가 신체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Kant 등과 같은 철학자들이 생득적 부패를 설명하기 위해 이 견해를 주장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 학설은 환영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 근거도 없는 학설이 되었다.

둘째로, '영혼 유전설' 이다. 인류는 영혼과 육체에 있어서 모두 아담 안에서 직접 피조된 것이며, 이 양자는 모두 번식에 의해 부모로부터 전수되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아담이 자기의 생김새대로 아들을 낳았다" 는 표현은 출생되는 자가 '전인' 이라고 해석된다. 터툴리안이 이 견해의 창시로 보이는데 어거스틴은 이 견해를 따랐으며, 루터파 신학자들도 대개 영혼 유전설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는 '영혼 창조설' 이다. 인간의 육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나, 영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영혼은 순수하게 창조되지만 부패한 육체와 결합되기 때문에 출생 이전에도 죄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설은 정통 기독교의 공통된 견해로서, 우리들이 수용하는 주장이다.[66]

(2) 육체

인간은 육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접수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 혈액이 몸의 각 부분에 열량을 공급하는 것은 에너지를 통한 신체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이며, 음식을 섭취하고 배설하는 신진대사는 질량 전달에 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 그러나 신경 조직이

---

[66]변한규, *짤막한신학 · 교의신학*(서울: 한국 로고스 연구원, 1990), 193.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아픔을 전달하는 것이나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정보 전달에 의한 상호작용 즉 커뮤니케이션 활동인 것이다.[67]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육체는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활용된다. 인간의 정보처리 체계는 감각 기관, 단기 기적 장치, 장기 기억장치의 정보 처리 기관을 갖추고 있어서 각각 인지, 감각, 지각 작용을 맡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 장기 기적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상하기도 하는데 앞의 모형에서는 이것을 효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모형은 감각, 지각, 인지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정보처리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정보가 복잡한 규칙으로 읽혀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산출해내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현상을 상징으로 바꾸어 보관할 줄 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인간이 장기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상징을 이용한다는 점이야 말로 인간의 지적 활동을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이 된다.[68]

인간의 출생시 뇌는 모두 형성되어 있지만, 각 부분간의 연결은 성장 하면서 천천히 이루어진다. 여러 실험 결과로 나타났듯이, 인간의 뇌는 기존하는 연결 외에 전혀 새로운 회로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인간은 언제나 모험을 감행 할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은 환경이 제공한 행동 전략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집합이론, 비 유클리드 기하학, 예술품의 구조분석, 창조성 개발의 방법 등 새로운 사고와 행동 방식은 모두 이런 것이 존재 하지 않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연결의 청사진이 중추 신경계에 작성되도록 유인한다. 이러한 뇌의 기능 변경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온갖 힘을 다하여 주위의 도전에 반응한 결과이다.

---

[67]홍기선, *커뮤니케이션론*(서울: 나남, 1991), 30.

[68]*Ibid.*, 551~555.

인간의 두뇌는 고정되어 있는 회로라기보다는 스스로 주변을 더듬을 때, 도구 구실을 하는 촉수와 같다.[69]

이렇게 인간은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를 중심으로 감각기관을 통해 환경으로부터 적당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응해서 일정한 반응을 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심을 이루는 인간의 육체는, 정보를 받아서 전달하는 수신자와 송신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의식세계를 자극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다하고 있다.

(3) 자아

내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자아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19 세기 말경까지는 자아라는 개념이 인성을 논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가 20 세기에 들어서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자아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소외되었다. 행동주의 학자들은 자아란 결코 알 수 없고, 자아의 추구는 실효를 얻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37 년에 G. W. Allport 가 "인성심리" 라는 책을 내면서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어 Snyggy 와 Combs 의 "지각심리학" 그리고 Rogers 의 "비지시적 상담" 과 Symonds 의 " The Ego and Self " 에서 특히 자아에 대한 연구와 이론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70]

Allport 에 따르면 자아란 즉각적으로 의식하는 무엇으로서 생의 따뜻하고 중심적이며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자아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또 인성

---

[69]C. A 반퍼슨, 손봉호역, *몸 · 영혼 · 정신*(서울: 서광사, 1989). 184~185.

[70]윤희준, *인성 심리 입문*(서울: 교육 출판사, 1977), 58.

속에서 그리고 유기체 속에서 결정적인 몫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71] Allport 의 이론을 종합하면 이렇다.

> 첫째, 자아는 인성보다 좁은 개념으로 그 하위에 포섭되는 한 부분 또는 영역이다.
> 둘째, 자아는 유아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환경이나 타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되면서 서서히 발달한다.
> 셋째, 자아는 인성 중에서도 외부세계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는 부분이다.
> 넷째, 자아의 주관적 의식은 항상 변한다.
> 다섯째, 자아는 과거보다도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아는 여러 심리적 기능을 포함하며 행동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주체가 환경에 대해서 그 존재의 의미를 표시해 주는 견해이다. 그리고 이 주체는 여러 가지 생리적 · 심리적 필요를 지니고 그것들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데서 그 존재의 의미가 결정되어진다고 본다.[72] Perkins 는 자아를 한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야기되는 개인적 의미의 독특한 역동적인 조직으로 정의한다. 자아는 발현하는 과정으로 특징지어지며, 독특하고 개인적인 존재다. 그것은 또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며 동시에 조직화가 유지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73] 그리고 그는 자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74]

> 첫째, 발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자아 인간은 태어날 때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개인적인 의미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발달로 인해 수용기관, 근육, 뇌, 신경조직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자아를 형성해 간다.
> 둘째, 독특함 : 각기 다른 환경과 경험을 통해 개인적 차이를 나타낸다.
> 셋째, 조직화의 유지 : 심리학적으로 생물은 안정을 유지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긴장을 완화하고 동질적인 균형을 회복하려는 행위는 자아의 조직화 유지를 예증해 준다.

---

[71]G. W. Allport,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61), 110.

[72]*Ibid*., 110~124.

[73]H. V. Perkins, *Human Development and Learning*(Belmont, CA: Wadsworth Pulishing Co., 1974), 219.

[74]*Ibid*., 219~221.

넷째, 역동적 과정 : 안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인간은 변화를 통한 역동적 과정을 수반한다. 조직화 유지와 반대되거나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체와 인간행동의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은 상호 의존적으로 보완적이다.
다섯째, 의식과 자아 : 의식은 어느 정도 자아의 특징이 된다. 이것은 자아 개념이 자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의 특징과 근원은 여전히 많은 심리학자들의 수수께끼이다. 자아는 일반적으로 의식적인 수준에서 개인적인 의미를 개인적으로 조직함으로써 형성된다.
여섯째, 추론된 과정으로서의 자아 : 자아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가시적이지도 않다. 개인은 자아를 자신의 공간에서 사물과 사건을 인지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의해 자아를 경험한다. 외부 관찰자들의 다른 사람의 자아에 대한 인지는 개인적인 의미에 있어서 독특한 조직화의 종류에 대한 언급에 한정된다.

두 학자의 이론을 종합해 보면, 자아란 그 개념 자체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자아는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끊임없는 역동적 과정 속에 있으며 각기 다른 삶과 경험을 통해 개인마다 독특함을 가진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인간의 자아란 외부로부터 메시지라는 자극이 들어 왔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복합적 자극은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자아라고 하는 내부적 조직체 속에서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결과에 대한 이해는 정보원과 수용자라는 두 유기체에 자아의 이해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75]

3) 외적 장애요소 갈등

(1) 정의

[75]Kurt Lewin, *Principles of Typological Psychology*(New York: Mc Graw · Hill, 1995), 125.

인간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항상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갈등과 장애요소들이 생겨날 때가 많이 있다. 인간관계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행동이라는 요소들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커뮤니케이션 관계 속에서 상호간에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작용이 일어나지 못할 때에 생기는 것은 갈등이다. 갈등이란 둘 이상의 사람 또는 집단 간의 의견상의 차이를 말한다.[76]

S. P. Robbins 는 갈등이란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B 를 좌절하게 하는 어떤 유형의 봉쇄에 의해서 B 의 노력을 상쇄하기 위한 A 의 의도적 노력의 과정” 이라고 하였다.[77]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안에서 함께 일하는 과정 가운데 정상적인 활동이나 관계에 방해가 되거나 파괴되는 상태로 애로를 겪는 형태를 말한다.[78]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관계의 존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의 존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난다. 갈등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항상 존재하였다. 인간의 역사는 곧 갈등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인간의 역사는 갈등의 연속이었다.[79]

갈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족 간에,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현상으로 갈등의 결과가 상호 결속력을 강화 시켜 주기도 하지만 적대감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양상을 지니고 있다. 갈등이 억제되면 변화하는 상황에

---

[76]P. P. Dawson, *Fundamentals of Organizational Behavior*(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Press, 1985), 338.

[77]S. P. Robbins, *Essentials of Organizational Behavior*(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Press, 1984), 142.

[78]H. J. Reitz, *Behavior in Organization*(Homewood, IL : Richard D. Irwin, Inc., 1981), 407.

[79]김준수, *기독교인의 부부 갈등에 관한 연구*(논문집: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성경과 신학 29 권, 2001, 4), 248.

적용하기 어렵고, 적대감이 쌓이면 집단 결속감이 떨어지게 된다. 태도나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나 자존감이 상했다는 지각상의 문제등과 같이 개인 내적으로나 개인 간의 상충되는 욕구에 의해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갈등의 문제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것에서 심하면 세력을 가진 상대방이 그렇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인간관계 갈등은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80]

(2) 원인

갈등의 현상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일어난다.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 즉 성도들의 모임[81]으로 여기서도 끊임없는 인간관계는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은 상실 되고 관계성은 파괴된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상처를 입게 되며, 교인들 간에는 대화가 단절되고 상호간의 소외 의식과, 이기주의 등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82] 그 원인을 다섯 가지로 살펴본다.

첫째, 오해로 인해 갈등한다. 차별성을 지닌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정확한 의사 전달이나 확인, 이해가 요청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인간이 자신의 사고의 틀 안에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

[80]김준수, *마음의 치유*(서울: 디모데, 2007), 106.

[81]박영선, *교회론*(서울: 엠마오, 1991), 10.

[82]백장흠, *교회내의 인간 관계 연구*(논문: 계명대대학원, 1976), 16.

오해로 인하여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83] 갈등하는 마음의 배경에는 자신의 것이 인정되지 못하고 용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표현 되지 않는 기대감이 들어있다. 이것은 자신이 갈등하는 상대에게 수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예수님의 좌, 우편 자리를 기대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을 그 어머니가 데려 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달라고 하자 열 제자가 이 소리를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마 20:20~21).

둘째, 인간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한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다. 인간의 각자의 고유한 성정을 지니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각자마다 다양하고 차이가 난다. 인간은 성품과 기질이 같지 아니하고 다르다. 인간마다 기호가 다르고, 믿음에서도 차이가 난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관계를 맺고 분리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이다.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84] 사람들은 서로를 향하여 움직이기도 하지만 서로에게서 멀어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르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 가깝게 지내거나 교제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은 악한 본성으로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타인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갈등을 일으킨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후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 두 선교사들은 다음 선교지를 가기 위해 의논하다 결국 마가의 문제를 놓고서 갈등과 대립을 하게 된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이 갈등으로 인하여 둘은 갈라지고 나뉘어져 바울은 실라를, 바나바는 마가를 그들의 선교 동역자로 선택함을 보여준다(행 15:36~41).

---

[83]황규명, *인간 관계 갈등 해결을 위한 피스 메이커의 사역과 성경적 상담*(논문: 총신대 논총, 제 26 집, 2006), 294.

[84]Ronald Richardson, 유재성 역,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서울: 국제 제자 훈련원, 2008), 127.

셋째,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갈등한다. 교회도 하나의 작은 조직체이므로 이 조직에 있어서는 다양한 조직이나 기관들의 규범이나 각 구성원 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또한 작은 기관이지만 기능의 원활함을 위해 통제나 자원의 평등한 분배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의 불균형은 구성원들의 불일치와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든 발전하고 성장 하려는 인간의 욕구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도 해당자원의 적절한 분배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 해석되어지면 사소한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분열을 가져 오기도 한다. 갈등이 극단화, 만성화 되어 결국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는 경우가 있다.[85] 갈등이 심해지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분열 되더라도 상대방을 파괴시키려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공권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기도 한다.[86]

이외에도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면 당사자 간에, 각 기관 상호간에 모략, 중상, 폭력을 행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된다. 이처럼 갈등은 신자의 영성을 잃게 하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 막으며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므로 갈등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미리 지혜롭게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족장시대에 아브라함과 롯이 한 지역에 거할 때, 두 사람의 목자들이 물과

---

[85]김현철, *목회 현장에서의 갈등,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간행물: 목회와 신학 통권 178, 2004, 4), 106.

[86] Ken Sande, 황규명 역, *피스메이커*(서울: 피스메이커, 2000), 31.

풀등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된다(창 13:1~12).[87]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헤어지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갈등의 원인으로는 인간의 탐욕스런 '죄'가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근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 갈등한다. 갈등의 원인에 대한 근원적 근거로서 인간의 죄, 죄인 된 인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죄는 인간관계의 갈등 뿐 아니라 총체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죄성은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 이웃을 이용하는 태도인바 아담의 후손들 모두에게 나타난다. 또 이러한 죄성은 또한 육체의 정욕으로 나타나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살기 보다는 육체를 따라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도록 만든다.[88]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갈등이 일어났다. 이 죄는 인간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마음속에 악한 뿌리 내리고 있다. 악한 뿌리에서 마음의 우상들을 만들어 내며 교만, 증오, 시기, 질투, 분노, 적개심, 편견, 원한, 이해의 결핍, 지혜의 부족, 우매한 욕망 들을 갖게 한다. 이러한 죄의 배후가 갈등을 조성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즉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와 인간과 인간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 막힌 것이 없는 열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인간관계에 오해와 원망, 미움, 분노, 분쟁이나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다.[89]

죄로 인하여 조화를 이루었던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결국 아담

---

[87]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서울: 바이블 리더스, 2008), 294.

[88]현유광, *갈등을 넘는 목회*(서울: 생명의 양식, 2001), 76.

[89]유재성, *인간의 특성으로 본 갈등 원인의 상담학적 이해*(간행물: 목회와 신학, 통권 178, 2004, 4), 86.

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다. 그 후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고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불순종함으로써 갈등의 역사를 이어갔다.[90] 더 나아가 인간관계의 단절이 일어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시기와 원망과 욕심 등으로 채워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각인하여 교인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책임을 전가한다. 구약성서에서 아브라함의 갈등은 신앙의 깊이에 대한 갈등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에 순종하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아마도 사흘 길의 모리아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복잡 하였을 것이다. 자신의 사랑스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는 고통은 많은 갈등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 신앙행위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하였다(창 22:11~13). 또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철저한 불신앙의 여인 이세벨의 암살 계획에서는 죽기로 작정하고 도망을 한다. 그래도 그의 마음속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차서 위대한 예언자의 모습을 버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갈등의 눈물을 흘리며 죽음을 앞 둔 사람처럼 울고 있는 것이다(왕상 19:1~4).

[90] 김준수, *기독교인의 부부 갈등에 관한 연구*, 257.

다섯째, 사단의 궤계로 갈등한다. 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화가 생길 때는 사단이 배후에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91] 선한 천사들과 같이 타락한 천사들은 역시 초인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능력의 사용은 슬프게도 선한 천사들의 사용과는 반대된다. 후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지만, 어둠의 권세들인 천사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싸우며,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한다.[92]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항하며, 선택된 사람들을 눈멀게 한다. 그리고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하여 악한 천사, 즉 사단은 기회를 틈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공격한다. 특히 갈등이 생길 때 서로의 입장을 잘 듣지 못하게 하며, 오해하게 하며, 정보를 과장하여 불신하게 하고, 위장하며 거짓말을 하고, 시기, 질투, 반목하게 한다. 더 나아가 서로의 잘못을 투사하며 서로가 방어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하여 파괴적인 역사를 행사한다.[93] 제사 문제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행했던 것처럼(창 4:4~8) 사단의 공격은 교회에서 형제가 형제를 향해 원망과 미움을 일으키는 불행한 사태를 일으키기도 한다. 사단은 교회 공동체 내부에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장기적으로 끌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자중지란을 불러온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기 때문에(벧전 5:8) 늘 교회는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다가도 교회 공동체 안에 오해가 싹이 트기도 하여 교회와 목사 간에, 교인과 교인 간에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교회가 심한 분란에 휩싸이고 심하면 교회가 분열되기도 한다. 사단의 궤계로 인한 갈등은

---

[91]현유광, *갈등을 넘는 목회*, 82.

[92]벌코프, *조직신학. 상*(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2), 355.

[93]이관직, *교회내 갈등 그 부적절한 해결의 결과들*(간행물: 목회와 신학, 2002, 4), 116.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극복 할 수 있다.

욥은 자신의 신앙의 완전성을 시험 당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일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노라고 자부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단의 시험에 들게 하신다. 그러나 그의 갈등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의 삶의 자각과 젊은 엘리후의 충고를 통해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 일어난다. 그는 죽음을 갈망한 불의(욥 3:20~21),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욥 12:6), 자신의 의를 높였던 교만(욥 31:5~6)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된다.

(3) 갈등의 치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성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갈등 해결을 갈등관리라고 표현한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 전략을 삼 단계로 서술한다. 첫째, 진단 : 특히 조직 진단을 통해서 갈등 상황을 인식한다. 둘째, 개입 :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적으로 행동 개입을 한다. 셋째, 평가 : 갈등 관리의 효과를 분석, 평가하는 과정이다.[94]

---

[94]김남식, *기독교 커뮤니케이션학*, 278.

그렇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용법을 토대로 한다. 갈등 해결을 위하여 시도되어야 하는 것은 첫째, 갈등 요인의 제거이다. 역기능적 갈등이 전개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것이 극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순기능적 갈등의 조장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진로 변경, 커뮤니케이션 정보의 활용, 이질감의 조성, 경쟁으로의 유도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95] 그 방안으로 갈등의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여 공동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며, 상위 목표를 제시하여 갈등을 완화시키고, 자원을 증대함으로 자원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며, 타협 등의 방안으로 공동 결정에 도달 하도록 해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인지치료법(Cognitive therapy)을 활용한다. 인지치료법의 기본적 원리는 우리의 사고들과 신념들(즉 인지들)이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Harris 는 상담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치료함을 강조하면서 "치료의 목표는 나타난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며, 그 치료 방법은 성인을 자유롭게 하여 선택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고 과거의 한정된 영향 이상의, 또 그것을 초월한 새로운 선택을 창조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상담자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많은 개입을 강조하는 교사, 트레이너,

---

[95]E. F. Huse and J. L. Bowditch, *Behavior in Organizations; A Sustem Approach to Managing(2nd ed,)*(Boston; Addison- Weseley Co., 1977), 210~211.

자료제공자”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관계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96]

이제 기독교적 관점으로 갈등의 치유 방법을 하나님의 모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의 기본 열쇠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축으로 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바로 정립해야 한다. 인간관계 형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요 1:14)는 뜻으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 교리이다.

성육신 의 특징은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는 어른의 모습이나 전문가,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점이며, 평범한 어린아이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배우며 자랐던 학습자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낮아짐이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갈등의 대상자나 조직의 수준에 맞추어 자신의 자세를 맞추어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97]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면서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성육신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셨던 방법은 예수그리스도를

[96]T. Harris, *I'm OK- You're OK*(New York : Avon, 1967), 231.

[97]김남식. *기독교커뮤니케이션학*, 286.

통해서 가장 언어적이며,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갈등의 치유는 예수그리스도의 현현과 그의 사역 속에서 일어났다. 인간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인간에게 관계회복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로의 초대인 것이다.

Ⅲ. 커뮤니케이션 대상자 세대별 이해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자인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각 세대별의 특성과 문제점과 고민과 갈등 등의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설교 연구에 중요한 연구 요소라 하겠다. 여기서 인간 이해는 교회 내 크리스챤들을 포함한 다수의 일반인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범주로 하고자 한다.

크리스챤들은 사회 속에서 사회의 현상과 문화와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이며, 앞으로 선교의 대상자들인 다수의 비 크리스챤들의 사회 속에서의 그들의 연령별로의 특성과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해함은 커뮤니케이터로서 설교자에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달하며 그들과 함께 삶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한 세대별 인간 이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1. 청소년 세대 이해

1) 특성 이해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보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98] 이 시기에 신체적 발달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당황하게 만든다. 특히 이 시기의 신체적인 변화는 너무나 급속하게 일어나고 개인차와 남녀 차가 크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과 불균형 현상을 낳아 청소년들 간의 갈등을 심화 시키며

---

[98]김태련 외, *청소년심리학*(서울: 서원, 1997), 20.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99] 또한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인한 많은 압박과 심리적 고통은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들을 바르게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5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체적 특성

청소년기의 신체적인 변화는 일생에 있어 출생 후 3 년간을 제외하고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신장의 급성장을 “청소년기의 성장 급등” 이라고 하는데, 이때 신장은 1 년에 10~15Cm, 체중은 4~5Kg 정도가 늘어난다.[100] 이러한 현상은 여자가 남자 보다 2 년 정도 빨리 급등 성장기가 오는데,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빨리 사춘기를 맞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01]

청소년 초기에는 뼈와 근육이 같은 속도로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단히 불균형한 신체를 지니게 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큰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급격한 발달로 인해 생식기와 생식기능이 발달하는 “제 2 차 성징”이라는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남자는 첫 신호로 음모가 생성되고 음낭과 고환의 성장이 가속화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염이 나고 이후에 변성기가 시작되며 정액의 배출이 있게 된다. 여자는 가슴이 커지고 음모가 생기는 것이

[99] *Ibid*., 37.

[100] 손종국, *청소년 지도*(서울: 예루살렘, 1993), 40.

[101] 김태련 외, *청소년 심리학*, 21.

사춘기 초기의 신호이며 자궁과 질이 성장하게 된다. 초경은 발달 단계에서 비교적 늦게 일어나 대체로 성장 급등의 속도가 정점에 달한 이후에 나타난다.[102]

이러한 청소년기의 신체적 성숙은 성욕충동을 느껴 자위행위, 동성애, 그밖에 이상 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춘기의 신체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이 시기의 변화는 너무나 급속하고 개인차와 남녀차가 크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매우 당황하고 불안해하며 따라서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103] 이러한 신체적 변화에 따른 수치심과 열등감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이기에 원활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데에 장애요소가 된다.

(2) 지적 특성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기는 이전과는 다른 사고를 가지게 되며 또 이에 따른 행동 특성을 보이게 된다. 연령에 따른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영아기, 아동기를 거쳐 변화된 사고의 특성이 청소년기에도 두드러지며 그 이후의 어느 시기도 이와 같은 큰 폭의 인지변화가 없는 중요한 시기이다.[104] 이 청소년기에는 가상적인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설을 생성하고, 모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조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또 가설 연역적으로 사고 할 수 있게 된다. J. Piaget 은 이 단계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구분했다.[105]

---

[102]남승희, *청소년은 누구인가*(서울: 서원, 1993), 33.

[103]김태련 외, *청소년 심리학*, 31.

[104] *Ibid*., 40.

[105]*Ibid*., 42~43.

이러한 “형식 조작적 사고” 로 청소년은 자신의 사고를 개념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고도 개념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사고를 고려할 수 있다고 믿는 바로, 이 능력이 문제가 되어 청소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과 자신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대상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 중심성” 이 나타나기 시작한다.[106] 때문에 자아 중심성은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나뿐 아니라 너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관계형성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춘기 말기에는 그들의 사고, 객관성 개념에 있어서 실수와 결점을 분별하기 시작 하면서부터 판단력에 현저한 발전이 있게 된다.[107]

(3) 정서적 특성

청소년기는 성장 과정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정서적으로 불안, 우울, 분노, 열등감, 고독, 애정, 기쁨, 슬픔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의 감정은 일관성이 없고 잠깐 동안에도 모든 영역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마음에 상처를 입으며, 반항적인 행동을 드러내기 시작한다.[108]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정서 불안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급기야 반항적 행동, 음주, 가출, 약물남용, 비행 등의 행동

---

[106]*Ibid.*, 50~51.

[107]Bynum. Bill, 김현철 역, *청소년 이해와 교회 교육*(서울: 나침반사, 1986), 29.

[108]*Ibid.*, 29.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109] 하지만 고등학교 고학년(미국의 경우: 10 학년~ 12 학년) 시절과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감정이 안정적으로 된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은 더 심미적으로 되고, 감상주의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반면에, 이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은 여전히 지속된다.[110] 청소년기의 급격한 감정변화는 정서 불안의 상태에서 대인 기피 현상과 자기 방어적인 행동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장애가 된다.

(4) 사회적 특성

청소년기의 사회성은 유아기로부터 시작하여 발달한다. 청소년기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거대한 사회 질서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한 회의와 고민을 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아 정체감" 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사회적 특성을 나열하자면 그들은 우선 성인이 되길 원한다.[111]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중간에 끼어 있는 어중간한 상태에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원한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로부터 독립하기를 또한 원한다.[112]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그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지시해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청소년들은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한다.[113] 이러한 사회적 욕구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충성심을 다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갖게 한다. 그러면서 또한 청소년들은

109 김태련 외, *청소년 심리학*, 185.

110 Bynum. Bill, 김현철 역, *청소년 이해와 교회 교육*, 29~30.

111 이승재, *기독교 청소년 상담 지도서*(서울: 은혜 출판사, 1995), 30.

112 *Ibid.*, 31.

113 *Ibid.*, 32.

자아의식을 소유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성적욕구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감정은 커다란 불안감을 수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욕구로 하여금 정상적인 발달과 성숙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때에는 주요 관심사가 이성 간의 교제이다.[114] 청소년들은 이성과 직접 교제를 함으로써 수줍고 어색한 대인관계를 탈피하고 자연스러운 사회생활로 적응이 이루어진다.

(5) 종교적 특성

아동기 때에는 종교 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수용하고 실천하던 것에 비해 청소년기에는 주어진 설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또한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비판하기도 하며, 그것이 자신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인 신앙을 원한다. 종교철학이나 조직신학과 같은 교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 생활의 모습을 변화시켜주고, 소망을 만족시켜주며,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신앙을 원한다.[115]

이때에는 특히 감성이 풍부하여 종교적 감정이 마치 풍부하게 성장한 비옥한 토지와 같은 시기이다. 그리고 추상적 사고의 발달로 인하여 종교적 사고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상징적,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되며, 비문자적 성경 해석이 가능해지고 현재의 종교적 가르침에 회의와 불안을 느끼게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해 보려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116] 또한 종교적 통찰력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시기이지만 종교적 개념의 구조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림으로써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

[114]*Ibid.*, 109.

[115]이승재, *기독교 청소년 상담 지도서*, 46~49.

[116]유병선, *청소년*(서울: 청소년 전도협회, 1996), 53.

청소년기는 종교적 회의를 품는 시기로 아동기의 종교심을 수정하여 새롭게 결정적 선택을 하는 과도기 상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종교의 위기와 새로운 수준으로서의 정착으로 갈리게 된다.[117]

이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물음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성서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과 관련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종교관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위로의 대화와 이해, 인내와 공감의 언어로 그들을 받아주며, 성숙한 인격체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

청소년은 이중적 환경 즉 기성인들이 형성해 놓은 환경과 청소년들이 직접 조성한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성세대들이 형성해 놓은 경쟁적 환경 속에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의 친구를 적이나 혹은 자신이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환경 속에 있으며, 이들이 마음껏 교제하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청소년들 사이에는 남몰래 숨어서 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두운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이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들만의 고민, 욕망과 좌절, 공포를 동시에 경험하는 하나의 격동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문화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들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더욱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 문제를 논의 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 비행, 문제 청소년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117] *Ibid*., 109.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문제란 인생에서 가장 예민한 감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부딪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현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과 무의식적이거나 의식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118]

(1) 변화 하는 사회와 청소년 문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특징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산업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사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높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되었지만 과거의 정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는 무시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불과 30~40 년 만에 눈부신 사회 발전을 이뤘지만 기성세대들의 가치관이나 행동 규범의 타당성을 상실되어 그들을 바라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많은 혼란과 실망과 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이 가정을 넘어 학교, 친구, 집단, 사회, 사이버공간 등으로 광범위 하게 확대되어 이질적인 집단과 가치에 접촉하게 됨으로 인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몇 갑절의 갈등과 고민을 안고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가르치고 원하는 생활 방식과 친구 또는 대중 매체에서 제시하고 조장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 안과 밖, 학교 안과 학교 밖, 자기가 속한 친구 집단과 다른 또래 집단,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고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준거집단과 다른 집단, 가정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현실 사회의 괴리감 등 다양한 집단의 가치와 규범이 상충 하는데서 오는 갈등은 심각하다.[119]

---

[118]이진우, *청소년 교육 핸드북*(서울: 한국 문서 선교회, 1994), 116.

[119]*Ibid.*, 116.

사회 심리학 차원에서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개인의 가치관은 성인이 된 후에 그 가치 체계와 자아 정체감의 변화가 쉽지 않다고 본다. 비록 급격한 사회 변동이 기성세대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변화된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청소년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기성세대의 가치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1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오늘의 청소년들을 자신들이 자라던 옛 경우로 미루어 이해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성장에 많은 장애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세대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기성세대가 자세를 낮춰 청소년을 이해하는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2) 가정과 청소년 문제

가정이란 인간을 인간으로 형성하는 모체이며, 가정을 통해 인간은 사랑을 배우고 공동생활을 익힌다. 또한 가정은 한 인간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현대의 가정은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가족 구조에 있어서도 취업 여성의 증가, 이혼의 증가, 주말 부부의 증가, 자녀 수 감소, 주거 생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문제 가정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결과 결손 가정의 아동, 유기된 아동, 보호가 결핍된 아동,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이 많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가출 및 비행 청소년 등 각종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사회에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121]

---

[120]임희섭,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고찰*(논문: 청소년 문제에 관한 논설집 제 16 집, 1986), 11.

[121]이진우, *청소년 교육 핸드북*, 119.

이와 같이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함으로써 현대 가정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게 되었는데 가족 구조의 변화, 즉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5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122]

> 첫째로, 현대 가정이 핵가족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이다. 직업 구조의 변동과 그에 따른 도시화, 출산 자녀수의 감소 등으로 가족 수가 줄어들고 가족 형태가 변모함으로써 가족관 및 도덕관의 변동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즉 대가족에서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던 폭 넓은 인간관계의 형성이 어렵게 되었으며, 자신의 유익에 집착하는 이기주의가 나타나고, 소외감을 갖거나 정서적 안정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
> 둘째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른 문제이다.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점차로 자기 가정을 중시하는 경향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으로 청소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혼자라는 생각과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외감, 나아가 자기 증오감과 심리적 무력감을 갖게 된다. 부모와 대화 시간의 부족은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혼자 처리함으로 독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특히 도시 아파트와 같은 주거 구조가 폐쇄적으로 된 곳에 있는 청소년들은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조차 받을 수가 없어 이기주의적인 청소년으로 자라나는 경향이 있다.
>
> 셋째로, 부모의 과잉보호와 과잉 기대에 따른 문제이다. 핵가족화 현상으로 적은 자녀를 양육하는 현대의 부모들은 지나친 관심과 보호로 청소년들의 자질과 의사는 무시한 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나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는 입시 위주의 교육만을 준비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을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감과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잉보호는 타인에 대한 의존성, 심약성, 비 타협성을 그리고 과잉 기대는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압박을 주게 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전한 삶을 포기하거나, 여러 형태의 탈선과 비행의 길로 접어들게 만든다.
>
> 넷째로, 결손 가정 증가에 따른 문제이다. 핵가족은 부부의 애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애정이 식어 버리는 경우 그 가정은 제 기능을 상실하고 가족의 정상적 기능이 마비된다. 배우자의 사망, 이혼, 불법출산, 별거, 부모의 가출 등의 결손 가정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애정의 결핍, 정서적 불안, 극도의 열등감과 소외감, 자기 비애와 함께 반항심을 유발하여 청소년 비행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 다섯째로, 대중 매체의 가정 침투에 따른 문제이다.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TV, VTR 등의 대중 매체가 가정에서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누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아감으로써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대중 매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모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정신적 혼란과 가치관의 갈등을 가져오게 한다.

위의 다섯 가지로 현대가정의 내적 요인의 문제와 외적인 요인의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하여 부모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신적 혼란과 가치관의 갈등과 많은 시간을

---

[122]김웅태, *청소년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교회 교육*(논문: 목원대학교 논문집, 1997), 18~19.

빼앗는 대중 매체에 정신과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며, 대중 매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모방 정신 또한 버려야 할 것이다.

(3) 학교와 청소년 문제

어떤 의미에서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장래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의 기본적 태도의 수련장이라고 할 수 있다.[123] 학교는 전통적으로 청소년의 지, 덕, 체의 조화로운 발달이나 지식과 인격을 겸한 전인적 인간의 형성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조직체이다. 그리고 학교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가르치는 교육 기능과 기존의 문화유산을 전달하고 습득시킴으로써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익히게 하는 사회화 기능, 그리고 각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지위를 선택하고 분류하는 선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하게 전문화된 시대에서 학교 교육이 갖는 역할은 지대하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한국에서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으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입시 위주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 위주의 학업 방식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 까지 부모의 지나친 경쟁의식과 고학력 사회 풍토로 인하여 진정한 인간 교육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잦은 입시 전형 방법의 번복은 청소년들을 혼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진로를 지도해야 할 학교 교육이 대학 진학을 위한 암기 위주의 학원 교육화 하고 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상급 학교 진학에 압박감, 성적 저하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친구를 만나 우정을 나누고 자신의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친구를 정복해야 내가 산다는

---

[123]정영석, *형사정책*(서울: 법문사, 1982), 276.

경쟁적인 교육 풍토로 인하여 학생들은 참 인간으로 성장 되는 것을 방해 받고 있다.[124] 또한 심신을 단련할 문화 활동이나 체육활동을 할 여가선용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그 결과로 학생들 스스로가 소외 당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자살, 가출 등 일탈 행동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YMCA 의 조사결과 다르면 공부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비행과 가출, 성폭력 등을 많이 일삼고 있으며, 최초 범행 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진다고 하였다.

(4) 대중문화와 청소년 문제

대중 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분에서의 인간 소외와 획일화 현상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나 육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체적인 획일화 현상과 인간의 수동화 현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하게 되므로, 청소년들의 인간 소외와 획일화 현상은 심화되고, 청소년들은 창의성과 적극성이 부족한 청소년으로 자라나는 경향이 있다. 여러 가지 대중 사회의 특성 중에 청소년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 생활과 문화생활, 특히 대중 매체와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성세대들의 이윤 추구만을 위한 잘못된 상업주의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외해 문화의 도입과 국적 불명의 새로운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소비 및 여가 활동의 패턴을 TV, 잡지, 인터넷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전파시켜 판매와 보급을 촉진 시켜왔다. 이러한 매체들은 교육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앞서고 있다. 대중 매체들은 지나치게 외설적, 선정적, 폭력적이며, 비교육적인 내용과 표현을 담고 있어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포르노와 각종 성인물들이 난무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탈선

---

[124] 정태기, *한국교회와 청소년 프로그램*(서울: YMCA, 1986), 34.

및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125] 이러한 청소년들의 계도할 대안은 사회적 기관과 탈선예방 장치를 가동하는 것과 교회의 과제로 남는다. 교회는 대중문화에 병폐에 휩쓸리는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서 대중문화에 심취한 현대 청소년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문화의 방법으로 그들을 선도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양육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의 고민과 비행

(1) 청소년의 고민

청소년 시기를 별다른 고민 없이 보낸 사람들은 청소년들의 고민을 소수의 잘못된 아이들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부모들은 의, 식, 주 문제에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자녀가 특별한 고민 없이 잘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실현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 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나 줄 것을 기대하며, 이에 따라 성적과 대학 진학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있어 심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인 이성 문제에 대하여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부모는 2.7%밖에 되지 않는다.[126]

또한 자녀들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교육적이라고 믿고 있는 부모들이 학업과 자녀의 진학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이지만 이성 문제나 친구 문제, 성 문제 등 청소년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경우가 많다.

---

[125]이진우, *청소년 교육 핸드북*, 127~128.

[126]*Ibid.*, 128.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정에서부터 대화와 상담으로 해결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적과 진로에 대한 고민, 가정간의 불화, 학대, 구타, 부모의 별거나 이혼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다. 또한 친구에 대한 고민, 경쟁심, 열등감, 소외감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러한 고민의 심각성은 탈선과 가출, 그리고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27]

(2) 청소년의 비행

청소년 비행의 개념 정의는 용이하지 않다. 이는 비행의 한계나 정의가 한 사회나 국가의 도덕, 전통, 관습 등에 따라 다르며, 한 사회 내의 단체나 개인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범죄의 개념은 라틴어로 'Crime'이며 벌과 비행을 뜻하고 있으며, 독일어의 'Kriminaltiat' 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했을 경우를 말한다.[128]

J. Helmer 는 비행을 "한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준 이유로 벌을 받게 되는 것" 이라 했고, 미국의 P. V. Young 은 비행은 "사회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개인적인 행동이나 인격적 태도" 라고 했다. E. Durkheim 은 비행을 "사회에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경우는 물론 사회의 본질적인 안정과

---

[127]*Ibid.*, 129~137.

[128]기독교 목회 자료 연구소 편, *목회 상담 자료 백과*(서울: 기독교 목회 자료 연구소, 제 4 권, 1995), 397.

믿음에 피해를 주었을 때를 이른다." 고 했다. 김영모는 비행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광의로는 반사회적 행동이고, 협의로는 청소년 비행의 의미로 사용했다.[129]

한국사회에서는 비행 청소년을 12 세 이상 20 세 미만의 사람으로 형법 법령 특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거나 환경에 비춰볼 때 장래에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범죄 청소년과 범법소년, 우범소년의 비행으로 말하고 있다.[130]

이러한 비행 청소년들의 심리상태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감정적이며, 육감에 의지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감각적 사고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는 연장자에 대하여 권위를 인정하거나 존경하기 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중심으로 보는 태도를 지니며, 법규나 질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로는 공동체주의 보다는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해져 이기주의적이며 의무나 책임보다는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독단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넷째로 동료 집단에 대한 인식이나 소속감에 있어서 맹목적이어서 한번 비행 집단과 접하게 되면 의와 불의에 관계없이 길들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로 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보다는 안일한 행동, 기회주의적인 사고로 목적 성취만을 중요시하며 인기직의 인물을 영웅시하는 경향으로 이것은 현 시대의 한탕주의 사고를 비행 청소년들이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1]

---

[129] *Ibid.*, 397~398.

[130] 송은천, *교회 교육을 통한 청소년 문제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논문: 서울 신학 대학원, 1991), 17.

[131] *Ibid.*, 17~18.

비행청소년은 사실 청소년 문제 전반에 걸친 문제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커뮤니케이터로써의 교회와 목회자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후 관계형성, 관계유지, 장애요소의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비행의 근원적 요소를 제거하고 가정 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재활해 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특징과 문제와 고민 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커뮤니케이터로써의 교회와 목회자는 이들과 지속적이고 열린 마음과 공간 창출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2. 중년 세대 이해

1) 중년의 정의

중년은 일반적으로 마흔 살 안팎의 나이를 지칭하고, 청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기 내지는 변동기로 정의된다.[132] 중년자는 중년기(middle age)에 있는 사람을 이르며, 통상적으로 약 40～60 세 정도의 나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33] Erikson 은 인간의 심리사회성 발달의 여덟 단계에서 중년기를 30 세에서 65 세 사이로 보고, 중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제로서 생식력(generative)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생식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가정관리의 실패, 직장생활의 불가능, 인간관계의 불안정 등의 상태인 침체성이라는

---

[132]김명자, *중년기 연구*(서울: 교문사, 1994), 106~108.

[133]미국 통계국에서 정의하는 중년기의 기간은 45~64 세 사이이다. C. G. Jung,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773.

부정적인 위기가 온다고 주장하였다.[134] Borland 는 중년기의 다양성을 종합하여 가족 주기를 기준으로 중년기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연령과는 관계없이 막내 자녀의 독립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은퇴기 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하고 있다.[135]

그러나 한국 사회의 경우 막내 자녀가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완전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어렵고, 막내 자녀가 결혼한 이후라도 부모와의 정서적 물질적인 유대가 강하게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연유로 중년기에 관한 서구의 가족생활주기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그리하여 중년기는 생활연령 측면에서 40~60 세에 속하면서 가족생활 주기를 기준으로는 막내 자녀의 위치가 사춘기 이상에 속하고 있는 시기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중년기에는 시간의 인식과 기억력이 재조직 되고, 미래를 예견하기 보다는 과거의 회상과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는 줄어들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또한 중년기에는 과거에 이루어 온 역할에 대한 안도감을 가지는 반면 향후에 맞이할 노년기에 대한 불 확실과 적응의 두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반된 감정이 중년을 맞이하는 인간에게 위기의식을 줄 수 있다. 중년기는 확대기에 속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부부로 인해 가족이

---

[134]Erik H. Erikson, *Identity : Youth and Crisis*(New York : W. W. Norton, 1968), 16.

[135]D. C. Borland, *“Research on Middle Age : An Assessment,” The Geron to logist 18no.4*(1978), 379-386.

이루어지고, 자녀가 출생하며, 부부와 자녀세대로 가족의 규모가 확대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년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136]

> 첫째, 자연스럽게 자아의 욕구나 필요 또는 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는데,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하여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시기이다.
>
> 둘째, 사회생활에서 성취를 얻고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에서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이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가 감지되기 시작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늦었음을 자각하는 시기이다.
>
> 셋째,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생의 유한성을 절감하고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갖는 시기이다. 특별히 여성의 중년기 전환은 자녀의 독립과 폐경이라는 생물학적 변화가 관련되는데, 특히 여성에 있어 중년기는 종말인 동시에 시작의 시기라 할 수 있다. 모든 종말에는 상실감, 고통, 과업 완수에 대한 안도감이 수반되며 또한 모든 시작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한 초조감과 흥분감 등이 수반된다. 이와 같은 시작과 종말에 따르는 상반된 감정이 중년기 여성을 당혹하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 중년은 연령, 가족주기, 개인의 심리적・생물학적 과정,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영향 받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중년은 가족생활 주기의 관점에서 자녀 양육 역할이 어느 정도 감소된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는 세대라 하겠다. 개인적 발달의 관점에서는 신체적, 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여 본질적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며,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생활, 직업 생활에서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에 있어 절정기에 달하였으나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음을 인식하는 시기이다.[137]

---

[136]김명자, *중년기 연구*, 16~17.

다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중년이란 단어는 시편 102 편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와 예레미야 17 장의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다.” 와 이사야 38 장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년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등의 세 경우에 사용되어 있다.[138]

시편 102 편 24 절에 쓰여 진 중년은 가운데, 절반, 중간의 뜻을 가진 ‘헤치’ 라는 히브리어로 영어성경에는 ‘ in the midst of my days ’ 라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의 중년의 의미는 발달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의미와는 다르며, 생명이 붙어있는 기간을 말하기도 하고 괴로운 포로기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보기 전까지를 의미하기도 하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기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139]

예레미야 17 장 11 절에 쓰인 중년도 역시 ‘헤치’ 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 When his life is half gone ’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 중년의 의미는 안정된 때, 세상의 명예, 권세와 물질로 심히 든든하여 의지하게 될 바로 그 때,즉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세상적인 것으로 넉넉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때를 말하고 있다. 이사야 38 장 10 절의 중년은

---

[137] *Ibid*., 19.

[138] 조남영, *중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사역 방안*(논문: 총신대학교, 2003), 10.

[139] *Ibid*., 11.

‘테미’라는 히브리어로 이는 조용, 안정, 정적, 평온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영어로는 ‘ in the prime of my life ’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의 중년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칭하는 중년의 의미와 비슷하다. 아직 죽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돌연히 찾아온 죽음에 대해 원통해 하는 히스기야 왕의 심리상태가 이를 말해 준다.[140]

2) 중년기 위기의 정의

앞에서 중년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았기에 이제는 중년기 위기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자. 위기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위험한 시점’ 또는 ‘전환점’ 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어떤 일에 대한 대처 능력의 일시적인 상실 혹은 일상적인 상황의 전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이는 위기의 영어 표기인 ‘ crisis ’의 원어가 되는 그리스어인 ‘ krisis ’가 결정 또는 전환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위기란 인간이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평형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141]

이처럼 위기는 삶의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하며 혹은 우발적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위기상태는 안정 상태의 혼란 혹은 생의 전환점인 체계의 불균형 상태를 의미한다.[142]

---

[140] *Ibid.*, 12.

[141] H. Norman Wright, 전요섭, 황동현 역, *위기 상담학 : 위기와 스트레스 극복을 위하여*(서울: 쿰란 출판사, 1998), 10.

Stone 은 위기를 '외부적인 위험에 대한 내부적인 반응' 으로 정의하고 발전적 위기와 상황적 위기로 대별하고 있다.[143] 여기서 말하는 발전적 위기는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위기로서 예방과 교육이 가능한 위기이며, 상황적 위기는 예견하지 못하는 위기로서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기를 말하며 친지의 죽음, 병, 사업의 실패, 이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중년기에 맞이하는 위기는 중년기에 속하는 누구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발전적인 위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예방 가능한 발전적 위기인 중년기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상황적인 위기로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144]

Halpern 은 위기를 경험한 사람과 위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145]

> 위기를 경험한 사람은 위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고갈과 피로감, 무력감, 부적절감, 혼돈감, 신체적인 증상, 불안감, 작업관계에서 기능의 해체, 가족관계에서 기능의 해체, 사회관계에서 기능의 해체, 사회활동에서 기능의 해체현상 등을 더 뚜렷하게 느낀다.

Parad 는 위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146]

---

[142]체계란 일반적으로 성격, 가족, 집단, 지역 사회 또는 다른 실체들을 포함한다. 김기태, *위기 개입론 : 일상생활의 위기와 극복방법*(서울: 대왕사, 1993), 17.

[143]Howard W. Stone, 오성춘 역, Geofrey Peterson, 위기상담(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9), 17.

[144]김예식, *중년기 위기 부부상담*(논문: 장신대학교, 1991), 68.

[145]Karl A. Slaikeu, *Crisis intervention: a handbook for practice and research*(Boston: Allyn and Bacon, 1990), 17.

[146]H. J. Parad, *The Use of Time Limited Crisis Intervention in Community Mental Health*

> 위기란 '평형상태의 혼란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구체적이며 확인될 수 있는 스트레스적인 사건이고, 위기를 유발시키는 사건은 그것이 위기가 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스트레스로 지각된다.

Caplan 은 위기를 '균형상태의 혼란'이라고 주장하였다.[147]

> 인간은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렇게 유지 노력되는 균형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위협받게 되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인간은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균형상태의 혼란인 위기에 빠지게 된다.

Miller 와 Iscoe 는 위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만성이 아니라 급성이며, 둘째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적은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셋째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무능과 무력으로 특징지어 지며, 넷째는 유기체 전반에 다양한 형태로 체험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다섯째는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흔히 말하는 중년기 위기에 대하여 Ciernia 는 인성이나 가치관 행동변화를 초래 하는 혼돈감으로, Klauger 는 인생주기의 다단계에 극복해야 할 과업에 수반되는 도전감으로, Craig 는 개인이 적응해 나갈 수 없는 일로 인해 발생하는 무력감에서 기인하는 실망감으로, Farrel 과 Rosenberg 는 고립감, 절망감, 초조감, 긴장감이 신체적 증세로 나타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148]

Programming(Social Service Review, 40 no. 9, 1966), 275-282.

[147]G. Caplan, *Principle of Preventive Psychiatry*(New York: Basic Books, 1964), 39~40.

[148]김명자, *중년기 연구,* 92.

‘중년기 위기’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Jacgues는 중년 위기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49]

>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중년기 위기감의 주된 주제이다. 즉, 지난 수세기 동안의 저명한 예술가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30대 후반에서 40대초에 예술가의 작품에 극적인 변화가 발생함을 발견하고, 이것은 자신의 사망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

중년기의 위기는 일반적으로 35세에서 45세 사이에 발생하며, 이때 외부적 목표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에너지가 자아의 성찰과 내부문제로 전환된다. 그리고 중년의 위기라는 것은 인간의 발달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인생의 단계이다. 물론 개인과 환경에 따라 그 강약의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그 심리적 위기 및 전환의 시기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중년기 위기는 신체적, 심리적 여건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상황과 가정적인 여건 등에 의해서 위협과 같은 심리적 격랑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150]

3) 중년기의 변화와 문제

중년기는 노화의 증후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뿐 아니라 내부의 활력도 떨어지게 된다. 중년기의 변화는 아동기처럼 빠르고 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신체적인 변화 뿐 아니라 인지적, 생리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149] *Ibid*., 93.

[150] L. W. Poon, *Aging in the 1980s: psychological issue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80), 464.

드러나게 된다. 이런 변화와 함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위치의 변화가 중년의 심리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1) 신체적 변화

중년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신체의 변화를 통해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한다. 피부는 탄력성이 떨어지고 눈 가장자리와 이마에 주름이 생기며 눈 바로 아래에 볼록한 주머니 같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중년기에는 얼굴 부위가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 외에도 입, 이마, 목 부위에 주름이 생기며 턱이 처지고 눈 아래가 거무스름해 지고 갈색의 노화 반점이 보이기 시작한다.[151] 얼굴 모습이 뼈, 근육, 연결 조직의 변화로 달라지고 치아도 차츰 마모 되어간다.[152] 피부의 피지선과 땀샘이 역시 변화를 나타낸다. 피지선은 기능이 거의 퇴화하지 않지만 피지 분비는 감소하여 점차 수분이 감소해져 피부가 건조해 지고 때로는 갈라진다. 수분의 감소는 폐경기 여성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153]

머리카락은 빨리 자라지 않고 가늘어 지며 40 대에 머리선이 뒤로 후퇴한다. 남자에게는 눈썹, 코 밑 귀 부분에 뻣뻣한 털이 생기고 여성의 윗입술과 턱에도 털이 보이기 시작한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생겨난다. 신체의 근육 조직이 감소하고 지방

---

[151]정옥분, *발달 심리학*(서울: 학지사, 2004), 569~571.

[152]조복희 외, *인간 발달*(서울: 교문사, 1994), 443.

[153]정옥분, *발달 심리학*, 571.

조직이 증가하면서 살이 찌고 특히 배 부분이 불룩해진다. 중년의 사람들을 대게 많이 먹는데 비해 운동을 적게 한다. 이것은 심장을 힘들게 하도록 한다. 음식 가운데는 콜레스테롤이 함유돼 있어 차츰 혈관에 축적되고 원만한 혈액순환을 방해함으로써 심장 운동을 더 힘들게 한다.[154]

눈에 보이는 외적 변화 뿐 아니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내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내적 변화는 심장 혈관계통, 신경계계통, 호흡기 계통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많은 중년들이 심장 혈관 기능의 감소로 혈압이 증가하고 이시기에 동맥 경화가 시작된다. 중년기에는 뇌의 척수와 신경세포가 감소하는데 이것은 뇌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뇌의 무게가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신경계의 장애는 정신착란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 중년기의 호흡 능력에도 감소가 온다. 폐의 탄력성이 서서히 감소하고 흉곽도 작아지기 시작하며 가슴을 움직이는 근육도 약해진다.[155]

중년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진행의 속도 역시 다르다.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을 하는 중년들은 건강 유지가 수월하고 노화의 진전이 느리다. 그러므로 중년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따라 내적, 외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년기에는 감각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 가장 눈에

---

[154]조복희 외, *인간 발달*, 443~444.

[155]정옥분, *발달 심리학*, 572~573.

띄는 변화는 시각의 변화이다. 나이가 들어 눈의 수정체가 탄력을 잃게 되면 초점이 잘 모아지지 않아 노안이 되어 가까운 물체를 잘 볼 수 없게 된다. 또 동공이 작아지므로 더 밝은 조명이 필요하며 어둠과 빛에 적응 하는 시간이 길어져 야간 운전이 불편해진다. 깊이지각, 거리지각, 3 차원에 대한 지각이 감소되며, 수정체의 투명도가 떨어지고 망막의 민감도가 떨어지며 시신경을 구성 하는 섬유 조직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중년기에는 청각이 점진적으로 감퇴하는데 낮은 진동수의 소리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는 반면 높은 진동수의 소리에 대해 그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력 감퇴는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미각은 50 세 정도에서 감퇴하기 시작하며 맛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촉각 또한 연령과 함께 쇠퇴한다. 후각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며 제일 나중에 쇠퇴한다.[156]

이와 같이 중년에는 신체의 눈에 띄는 외적 변화와 함께 서서히 드러나는 내적인 변화가 어느날부터 지각되기 시작한다. 지각의 속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나 누구나 필연의 과정이 된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이 된다. 외모의 변화로 인해 자신감이 상실되어 대인 기피증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신체적 변화는 이전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2) 생리적 변화

[156] *Ibid.*, 754~755.

중년기의 주요한 변화 중 하나인 생식능력의 감퇴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은 중년기 어느 때에 끝나게 된다. 남성은 계속해서 아이를 갖게 할 수 있지만 수정 능력의 감소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경우에 따라 정력 감퇴를 느끼기 시작한다. 여성의 신체가 폐경을 가져오는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겪는 2 년에서 5 년까지의 기간을 '갱년기' 라고 한다. 여성은 태어날 때 고정된 수 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월경주기 30~40 년이 지나면 난자가 거의 다 배출된다. 폐경 이후에 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호르몬 감소는 생식기와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유방은 덜 단단해지고 자궁의 크기는 감소하고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며 분비물이 적어져서 성교시 통증을 수반한다. 폐경의 평균연령은 50 세 정도인데 40~60 세 사이에 일어나는 폐경은 정상이다.[157] 폐경기는 때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증상,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골반통, 유방통증, 그리고 호흡 장애나 헐떡거림 같은 신체적 증상을 동반한다. 여성들의 1/3 정도가 폐경기 증상을 가진다.[158]

중년기의 남성들은 여전히 생식 능력은 유지하지만 40~50 세 사이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현저히 감소한다. 그것은 정액과 정자의 감소, 절정감의 강도약화, 정력의 상실을 낳는다.[159] 중년기 남성은 또한 전립선이 비대해지기 쉬운데

---

[157]*Ibid*., 576.

[158]장휘숙, *전 생애 발달 심리학 인간발달*(서울: 박영사, 2000), 320.

[159]조복희 외, *인간 발달*, 445~447.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보기가 힘들고 때로는 전립선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남성의 생식체계와 그 밖의 신체 체계를 포함하는 생리적, 정서적,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남성의 갱년기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갱년기보다 10 년 정도 늦게 시작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보다 다양하다. 약 5%의 중년기 남성들이 우울증, 피로, 성적무력감, 발기불능, 그리고 정의하기 힘든 신체적 이상을 호소한다.
여성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남성들도 번열증(몸이 달아오르는 열 반응)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다.[160]

중년은 또한 체내의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분비선의 기능이 둔화된다. 여성과 남성의 갱년기 증세는 중년기의 주요한 변화이다.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는 중년의 변화를 확실하게 일깨워준다.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는 중년의 위기를 실감하게 하는 현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위기감은 신체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를 야기한다. 생리적 변화에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중년들은 과거에 형성해 온 커뮤니케이션에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3) 인지적 변화

종래에 지능은 20 대 중반에서 절정을 이루다가 30 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근래에는 지적 능력의 감퇴를 필연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러한 변화의 근거는 지능 연구의 접근 방식의

---

[160]정옥분, *발달 심리학*, 582.

변화와 지능 유형의 구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년기의 지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161]

> 첫째, 중년기 지능의 일률적인 감퇴는 없다. 지능의 감퇴 여부는 교육, 경험, 사회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변화가 크며 과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
>
> 둘째, 중년기 유동성 지능(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지능)은 감퇴한다. 유동성 지능은 정보 처리 속도를 떨어뜨리며 따라서 반응 시간은 증가시킨다. 이러한 감퇴는 궁극적으로 신경원의 정보 전달기제의 쇠퇴에 기인한다.
>
> 셋째, 중년기의 결정성 지능(후천적 경험, 학습, 문화적 영향에 의해 습득되는 지능)의 감퇴 여부는 교육 수준, 직업,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년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의 감퇴를 호소한다. 실제로 50 세 이후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간은 20~50 세 사이에 필요한 시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한다. 이는 중년기의 기억 능력의 감퇴가 정보처리 시간이 길어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능 검사나 일반적인 검사에서 중년기의 단기기억의 감소의 폭은 그리 크지 않아 일생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장기 기억은 감각 기억이나 단기기억 보다 연령 차이가 심하다. 이러한 기억력의 감퇴는 중년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162]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년인들이 문제 파악과 해결에 있어 더 느린 것은 불안, 신중함, 숙고와 같은 변인들과 폭 넓은 생활 경험으로 인한 많은 변인들을 인지하여 문제 해결 상황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163] 추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는

---

[161]송명자, *발달 심리학*(서울: 학지사, 1996), 396~399.

[162]정옥분, *발달 심리학*, 594~595.

[163]조복희 외, *인간발달*, 451.

감소하지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중년기에 절정에 달한다.[164] 또한 중년의 사람들은 같은 직종에 상당 기간 종사 하였으므로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어 획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구조화된 지식체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중년들은 융통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다. 전문성의 증가는 중년들의 인지 발달에 중요한 특징이다.[165]

(4) 심리적 변화

중년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환점이다. 시간의 개념이 재구성 되고 자아 및 환경에 대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내성과 자아평가가 두드러지는 시기이다.[166] 이러한 전환이 심리적인 변화를 주게 된다. 중년기 개인은 자신의 일생전체라는 긴 시간을 보는 관점에 변화가 온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시간에 관심을 두고 시간을 재구성 한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사망을 통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에 당혹감을 느끼며 자신의 사망에 대한 수용과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조정 하게 된다. 이러한 중년기 심리적 특성에 대하여 Neugarten 은 자아나 죽음에 대한 개념 등에 있어 전환 시기로, 내향성과 신중성이 증가 된다고 하였다.[167]

---

[164]정옥분, *발달 심리학*, 597.

[165]송명자, *발달 심리학*, 399~400.

[166]정정숙, *인간발달과 상담 II*(서울: 베다니, 2006), 208.

[167]김명자, *중년기 연구*, 56~59.

Jung 은 중년의 전환기에 ‘개별화’ 과정을 통하여 사람이 점점 더 독특하게 개성적이 되어 간다고 하였다. 그것은 고통스런 전환기와 되풀이 되는 좌절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168] 다시 말하면 중년기에 이르러 개인은 외부 세계를 향하여 쏟았던 에너지를 전환하여 내적 자아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껏 묻혀 있던 자아에 관심을 가지며 지나간 생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것이다.[169]

한편, Jung 은 중년기 이후 남녀 모두 자신의 반대되는 성적측면에 대해 표현하기 시작하여 남자들은 여성적인 측면을, 여성들은 남성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한다. 즉 남성은 공격적인 야망을 덜 갖고, 대인 관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반면, 여성은 보다 공격적이고 독립적이 된다.[170]

심리 사회적 위기 이론을 제안한 Erikson 은 중년기를 생산성 대 침체성으로 보았다. 생산성은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사용하여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업적을 이루려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년기의 침체는 자아 몰입으로 자아중심 또는 자아 탐닉으로 Erikson 은 이런 태도를 개인적 빈곤으로 부른다. 그러한 인생의 특징은 공허감이다.[171]

---

[168]Daniel J. Levinson et. al., 김애순 역,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68~69.

[169]김명자, *중년기 연구*, 21.

[170]조복희 외, *인간발달*, 456.

[171]*Ibid*., 456~457.

성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한 Levinson 은 인생 구조를 안정기(구조형성)와 전환기(구조변화)가 교차하는 진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시기들은 성인기의 심리, 사회적 발달 과정으로써 과정에 맞는 과제를 수반한다. Levinson 은 중년기 전환기에 처한 위기감은 에릭슨의 발달 위기의 자아 정체감 위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그 동안 소홀 했던 자아의 구조를 수정하도록 자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젊음과 노화, 파괴와 창조, 남성성과 여성성, 애착과 분리 등 자아 내부에 있는 양극성의 통합을 통하여 안정을 이루어 간다고 하였다.[172]

이와 같이 중년기는 인생 가운데 가장 다양한 심리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자아 중심으로 변화되는 시기이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과거와 현시점을 연결하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돌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 요동하는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5) 여성

이러한 위기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년의 위기 현상이 여성에게서 더 확연히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있고 폐경 등의 신체적인 노화가 남성에 비하여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년의 위기는 성장 속에서 맞이하여야 하는 단계적 위기이며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발전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중년기에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고, 개인과

[172]Daniel J. Levinson et. al., 김애순 역,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92~113.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기에는 흔히 중년의 전환기 또는 중년의 위기라 일컫는 심리적 공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년기 위기감은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목표가 자아 정체감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173]

그러나 위기를 느끼는 상황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Erikson, Jaques, Gould 등도 중년기 위기감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위기감을 극복하는 것이 자아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중년기 위기감은 극복하여야 할 대상이나, 이를 통하여 인생에서 외부로 나타나는 관심과 열정을 내부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경우 중년기 위기감은 오히려 자아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여 준다. 신앙적 관점에서 중년기 위기는 일종의 내면적인 성장을 위한 전기를 제공 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외부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소홀히 하였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반면에 과거의 불행 등을 신의 저주로서 혹은 신의 도움이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고 종교에서 떠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년의 위기는 외부적인 관심을 내부적인 관심으로 돌리고 영적인 삶과 감정적인 행복을 추구하는데 노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며 발전시켜주는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174]

[173]최재원, *중년기 여성 우울증 극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논문: 계명대학교, 2006), 10.

[174]Jerry White, & Mary White, 네비게이토 선교회 역, *중년기와 그리스도인*(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1), 11.

Fowler 는 신앙발달 이론을 통해 중년 여성의 인생의 변화들과 신앙발달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중년기의 나이에서 5 단계 신앙발달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175] 한편, Jung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년기 위기는 '영적 위기' 이다. 지금까지 추구해 오던 가치가 상실되면 텅 빈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 텅 빈 진공상태는 젊은 시절 추구해 오던 물질을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으며, 오직 정신적, 영적 의미로만 채워 질 수 있는 공간이다.[176]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Troll 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Cassandra, Tantalos, Procruste, Penelopeia 등의 특징과 관련시켜 설명한다. Cassandra 형은 중년기 여성이 자녀와 남편과 노부모에 대한 염려와 자녀의 독립 후에 자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염려 등이 많다는 것, Tantalos 형은 중년여성이 자아실현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게끔 되었으며 사회생활로부터 고립된 가정주부로서 보낸 시간들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됨과 동시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나 현실적 환경이 여의치 못함에서 심리적 위기감을 느낀다는 것이다.[177]

또 Procruste 형은 중년기 여성이 자신의 경직된 기준에 당면한 문제를 맞추려 하나 변화를 요하는 전환과정에서 이것에 따르는 현실적 긴장감, 초조감을

---

[175]James W. Fowler, 사미자 역, *신앙의 발달 단계*(서울: 한국장로교, 1987), 493~495.

[176]정태기, *위기 목회 상담*(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5), 200.

[177]김명자, *중년기 연구*, 94.

유발한다는 것, Penelopeia 형은 중년기의 새로운 생활추구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인간관계 활동의 구조를 재조함을 뜻하며, 오늘날의 풍토가 중년기 여성의 과거 경험에 중요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데서 기인하는 위기감이라는 것이다.[178]

중년기 변화가 위기감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위기감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고 자신에 대한 자각과 적응력을 제공하며 새로운 가능성이 자신의 한 부분으로 인식됨으로 해결된다고 하겠다. 중년기 여성들은 또한 우울증을 경험한다. 중년기 여성이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우울증 발생의 요소들이 있다. 정신과 환자와 일반적인 미국 인구에 대한 연구는 우울증이 남성보다 여성에 있어서 더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실이다.[179]

Weissman 과 Klerman 은 우울증이 여자에게 더 빈번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인위적인 결과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유전적, 내분비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결과냐에 관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특유의 학습된 정신적 무력감에 그 원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중년기를 맞이하여 생리적인 변화와 함께 사회활동의 제약,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 상실감 등의 우울증 발생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혹은 혼합적으로 작용하여 중년기의 우울감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

[178]*Ibid*., 95.

[179]Patricia Teuting, *Special Report on Depression Research*(Rockville, Md.: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Alcohol, Drug Abuse, and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82), 15.

있다. 중년 여성의 폐경기, 외로움과 사별, 성차별 등으로 인한 고민과 갈등과 우울증 유발 등이 중년 여성의 문제이다.[180] 중년 여성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심한 자괴감에 빠져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6) 남성

중년기가 되면 뚜렷한 이유가 없이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리고 이 텅빈 구멍에서 회오리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이 텅빈 구멍을 실존적 진공상태(existential vacuum)라 부른다. 이 텅빈 진공상태는 젊은 시절 추구해 오던 물질을 가지고서는 채워지지 않는다. 융에 따르면 중년기의 위기는 영적 위기이다. 따라서 이 공간은 중년기에 영적인 위기를 깨닫고 오직 정신적, 영적 의미(가치)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년층은 교회 선교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중년들이 영적 양식을 갈구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자신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타락으로 빠져들거나 영적으로 허기진 채 늙어간다.[181]

중년기가 되면 자신이 지나온 날을 한 번 뒤돌아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다. 구체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한 죄책감은 고백과 보상과 용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만, 중년이 되기까지

[180]최재원, *중년기 여성 우울증 극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 37~38.

[181]정태기, *위기와 상담*(서울: 크리스챤 치유목회연구원, 2000), 207~208.

노력을 해왔는데도 자신의 꿈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느껴지는 막연한 죄책감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자식들이 부모의 뜻대로 되어주지 않을 때 중년은 그것을 자신의 실패로 생각하고 상처를 받는다.[182]

위에서 언급한 죄책감이 떠나지 않고 중년기를 괴롭힐 때 우울증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우울증은 주로 분노가 자기 안으로 향할 때 일어나는 증상이다. 또 자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때에도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은 전혀 쓸모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좌절을 경험한다. 이런 우울증은 신체적인 조건과도 관계가 있다.[183]

신체적인 질병이 장기화되고 삶에 스트레스(과도한 업무부담, 실망, 가족 관계상실, 죽음, 이혼 등)가 쌓일 때, 일의 실패와 예비자원(영, 신체, 감정)이 고갈될 때 우울증의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184] 우울증의 증세는 불규칙한 수면과 냉담, 무기력, 식욕상실, 성욕감퇴, 외모나 옷차림에 대한 무관심과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며, 정서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는 애정상실과 슬픔, 적의, 예민한 감수성, 불안, 공포, 근심, 울음, 절망 등이다. 한국 중년 남성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증상[185] 들이다.

또한, 중년기 남성들은 중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알코올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죄의식을 가중시키고

---

[182]*Ibid.,* 212.

[183]*Ibid.,* 212~213.

[184]Jerry White, & Mary White, 네비게이토 선교회 역, *중년기와 그리스도인,* 115~117.

[185]1.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분이 가라앉아 만사가 귀찮게 느껴진 적이 있는가? 2.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일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해 괴로워해 본 적이 있는가? 3. 나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서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서 절망해 본 적이 있는가? 4. 사소한 일에 짜증을 부리거나 사소한 일에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5. 아내도 자식도 다 귀찮게 생각되고 심하면

절망에 빠지게 하여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진짜 해결책에서 멀어지게 한다. 알코올 중독자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계속하고 기억 상실과 직업, 기능의 장애, 떨림, 자기혐오, 공격적,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으며, 술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한 자이다. 알코올 중독은 당사자만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위에 큰 손상을 끼친다. 특히 그들의 자녀들 중에는 약 20~30%가 부모에 의해 입은 감정적 손상 때문에 어른이 되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목회적 도움과 예방이 중요하다. [186]

그 다음으로 40 대 후반과 50 대 초반에 주로 일어나는 중년기의 홍역과도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외도의 문제이다. 중년의 외도가 가장 흔히 나타나는 이유는, 중년기에는 감정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자아상도 변화하기 때문에 성적 유혹의 영역에서 더욱 취약하게 되기 때문이다.[187] 대부분 남성들은 성능력을 젊음과 연관시키며, 그들의 젊음이 시들어 감에 따라 아울러 성능력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중년기의 남성은 자신이 아직 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를 새로이 느끼게 된다. 어떤 남성들은 다른 여성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 입은 자아를 회복하려고 한다.[188]

남처럼 느껴본 적이 있는가? 6.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느껴지고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가? 7. 당장 모든 것 다 뿌리치고 어디로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8. 아내 외에 어떤 여인을 꼭 만나야 할 것 같은 생각으로 괴로워해 본 적이 있는가? 9. 이 세상에서 오직 나 혼자 뿐인 것 같은 외로움에 시달려본 적이 있는가? 10. 이유 없이 잠이 오지 않아 괴로워해 본 적이 있는가? 정태기, *중년 남성의 우울증을 진단한다*(간행물: 목회와 신학 2000. 2 월호), 122.

[186]Jim Conway , *Men in Mid life Crisis*, 권명달 역,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라*(서울: 보이스사, 1989), 96~ 97.

[187]정태기, *위기와 상담*, 202~203.

[188]Jerry White, & Mary White, 네비게이토 선교회 역, *중년기와 그리스도인,* 81~82.

마지막으로, 자살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에서 부모는 빚내서 집 장만하고, 자녀 교육에 등골이 휘다, 병든 노년을 쓸쓸히 마감한다. 또한 자녀들은 경쟁에 내몰려, 사는 재미도 모른 채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이는 제한적이지만, 통계 수치로도 말할 수 있다. 한국은 2008 년 한 해 동안 2256 시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64 시간) 일했고, 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률 1 위인 국가다.[189] 사실 한국은 90 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자살률이 그리 높은 나라는 아니었다. 90 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자살률이 올라가더니 IMF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서 아버지들의 자살률이 올랐다가 그 이후 다시 가라앉더니 2000 년 이후에 다시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2004 년 이후부터는 OECD 가입국에서 자살률 1 위의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 중년 남성들의 자살의 원인은 IMF 위기의 파장으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0]

자살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제외한 다른 어느 전문가보다도 목회자를 찾는 경향이 있다. 자살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행위이거나 계획되지 않은 행위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을 실행하기 전에 도움을 청하는 아우성을 보낸다. 인생이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는 감정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자신을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잠은 들지만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들과 또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 갇혀 있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종종 위기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18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817133439*,(2012. 12. 4).

[190] *http://ctoday.tistory.com/152*,(2012, 12, 4).

심각한 우울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자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 심리적 혼란, 고질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년남성들도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그때 자살의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191] 중년기 남성의 겪는 커뮤니케이션 단절 현상은 내적 갈등과 변화에 의해서 뿐 아니라 외적 요소 즉, 경제적 어려움, 알코올 중독, 발기부전 등 외적인 요소에 의한 좌절감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갈등과 단절의 과정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3. 노년 세대 이해

1) 노인의 정의

노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노인이란 단순히 나이만을 가지고 구별할 수도 없으며 또한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전통과 습관에 따라 노화과정의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생리적, 심리적 뿐만 아니라 사회나 경제적 모든 면에서 그 능력의 쇠퇴현상과 기능이 감소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결론짓고 있다. 1951 년 제 2 회 국제 노인 학회에서 발표한 노인의 정의는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정신적, 환경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 되는 복합 형태의 과정이다.' 라고 했다.[192]

B. Tibbitte 에 의하면 " 노인을 생리적 육체적으로 변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으로 개성의 기능이 감퇴 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

[191] Howard Clinebell, 박근원 역,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목회 상담 신론*(서울: 예장 총회 출판국, 1987), 356- 357.

[192] 정태기, *위기목회 상담*, 217.

관계가 과거에 속해 있는 사람 ” 등으로 정의 하고 있다.[193] Breen 은 노인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194]

> 첫째, 생리적 육체적 퇴화기에 있는 사람
> 둘째, 심리적으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 셋째, 사회적으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이다

국제노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의 노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95]

> 첫째, 노인이란 환경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 결손이 있는 사람
> 둘째, 자아 통합 능력이 감퇴 되어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 셋째,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의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 넷째, 생물체의 적응력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가는 사람
> 다섯째, 조직 및 기능 성장의 소모로 적응 감퇴 현상이 있는 사람

세계적인 일반적 시각은 65 세 이상 노인 인구가 7.0%를 상회하면 이를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발표 했다. 현재 대한 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60 세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생활 보호법 제조에 의하여 65 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생활보호 대상 노인으로 지정하고 있다.[196]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등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두가 65 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특수한 경우 비생산적인 연령을 55 세로 낮게 잡고 있는 경향이 있다. 즉 은행이나 일반

---

[193]임춘식, *현대 사회와 노인 문제*(서울: 유풍 출판사, 1992), 41.

[194]Leonard Z. Breen,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Chicago :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0), 147-148.

[195]임춘식, *현대 사회와 노인 문제*, 42~43.

[196]이정효, *노인 기독교 교육에 관한 기초적 연구*(부천: 교수 논총 제 1 집, 서울 신학 대학교 출판사, 2000), 361.

기업체에서는 55 세를 퇴직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1970 년을 전 후 해서는 공무원으로 50 세 이상은 비활동적인 연령 곧 노령 이라고 취급한 사례도 있다.

성경에서는 70 세를 표준하고 있으며[197] 교회는 70 세에 모든 직분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노화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노화란 하나의 과정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요인이 내포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기능이 감퇴 되어가고 있는 시기에 달한 사람으로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2) 노인의 특성

노인의 시기에 생물학적인 변화는 일반적으로 노화로 표현되며, 이 노화는 곧 신체적, 생리적 변화와 쇠퇴이다. 또한 노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인 변화나 특성들은 노화 과정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노인들의 노화 현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뿐 아니라 신체 내부와 심리적인 부분에까지 그 기능과 역할이 쇠퇴 되어가는 노인의 특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은 노년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견해로 미루어 볼 때 그 주된 것은 우선 신체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특성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과 더불어 영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신체적 특성

노화의 과정에서 외모, 활력, 유연성, 민첩성 또는 성적 기능의 쇠퇴현상 등이 신체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노화에 의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외부로 부터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생리 기능이나 신진 대사의 저하로 신체의 모든 기능이 약화 되는 것을 볼

---

[197]시편 90 : 10.

수 있다. 그렇다고 노화가 반드시 아프거나 쇠약하거나 성생활이 없거나 생산이 아닌 소비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생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노인을 무조건 허약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경제나 의학이 발달한 지금에는 활동적이고 장수하면서 임상적인 연령에 따른 노화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노화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신체조직과 기능의 노화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 조절 기능의 노화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나타나지만 성년이 된 후 15～25 년 사이에 급격히 나타난다.[198] 노인의 신체적인 특성은 모든 감각에 변화가 오며 퇴행성 변화에 따른 각종 질병들이 발생된다. 이러한 질병은 정상적인 노화 현상에 의한 생리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며, 반복적인 어떤 손상이 동반 될 때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질병으로 신경통, 골관절염, 동맥경화, 척추협착, 호흡기장애, 위장장애, 류마티스성, 대상포진 , 치매 등이 일어나며 또한 생리적 노성 증후에 의한 사지의 부자유, 감각 기관의 둔화, 치아탈락, 성욕감퇴 등과 백발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심신의 전체적 특성에 대하여 성경 곳곳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 한지라”(왕상 1:1). 유다왕 아사가 늙어서 발에 병이 났고(왕상 5:23), 엘리 (삼상 3:2)나, 이삭(창 7:1)은 늙어서 시력의 장애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가오는 늙음과 죽음 앞에서 인생무상을 노래했다. 청년의 때가 잠시 잠깐이요 곧 아무 낙이 없는 늙은 때가 들이 닥친다는 것이다. 전도서 기자는 노년기에 신체가 점점 쇠약해 가는 과정을

[198]정정숙, *주일 학교 노년부 교육 연구II*(간행물: 신학지남 1979 년 여름호), 98.

상징적으로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손과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며, 이가 빠지며, 시력이 약해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질 것이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 할 것이며, 잠을 쉽게 자지 못하며, 일찍 일어날 것이며, 머리가 희게 될 것이며, 늙은 메뚜기처럼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경직 되어져, 결국은 무덤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199]

이처럼 노년기의 신체적 특징은 전체적인 기능의 저하와 감퇴로 서술 될 수 있는데 보다 중요한 문제는 노인 자신이 노년기의 신체적인 쇠퇴를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응하는 삶을 영위 하는 것이 노년을 맞이하는 삶의 중요한 과제이다.[200]

(2) 심리적 특성

노인의 심리에 대하여는 일찍이 그리스의 철인 Aristoteles 가 그의 수사학에서 노인의 성격을 기술했으며, Cicero 도 "노경에 관하여 (De Senectute)" 란 저서에서 그의 노년관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심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이 1920 년 이후 라고 하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인구의 노령화를 맞이하는 현 사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상은 지난날의 대부분의 노인 전문가들은 노인 문제의 해결을 경제적인 면과, 의료적인 면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현대 노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적인 서비스도 중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 심리적인 문제가

[199]전도서 12: 1, 5.

[200]사미자, *노년의 심리, 한국교회와 노인목회*(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5), 71~72.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인 것이다. 본래 노인은 노인 특유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때문에 그 특유의 성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201]

노인들은 그들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그 특유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 의심과 불신 2. 건강이나 경제에서의 불안 3. 불평, 투정, 질투심 4. 고독이나 장래에 대한 불안 5. 과거의 생활이나 생각에 대한 집착 6. 쾌락의 흥미 증대 7. 허영심이나 아집이 강함 8. 단순 하면서 신경질적이다. 이렇게 노인의 심리적 변화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생물학적 변화와 비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것으로 체력 감각기능 신경 세포 등의 활동 저하로 인한 생리적인 조건 역할상실 인간관계 등의 사회적 요인이 깔려 있다.[202]

노년기는 성격 변화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우울증 경향의 증가이다. 이 우울증의 원인은 노령에 따른 스트레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즉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 사정의 악화, 사회와 가족들로 부터의 고립, 일상 생활에 대한 자기 통제 불가능, 그리고 지나는 세월에 대한 회한 등으로 전반적인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203] 이런 의미에서 성격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변화의 과정은 개인이 가진 소질적인 성향과 개인이 처한 일상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반응하는 상황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전체적 행동이 결정된다.

(3) 사회적 특성

---

[201]김성순, *노인 복지론*(서울: 이우 출판사, 1972), 91~92.

[202]D. B. Bromley, 김정휘 역, *노인 심리학*(서울: 도서출판 성원사, 1992), 90~91.

[203]윤진, *성인 노인 심리학*(서울: 중앙 적성 출판사, 1995), 182.

J. Donne 은 “어떤 인간도 고립 되어서는 생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 내의 구조 속에서 서로 협동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존재이다. 특히 가족 이라는 집단은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단위로서, 한 인간이 태어나 자신의 삶을 시작하고 대부분의 인생 경험을 겪게 되는 장(setting)이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가족 내에서 인생 전반의 기대, 실망, 갈등, 기쁨 등을 나누게 된다.[204] 무엇으로 보나 인간은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철저한 사회적 존재임이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인간은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가정이 사회의 최소 단위 집단임을 인식할 때 그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가정의 의무와 책임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 된 세상은 이러한 사회적 기능과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여기서부터 노인은 노인의 특유의 사회성을 고착 시켜가게 된다. 노인의 사회적인 특성은 우선 사회적 고립과 고독으로 나타난다.

지금껏 사회 제도와 규범, 그리고 인간의 관계와 역할 속에서 살아온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노인’이라는 멍에를 덮어 쓰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소망 없는 암울한 생을 비참하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동안 가정이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생의 의미를 창조하고, 삶의 원동력을 공급 받아서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큰 이바지를 감당해왔던 고귀한 생명이다. 그러나 무던히 앞만 보고 헌신과 희생으로 달려왔던 그들에게 가정과 사회는 냉대와 멸시로 가정과 사회의 기능이 없는 무덤 없는 무덤 속으로 몰아내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가정과 사회의 모습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성 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

[204]김종옥, *현대 사회와 가정의 인간화를 위한 과제*(간행물: 기독교 사상, 1994 년 5 월호), 11.

가족, 친 구, 이웃, 직장동료들 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 수행과 존재 의미를 확인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노년기에 이르면 직장 생활에서 가졌던 사회 활동 기회가 줄어들고,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지위나 역할도 불확실하게 되어 사회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아 존중감이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은 노령기의 삶에 대한 의욕과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소외와 무력감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특성은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 상실감이나 정체 위기감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이나 활동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적한 바대로 자신들의 욕망을 행동화 하는데 따르는 고립감과 고독감이 심화되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느 집단 가정에서 자신의 유용성을 인정 못 받아 소속감이 없어지게 되면 더 깊어지고, 이 위에 배우자의 사별이나 무용성에의 자각에까지 이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퇴적물로 전락되고 만다.[205]

3) 현대사회와 노인 문제

(1) 노인과 가정문제

가족은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30 여년 동안 진행된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는 가족의 가치관,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 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회와 가족의 급격한 변화는 올바른‘인간화’과정에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전통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가족

[205]문영탁, *교회와 노인*(간행물: 풀빛 목회, 1982, 12 월호), 34.

간의 긴장과 갈등을 야기시켰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한층 심화시켰다.[206] 가정은 사회의 기본 집단이다. 가정은 생활의 근거지 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고도로 가족 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노인에게 있어 가족은 노인의 모든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및 정신적 지지 체계의 근원이다.[207] 그러므로 인간이 노년에 접어들어 가족 구성원들과의 혈육관계에서 소외를 느낀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인들은 본능적으로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노부모를 모실 것을 희망하는 듯하면서도 이면으로는 부양을 짐으로 생각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노인 스스로가 별거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적으로 재가 노인 가구 중에서 노인 단독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3.6%를 차지하고 있다.[208]

노인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 의해 부양 받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미 가부장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며 가사 결정권자의 위치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 가족제도에 의한 노인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유교적 윤리관이나 혈연 공동체적인 생활 양식에 의하여 노인은 가족생활이나 지역 사회에서 가부장적 지위를 차지하고

---

[206]김종옥, *현대 사회와 가정의 인간화를 위한 과제*(간행물: 기독교 사상, 대한 기독교 서회, 1994 년 5 월호), 22.

[207]김태현, *한국의 노인 문제와 가정의 역할*(간행물: 이성과 신앙, 수원 가톨릭 대학 출판사 제 3 호, 1997), 41.

[208]*Ibid.*, 42.

있어서 노후 생활에 대한 보호 기능은 그 테두리 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지만 현대 사회에 이르러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방식이 변화면서 종래 가족 제도와 혈연적 근린연대에 의한 노인 부양 기능도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 내에 노소간의 가치관의 차이 고부간의 심리적 갈등 등은, 노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정서적으로 고독과 소외를 느끼게 하는 새로운 문제점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관습은 노부모 부양과 제사에 책임을 다하는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해 주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서구식 법 이론에 근거를 둔 민법으로 재산의 균등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감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별거 지향적인 서구 유형의 가족 구성 경향으로 보편화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209] 노인들은 오랜 동안 가족을 통해 부양을 받아 왔기 때문에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는 바이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 와서 노인을 부양 할 수 있는 가족들의 상황과 노인 자신들의 의식이 변하여 노인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 이라고 말하고 있다.[210]

가정은 사회의 기초요 국가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 가정은 작은 집단의 가족 공동체로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꿈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

[209]*Ibid.*, 43.

[210]*Ibid.*, 69.

안타까운 현실은 삶의 근원지가 되는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데 있다. 가족 공동체는 인격의 공동체요 관계성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인격은 홀로 있는 낱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작용 하는 개념이고, 관계 중에서도 사랑스런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개념이다. 따라서 관계적 존재인 인간이 인간답게 관계를 맺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적인 틀이고 구조이다. 다시 말한다면 사람다운 틀이라는 것이다. 가족에서의 관계성 상실은 모든 관계성의 상실이며, 결국 사람다운 틀이 손상 되는 것이다. 관계적 존재인 인간이 사람답게 관계를 맺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기본적인 요소로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가족의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211]

(2) 빈곤문제

오늘날 경제 성장의 결과 절대적 빈곤이 많이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빈곤 문제는 한국에서 과거 보다는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빈곤의 전통적인 개념은 개인과 가족의 1 차적 욕구인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였으나, 오늘날 빈곤의 개념은 대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하는데, 단순히 경제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교육, 건강, 불평등의 사회적 조건 또는 자원의 결핍 상태에 의해 규정되는 상대적 빈곤이 점차 커지고 있다.[212]

현재 한국의 노인들은 절대 빈곤, 상대적 빈곤이라는 문제 때문에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거나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동안 경제 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

---

[211]장성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논문: 천안대학교 기독신학대학원, 2002), 20.

[212]남윤근, *노인 빈곤의 개념과 실태*(간행물: 노년신문, 1995 년 9 월 10 일자), 4.

온 노인이 수입원을 대부분 자녀에게 의존 하였지만 사회 구조가 영농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비율의 노인들은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노후를 보장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동안 전통적인 가족부양에 의존 해왔던 노인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여 부양 의식의 쇠퇴로 인한 가족적 부양의 붕괴에 대처할 수 없어 빈곤의 문제가 더욱 심각 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인의 빈곤 형성은 개인적으로 노령화 자체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 노후 준비 미비 등이 있고, 정년퇴직, 재취업 단절, 노인의 지위약화, 사회 보장제도 미비 등의 사회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원인에 의해 노인의 빈곤 문제가 발생하는 노령화는 사회적으로 많은 불리한 상황을 만들며 이러한 사실들은 노령화가 빈곤의 원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213] 빈곤으로 인해 노인들은 커뮤니케이션의 활용의 폭이 좁아진다.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전달의 상호작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언어적 즉, 전인격적인 관계형성을 이루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였을 때, 빈곤의 문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의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3) 건강 문제

빈곤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건강이다.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문제와 더불어 병든 노인에 대한 가족의 보살핌에 대한 문제 등 복합적

---

[213]장성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 21.

성격을 갖게 된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노화의 일환으로 신체적 기관이 전반적으로 퇴화하게 되며 신경통, 관절염,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등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에는 정신적 질환으로 치매, 우울증, 파킨슨, 알콜 중독, 정신분열 등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은퇴로 인한 경제적 궁핍, 충분하지 못한 영양섭취, 점진적인 생리적 쇠약, 여러 가지 질병의 복합 증세가 노인의 건강을 악화 시키는 데에 있다. 문제는 노인들이 건강 악화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수입 감소에 의한 빈곤으로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인병의 특징은 만성적이며,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노인이 되면서 생기는 이러한 질병과 제한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노후 생활의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214] 질병으로 인한 제한성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에 차질을 가져온다. 육체의 건강은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양성한다.

(4) 고독과 소외의 문제

대다수의 노인들은 사회,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소외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세대 간 교육수준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 내 노인의 지위저하, 그리고 핵가족화로

---

[214]이광근, *한국의 고령화 사회를 위한 교회 복지 목회의 선교적 접근*(논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22.

인하여 노인은 가족들로부터 심리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인 유기 및 학대를 경험하기도 한다. 산업사회는 노동력과 생산성, 노련한 기술 고도의 지식 등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은 소외 되며,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현대의 도시화 사회 속에서 고속화, 고층화, 자동화의 진행은 젊은이들의 편리성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적응성이 낮은 노인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는 노인에게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회로 되고 있다.[215]

고독은 이러한 문제의 결과이다. 만일 노인이 한평생 일에 몰두 했다가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은퇴해야 했다면, 사회적으로부터 자신이 배척당하고 거절당했다고 느끼게 된다. 또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동안 익숙했던 역할을 벗어 놓게 되더라도 여전히 상실과 허탈감 속에서 고독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존재하며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소득과 건강 그리고 역할 상실이 저하되면서 주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노인은 고독해 질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독은 심화된다.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짐으로 인해 고령노인의 사회적 고독과 심리적 고독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216] 이렇게 노인들에게는 점점 커뮤니케이션을

---

[215]이창희, *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 봉사의 이론과 실제*(서울: 홍익사, 1993), 21.
[216]이광근, *한국의 고령화 사회를 위한 교회 복지 목회의 선교적 접근*, 23~24.

이룰 같은 세대들의 떠남, 질병 등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자가 줄어가는 문제를 겪게 된다.

(5) 여가 활용의 문제

의식적인 사고 작용을 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행위와 사고를 ‘활동’이라고 하고 이 활동을 ‘일’과 ‘여가’로 구분하여 의무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시간의 활동을 ‘여가’라고 말한다.[217] 어쩌면 노령기를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난 시기로 본다면 노인의 대부분의 시간과 활동은 여가 활동인 것이다. 노령기는 여가의 시기로서 극단적으로는 하루 24 시간 전부가 여가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218] 노년기에 여가의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령기 퇴직에 일정한 사회적 가정적 역할 속에서의 여유 있는 시간과, 그리고 일정한 역할이 없이 막연하게 보내는 시간을 말한다. 일반적인 노인의 여가는 후자로서 여기에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가지게 된다.[219]

그런데 오늘 우리사회는 노인들이 단순히 여가를 위한 여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창살 없는 무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양로원, 경로당, 거리공원에서 그리고 권위도 주권도 상실한 채 허울 좋은 명목상의 가정이라는 콘크리트 숲 속에서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여가의 시간을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바꾸면서 하루를 힘겹게 자포자기한 채 끌려가고 있다. 이것은

---

[217]전천혜, *노인과 여가 : 한국교회와 노인목회*(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5), 202.

[218]장인협, 최성재 공저, *노인 복지학*(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1994), 232.

[219]전천혜, *노인과 여가 :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209.

개인으로서 인생의 낭비이며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되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주어진 여가의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하도록 하여 노년의 생활을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도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에 기여할 경륜과 능력이 남아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교회에서도 이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여가를 이에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사회적 소외감이다. 노인 자원은 아직 활용 가능자원이며, 재생산을 위한 자원이 된다.

(6) 죽음에 관한 문제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경험이면서 동시에 단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특수한 경험이다. 그러기에 한 가지, 움직일 수 없는 노년의 보편적인 특징은 죽음이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이다.[220] 인생의 엄숙한 순간들 중에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221] 흔히 죽음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용기가 아니고 도피인 것이다.[222]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나이, 신체적 건강의 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종교적 배경, 심리적 성숙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223]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

[220]이부영, *노인의 심리*(간행물: 사목 51 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77), 7.

[221]강용원, *죽음에 관한 목회, 교회문제 연구 제 1 집*(천안: 고려신학대학교 교회문제 연구소, 1979), 98.

[222]*Ibid*., 110.

[223]Robert E. Neale, *The Art of Dying*(New York : Harper and Row Publish, 1973), 30.

불안정감과 무용성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메시지를 통해서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전달해야 하고 노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이루어 죽음에 대한 참 의미를 제공하고, 죽음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같게 함으로 삶을 더 진지하고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Ⅳ.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설교 연구

1. 설교란 무엇인가?

1) 설교의 정의

예배의 중심요소는 설교라 할 수 있는데, 의식을 중요시 하는 천주교에서는 설교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개신교에서는 설교 없는 예배란 있을 수 없다. Unger 는 “설교자의 기본적 사명은 신 · 구약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 하였고, [224] Forsyth 는 설교와 교회와의 관계를 “교회는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는다.”라고 말했다. [225] 박희천에 의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여 양떼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끼치며 삶의 실천을 유발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였다.[226] 그리고 Vinet 의 정의에 의하면 설교는“공적인 예배에 포함되어,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설명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생활에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꾸며진 담화”라고 하였다.[227]

설교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설교하다’에 해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헬라어 동사‘케루세인’(κηρυοειν)으로서 신약의 마가복음 1:14 을 비롯하여 50 회 가량 쓰이고 있다. 이 말은 단적으로 한 사건을 선포하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법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사건을 말한다. ‘케루세인’은

---

[224]Morrill. F. Unger, *Principles of Expository Preaching*(Grand Rapids : Zondervanpub. House, 1970), 32.

[225]P. T. Forsyth, *Positive Preaching and the Modern Mind*(Grand Rapids : Wm. B. Eerdmans, 1966), 89.

[226]박희천, *나의 설교론*(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7), 29.

[227]Harold, E. Knott, 곽정운 역, *설교작성법*(서울: 태광 출판사, 1985), 13.

'케리그마' (κηρυγμα) 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왔다.[228] '설교' 라는 말의 또 다른 용어는 '유앙겔리제스타이'(εναγγελιζεσται)로서 이 용어의 뜻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인데 곧 예수를 십자가상에 내어주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외에도 설교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서, 마태복음 4:23 에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나누어 준다는 의미를 가진 '디다스케인'(διδασκειν) 이 쓰이고 있고, 설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한다는 뜻으로 '디아레케타이'(διαρεγεται), '라레인'(ραρειν)이 있으며, 권고하다, 훈계하다는 뜻인 '파라카레인'(παρακαρειν)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다.[229]

또한 일반 사전에 담겨 있는 설교의 정의를 살펴보면 설교는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켜 설복케 하는 사명의 선전이며,[230]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를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231] 이상과 같이 설교의 정의를 여러 각도에서 본 결과, 설교는 신 ·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설교자에 의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함으로써 복음에 의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설교의 원리

설교를 할 때에 설교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케리그마' 와 '디다케'(διδακη)이다. 이 두 가지는 설교의 정의를 내리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케리그마는

---

[228]김창규, *교회성장과 설교 방법론*(서울: 쿰란 출판사, 1992), 16.

[229]*Ibid.*, 17.

[230]김익달 편, *세계백과대사전*(서울: 학원사, 1974), 11 권, 207.

[231]이재순 편, *세계철학대사전*(서울: 교육출판공사, 1980), 548.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의미한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두 절로 완벽하게 설명했다.[232]

>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 데살로니가전서 1:9~10.

케리그마에 대해 Kittel 은 "어떤 사람이 왕의 명을 받아 대중 앞에서 선포함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말씀 증거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두었으며, 예수의 제자들은 물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케리그마는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하여 그의 메시지의 내용만큼이나 말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두 번째로, 디다케는 교훈을 의미하는 말로서, 신약의 약 95 회의 용례들 중 3 분의 2 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다.[233] 바울이 천명한 케리그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며, 이것이 그의 신학사상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설교는 케리그마 보다는 디다케적 요소, 즉 깨우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요소도 있어야 한다. 설교는 케리그마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구원을 선포할 뿐 아니라, 디다케적인 메시지로 그들을 자라게 하고 성숙시키며 완전케 한다.[234] 지금까지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서 원리적인 이론을 전개하였고, 이제 이를 근거로 하여서 성서적 설교가 무엇인가 그 원리를 연구하고자 한다.

---

[232]유부웅, *성서적 설교와 한국교회 강단*(서울: 문장 출판사, 1984), 21.

[233]H. C. Brown, 정장복 역, *설교 구성론*(서울: 양서각 출판사, 1984), 182.

[234]디모데후서 3: 16~17.

설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선포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선포해야 한다. 성서적 설교란 '오직 성서로만'의 설교를 말한다. 이는 설교의 원천은 오직 성서뿐이라고 확신하는 한 표명이다.[235]

이 원리는 당연하면서도 실제로는 성서적이 되지 못하였기에 거듭 강조 할 수밖에 없는 명제이다. 설교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역사를 이루신 성서의 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떠난 설교란 하나의 종교 에세이거나, 단순한 인간의 사고를 말하는 종교적 연설에 불과한 것이다.[236]

성서적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인데 이유는 성서 본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Baumann 은 성서적 설교가 가져야 할 몇 가지 조건 중에서 성서적 설교는 유신론적 설교일 것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일 것을 강조했다.[237] 성서적 설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성서 전체'의 설교라는 것이다. 신약만이 아닌 신 · 구약 전체를 같은 성서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며, 성서의 역사적 사실성과 실존적 의미를 같이 강조해야 함이며, 그리고 말씀의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을 같이 강조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 '성서 전체'의 설교는 복음의 두 차원, 즉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복음의 현재성과 미래성,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 교회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영적인 차원과 세상적인 차원을 모두

---

[235]이중표, *교회성장과 케리그마 설교*(서울: 쿰란 출판사, 1994), 65.

[236]정장복, *성서적 설교와 그 진전 과정에 대한 이해*(장신논단: 제 3 집, 1987), 154.

[237]J. D. Baumann, 정장복 역, *현대설교학 입문*(서울: 양서각, 1980), 126.

같이 강조하는 설교이다.[238] Lloyd M. Perry 는 성서와 설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239]

> "성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자신과 진리를 펴신 유일한 커뮤니케이션이며, 진리와 빛과 능력의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원천이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성서를 벗어나 설교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설 때, 그들 자신과 생활에 성서의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되고 적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James T. Cleland 는 설교자와 청중이 더욱 정확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3 단계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240]

> 첫째,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삶의 자리' 를 중심으로 한 고찰 혹은 석의를 통하여 그 당시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둘째로 그 말씀의 중심에 흐르는 기쁜 소식의 진리성을 해석, 또는 강해해 줌으로써 항존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하며, 셋째로는 발견된 절대 진리의 메시지를 오늘의 현장에 적용 시켜 선포된 진리가 현장에서 오늘 구체화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석의' 와 '주해' 그리고 '적용' 의 과정이 필요하다. 석의는 본문이 말하는 근본적인 의미와 배경을 포착하는 데에 있다. 이유는 그 말씀이 필연적으로 선포되어야 할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기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주해의 작업을 펼쳐야 한다. '주해' 는 본문이 지금 현재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는 설교자의 깊은 명상과 기도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추어야 한다. 주어진 본문으로부터 아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한 설교자는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없다.[241]

---

[238] 이중표, *교회성장과 케리그마 설교,* 69~72.

[239] Lloyd M. Perry, *A Mannual for Biblical Preaching*(Grand Rapids, Mich : Baker Book House, 1965), 7.

[240] David J. Randolph, *The Renewal of Preaching*(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69), 36.

[241] Dwight E. Stevenson, *In the Biblical Preacher' s Workshop*(New York : Abingdon Press, 1967), 67.

Baumann은 충실한 석의와 주의 깊은 주해를 하고서도 전혀 무가치한 적용을 한다는 것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서적 설교를 하려는 설교자는 철저한 본문 석의와 주해의 과정을 끝낸 다음 말씀의 현장화를 위한 적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강해 설교의 성패와 생명력은 적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더라도 본문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수고한 모든 단계가 불발탄 같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도 같다.[242]

그러면서 Baumann은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방법을 말한다.[243]

> 1. 메시지와 청중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예화를 통하여 그들의 생활과 말씀을 손쉽게 연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할 것.
> 2. 청중들이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제시하여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한 결단을 내리도록 도울 것.
> 3. 암시를 하거나 제안하는 형태의 적용을 설교 속에서 시도 할 것.
> 4. 개인이 복음과 만남으로써 발생한 감동적인 간증 등을 들어 결단의 산 예증들을 보일 것.

설교자와 청중이 더욱 정확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받기 위한 3가지 (석의, 주해, 적용)를 통해 설교자가 설교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마지막 단계로 설교자는 청중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 오기를 기대하는 설교의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Beecher는 설교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설교는 그 내는 소리에 취해서 쏘아진 중국제 폭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냥꾼의 총이다. 쏠 때마다 사냥의 목표물이 맞아 쓰러지리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244] 그러므로 설교자는 언제나 출발 전에 행선지를 확인하고 목표한 지점에 성공적으로

---

[242]J. D. Baumann, 정장복 역, *현대설교학 입문*, 138~139.

[243]*Ibid*., 249~251.

[244]H. C. Brown, 정장복 역, *설교 구성론*, 38~40.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결코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 할 수 없다. 다음은 Baumann 이 제시한 설교의 목적이다.[245]

> 1. 선포적 설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생애와 교훈, 그리고 수난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선포하는 전도 설교이다.
> 2. 교훈적 설교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법칙을 비롯해 교리의 강좌 등목적으로 한 설교이다.
> 3. 치유적 설교로서 현대라는 삶의 현장에서 얻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어려움을 위로해 주는 목양적 설교이다.
> 4. 사회와 개인을 향하여 회개를 부르짖는 설교로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 정의를 외치고 내적으로는 교회 자체가 의로운 삶을 지속하도록 하는 설교이다.

설교자는 언제나 자신이 외친 설교가 정직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또는 대언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집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지 스스로 냉철하게 평가해 보는 습관을 거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 설교의 역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시대의 시대적인 패턴으로 설교를 하게 된다. 이런 설교의 패턴은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혹은 급진적으로 발전적인 양태를 취하며 발전되었다. 어떤 학문이든지 역사적으로 정리할 수 없는 학문은 학문일 수가 없으므로 역사적인 접근 방법이 중요한데 설교 또한 마찬가지이다.

Garvie 는 “어떤 주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접근 방식은 역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다. 설교학도 과학인 한에 있어서 이전에 설교된 것을 역사적으로 배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였다.[246] 1900 년대 이전만 해도 설교사가 설교학자들에 의해 기록되지 않고 일반 작가들, 교회사가, 문학사가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나 1900 년대

---

[245]J. D. Baumann, 정장복 역, *현대설교학 입문*, 286~310.

[246]Alfred Emest Garvie, *The Christian Preacher*(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21), 22.

초에 Dargan 에 의해 설교사의 대작을 비로소 집필할 수 있었다.[2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는 자료가 너무 없어서 설교사 기록의 어려움도 있었다. 여기서는 성서 역사 속에 나타난 설교의 흐름과 이후 교회사를 거치며 중세 암흑시대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설교의 발전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성서 시대의 설교

(1) 구약의 설교

Bohren 은 성서는 신 · 구약성서를 다 포함하며, 구약성서는 설교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교과서라고 말했는데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성서는 낡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48] 교회가 유대교 회당의 정통적인 후계자임을 선언한다면, 구약성서는 다가올 그리스도의 중심이며,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의 관계에 서로 연관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철두철미한 유대인의 책인 구약성서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신약성서로 와서는 오셨고 또 장래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다.[249]

① 모세의 설교

[247]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1), 63.

[248]R. Bohren, 박근원 역, *설교학 원론*(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8), 154.

[249]Karl Barth, 박근원 역, *설교학 원강*(서울: 전망사, 1981), 87.

모세의 설교가 최초로 설교의 원형을 띤 예배에서의 선포라 할 수는 없지만 모세 때부터 설교가 백성들에게 선포된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다.[250] 모세가 행한 최초의 설교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해주고 그것을 해석해 주었다. 그에게서 강해 설교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신명기 1:5~11, 6:4~9). 이렇게 모세의 율법 낭독과 강해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이며, 이스라엘 백성과는 무슨 관계이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율법에 근거한 모세의 설교는 생의 전 순간과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한다(신명기 4:10, 6:4~9). 신명기 책이 요시야 왕 통치 18 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말씀에 의한 종교 개혁' 이 단행된 유명한 교훈적인 사건이었다.[251] 그러므로 신명기서는 구약 설교의 시작점이며, 그 이후의 모든 예언자들은 이 설교를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② 선지자들의 설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충실히 운반하는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 (Nabi)라고 부른다. 이 말은 특수한 하나님 경험을 통하여 "야훼가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자" 라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샘물처럼 솟아오른다'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지자는 직책상 대변인이나 해석자 정도가 아니라, 가슴속에

[250]정규남, *구약 설교의 활용, 성서와 현대 교회*(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36.

[251]유부웅, *신명기 연구 : 김정준 회갑기념 논문집*(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4), 219.

소명과 사명으로 가득차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252]

선지자의 설교의 내용은 심판의 설교인 동시에 구원의 설교였다. 그들의 설교는 솔직 대담했고, 죄악의 문제에 관한 한 상하 구별 없이 무차별하게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으로 소망을 설교 하였다.[253] 초기 선지자들의 활동은 주로 백성들의 배신과 타락, 국가의 위기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와 동시에 회개를 권하여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는 선포를 함으로 인해 이후 이후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개척적인 색채가 짙어졌다. 그들은 백성들의 불신과 불의를 책망하고 또 정의를 바르게 가르쳤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의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 특히 포로시대에는 포로의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간주하고 장차 용서를 받아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음을 말하며 회개를 촉구하였다.[254]

③ 포로 후기 시대의 설교

포로 후기 시대의 설교형태는 느헤미야 8 장에서 잘 살펴 볼 수 있다. 느헤미야 8 장 5~12 절의 말씀에서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읽고 해석하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할 때에 백성들이 듣고 울면서 뉘우치게 되었고 기쁨으로 성일을

---

[252]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66.

[253]*Ibid*., 68.

[254]김창규, *교회성장과 설교 방법론*, 53.

지키게 되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철저한 강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율법책을 낭독하였고(느 8:8 상반절), 뜻을 해석하여(8:8 중),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할 때(8:8 하),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함(8:9), 그리고 크게 즐거워 함—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 때(8:12), 말씀대로 행함(9:1~3), 여호와를 찬양함(9:5). 에스라에 의해 행해진 이 설교는 회당설교의 모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강해설교의 진수를 보인 셈이었다. 그 후 이 같은 방법은 예수님께서도 시도하셨고, 초대 교회를 거쳐 오늘날 강해 설교의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회당에는 성막도, 제단도 없고 낮은 강단과 책상이 있을 뿐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소박한 장소였지만 그곳에는 말씀이 있었고 설교가 존재했다. 성전이 제사 중심이라면 회당은 말씀 중심이었다.[255] 이 회당의 예배는 후일에 기독교회 예배의 원형이 된다. 회당예배의 중요한 부분은 율법낭독과 설교였다. 회당장이 사회를 맡고 설교는 주로 율법학자가 하였으며, 설교는 성서의 일부를 읽고 그것을 해설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유대 설교가 그러하듯이 그때의 설교는 성서의 강해방식을 취했고, 이 방법은 정통 기독교의 설교 방법으로 채택 되었다.[256]

그러나 예수 시대 때에 회당은 많이 타락하고 있었다. 이유는 랍비들이 구약 선지자들의 말보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탈무드나 미쉬나 혹은 미드라쉬 같은 구전이나 법전을 더 즐겨 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당에서 율법학자들의 설교는 점차로 선지자들의 설교와 같은 신선미가 상실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나, 예레미야의 눈물의 권면과, 호세아의 사랑의 설교,

[255]후등광삼, 곽철영 역, *설교학*(서울: 제일출판사, 1970), 31~38.

[256]De Witte T. Holland, *The Preaching Tradition, A Brief History*(Nashville : Abingdon, 1980), 13.

아모스의 예리한 죄의 지적, 또 에스겔과 다니엘의 영적 위로가 넘치는 말들을 들을 수 없었다. 구약말기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 대신 탈무드를 설교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으나 이미 그 설교는 생명력을 잃고 말았다.[257]

(2) 신약의 설교

회당의 타락과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잃은 시대에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고, 그들이 대망해온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통해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신다.

① 세례 요한의 설교

구약 말기 선지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왔으나, 그후 신 · 구약 중간기에 이르러서 유대교 랍비들이 개인의 인기에 영합해서 탈무드, 미쉬나, 미드라쉬와 유대인 율법학자들의 해석을 인용하여 설교함으로 실상 종교 암흑기를 맞게 되며, 400 여 년 동안 말씀의 침묵기를 보내게 된다. 이 침묵기를 깨며 예수의 선구자로서 세례요한이 등장한다.[258] 그는 당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제사장의 뒤를 이어야 했지만 재래의 형식 종교에 회의를 가졌기에 출가하여 광야에서 설교를 하게 된다. 그의 설교는 회개의 설교, 천국에 관한 설교, 은총의 설교가 주를 이루었다.(마 3:1~12).

세례요한은 당시대의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죄를 지적했으며,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고하며 회개를 촉구하였다. 또한 그는 철저하게 오실 메시아의

---

[257]유부웅, *성서적 설교와 한국교회 강단*, 47.

[258]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70.

길잡이로서의 사명을 낮은 자세를 취하며 충실히 이행했다.[259](마 3:11, 요 3:30 참고). 세례요한의 활동에서 가장 특징적인 활동은 그가 설교자임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세례자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의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세례예식을 행함으로 신앙적 반응을 구체화, 현실화 하였다. 이러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 질서 안으로 들어오며 새 계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결점투성이의 세속 인간들로부터 구별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빛의 아들' 과 '진리의 아들' 이 되는 것이다. 요한의 세례는 분명히 오시는 자를 영접하기 위한 회개의 메시지를 상징화 하였다. 그러므로 세예 요한의 사명은 이중적이었는데, 즉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사역이었다.[260]

②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성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설교에서도 예수는 설교의 대상이며, 설교의 중심이며, 설교의 근거가 된다. 더욱이 예수 자신이 기독교의 첫 번째 설교자였다.[261] 그러면 예수의 설교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의 방법은 어떠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예수의 설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와 판이하게 달랐다. 예수의 첫 번째 안식일 회당에서의 설교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막 1:22). Bruce 는 이

[259]*Ibid*., 71.

[260]D. W. Cleverley, *The Ministry of The Word*(Grand Rapids : Eerdman Publishing Co. 1980), 43.

[261]E. C. Dargan, *A History of Preaching*(Hodder & Stoughton, 1911), Voll Ⅱ. 7.

말을 해석하면서 “서기관은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권위로 말했으나,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깨달은 진리에 근거한 권위를 갖고 말했다.” [262] 라고 설명했다.

둘째, 예수의 설교는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을 취했다고 보기보다는 구약의 계시와 예수님의 계시 사이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었다. 예수의 메시지는 반복이 아니라 율법의 성취이자 완성이었다.[263]

셋째, 예수의 설교의 특징은 비유적 설교라는 것이다. Huijser 는 예수의 설교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비유법, 비유적 설화법, 예화법 등으로 세분했으나 여기서는 비유적 설교라는 말로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 비유적 설교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설교였다는 의미이다. 좋은 설교는 이해된 설교이며, 이해된 설교란 진리를 담으면서도 쉬운 설교이다. 예수께서는 무학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쉬운 말을 썼고 많은 비유를 사용해 말씀하셨다.[264]

그뿐만 아니라 Stalker 에 의하면 그분은 한량없이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의 권능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며 이것 없이는 가장 고상 진리조차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항상 진리가 그분을 사로잡고 그것이 그분의 가슴을 불태웠다. 그래서 예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줄 만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했다.[265] 예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는 참된 실재이며, 주권적이고 역동적인

---

[262]F. F. Bruce, *Expositor's Greek Testament*(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21), 29.

[263]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74.

[264]J. Huijser, *Het Example in de Prediking*(Groninger : J. Niemijer, 1952), 173.

[265]J. Stalker, *The Life of Jesus Christ*,(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1984), 67~68.

현실이며, 사람과 상황과 환경들을 변화시키며, 약속으로 미래를 채우는 실재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실현 될 수 있는 실재이다.[266]

예수 설교의 강조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267] 그리고 옛 선지자들과 예수의 차이점은 그가 오실 자를 언급 하지 않고 자신이 구약 예언의 성취자 곧 메시야 임을 선포하였다는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정리하면 그의 설교는 회개의 설교, 천국의 설교, 사랑의 설교, 하나님 중심적 설교, 구원의 설교, 예언 성취의 설교라고 말 할 수 있다.[268]

③ 사도들의 설교

예수를 비롯한 사도들은 설교를 할 때에는 주로 회당을 이용하였다. 바울사도도 회당이 있는 곳이라면 유대인들의 반대로 중단 될 때까지는 언제나 회당을 사용하여 설교하였다. 보통 회당에서의 예배순서는 쉐마의 암송, 기도, 토라의 봉독, 설교, 축도 순이었다. 회당에서의 설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회중 가운데 능력이 있는 자는 설교 할 수 있었다.[269] 대표적인 사도의 설교로는 ‘베드로’, ‘스데반’, ‘바울’의 설교를 들 수 있겠다. 따라서 각 인물의 설교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베드로는 성령강림의 현상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 성취임을 설명하고 메시아야 말로 예수이었음을 증거하였고, 십자가의 부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

[266]유부웅, *성서적 설교와 한국교회 강단*, 54.

[267]*Ibid*., 55.

[268]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76~77.

[269]A. E. Garvie. *The Christian Preacher*(New York : Charles Scribner' s Sons, 1921), 27.

참 구주 되심을 설교했다. Holland 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는 새로운 차원의 설교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 대신 사도들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주님의 날이 성위 되었음을 설교했다고 하였다.[270] 베드로의 설교는 성서적 설교이며 시사성이 있고, 변증적 · 조직적 · 통일적 · 점진적인 간결한 케리그마적 설교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전에 무식한 한 어부였으나 삼년 동안의 교육과 성령의 감동으로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271]

두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이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지만, 신약성서의 설교를 논할 때 스데반의 설교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는 유대인들의 가슴을 찌르는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순교를 하게 된다. 스데반의 설교 방법은 구약의 역사를 약술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분명히 밝히는 구속사적 설교였다. 스데반의 설교는 신약성서 중에 가장 우수한 구약 성서 해석이며, 그 열렬한 복음적 신앙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272] Holland 는 스데반의 설교의 골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율법과 성전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진 애굽에 있을 때 요셉과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 하였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으며, 심지어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완공

[270]De Witte T. Holland, *The Preaching Tradition, A Brief History.* 18.

[271]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81.

[272]후등광삼, 곽철영 역, *설교학*, 42.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만 제한되지 않았음이 봉헌기도에 나타났다는 것이다.[273]

세 번째로, 바울의 설교이다. 바울은 바리새인중의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으로 당대 제일의 율법학자인 랍비 가마리엘의 문하생이었다. 또 헬라 문화가 번성한 다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헬라 학문에도 능통했으며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자였다.(행 22: 3,28)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루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 바울은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드러내기 위해 복음을 점차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과 현재까지 인도해 오신 사실을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따라 설명했다.[274]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박형용의 요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275]

> 첫째, 사도 바울의 설교는 청중의 형편에 맞추어 설교하고 있다.
> 둘째, 예수님의 죽음 보다는 차라리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 셋째, 그의 메시지는 스데반, 베드로의 설교와 유사하다.
> 넷째,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일 대상은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까지 포함한다.
> 다섯째, 모세의 율법과 칭의의 문제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해 본대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정리하여 말할 수 있다. ‘메시아의 관한 모든 예언이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사도들은 이 사실의 증인들이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으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는 심판하시기 위해 곧 다시

---

[273]De Witte T. Holland, *The Preaching Tradition, A Brief History.* 18.

[274]J. E. Adams, 정양숙 역,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청중에의 적용*(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2), 32.

[275]박형용, *바울의 신학과 설교 : 신학정론* Vol., 7. 1986), 75.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2) 교부시대의 설교

교부시대라 함은 대체로 사도와 교부에 이르는 기원후 4 세기경까지의 광범위한 기간을 말하는데, 설교를 역사적으로 고찰 해 보면 히브리적 설교와 고대의 수사학을 들 수 있다.[276] 히브리적 설교를 총괄적으로 대표해 주는 사람은 신명기 설교를 한 모세와 그 전통을 이어 받은 예언자들이었다. 히브리적 설교가 공헌한 것은 메시지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것이다. 그 후 히브리적 설교를 전승한 사람들이 주로 율법 또는 선지자의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성서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의미를 지닌' Homily '란 용어가 생겼고, '설교학' 이라는 뜻의 말 ' Homiletics ' 가 생겼다.[277] 고대 수사학의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는데 고대 수사학의 개념은 크게 고안, 정리, 양식, 전달, 기억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278]

이처럼 초대교회 설교는 히브리적 설교와 고대 수사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바울의 선교 영향으로 이방인 회심자들 중 그리스의 철학자, 문학, 그리고 수사학에 능한 사람들이 설교사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1) 초기 설교자

---

[276]Veman L. Stanfield, *The History of Homiletics*(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3), 50~51.

[277]이주영, *설교학*(서울: 성광문화사, 1983), 51.

[278]Veman L. Stanfield, *The History of Homiletics*, 50~51.

① Clement in Rome

Clement in Rome 는 기원후 60 년경 고린도 교회에 설교문 형식의 편지를 보냈는데 구약을 많이 인용했고, 사도들의 교훈을 지키는 충실한 설교자였다.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아 비교적 윤리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다. 설교 스타일이나 사상이 잘 정리되지는 않았으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두드러졌다.[279]

② Ignatius

안디옥의 감독으로 107 년 트라야누스 황제 시대에 잡혀서 로마에 호송되어 처형당했다. 호송 중 그가 남긴 소아시아의 다섯 교회에 쓴 7 장의 편지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는 기쁨이 나타나 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육체를 가진 하나님임을 선포했다. 예수는 실제로 태어나 먹고 마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하셨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 된 자는 주의 날을 축하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말 것을 말하였다.[280]

③ Polycarpus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의 감독으로 기원후 155 년경 순교를 당했다. 그는 이그나티우스 사형이 행해질 무렵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며 실제적인 권면을 했다. 그의 인격과 학덕을 귀히 여겨 석방할 의사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예배하고 예수를 욕하면 용서하겠다고 하자 그는 85 년간 섬겨온 예수를 훼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로인해 그는 화형을 당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의 잔을 마시는 것을 기뻐하였다.[281]

---

[279]T. H. Pattison, *The History of Christian Preaching*(P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903) 49.

[280]*Ibid*., 49.

[281]*Ibid*., 49.

(2) 알렉산드리아의 설교자

① Jstinus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기독교 최초의 변증론자이며 기원후 165 년경에 순교 당했다. 그의 학문적인 배경은 철학이며, 스토아학파로서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플라톤 등을 차례로 옮아가다가 어느 날 한 노인과의 대화에서 예언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므로 그의 설교에는 철학과 수사학이 인용되었다. 그는 순회전도자로서 각지에서 변증하고 설교했다.[282] 그는 로마에서 최초의 기독교 학교를 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교회의 생명을 지켰으며, 교회의 믿음이 신앙의 적수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변증했다.[283]

② Clement of Alexandria

Clement of Alexandria 는 그리스 아덴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리에게 신비적이며 문화가 발달된 헬라 기독교를 설명해 준다. 또한 그는 교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알렉산드리아에 교리 문답 학교를 열었다. 그 당시 철학과 고전학의 권귀자로서 그와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역사가는 전하고 있다. 현존하는 가장 초기의 설교들 가운데 하나는 마가복음 10:17~31 에 의거한 부자들에 관한 그의 설교는 본문의 최초 해석이었다.[284]

③ Origenes (185~253)

Origenes 는 기독교인 양친에게서 태어났다. 그가 17 살에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순교를 당했다. 그 후 어머니의 노력으로 그가 시련을 이겨내고 클레멘트

---

[282] 후등광삼, 곽철영 역, *설교학*, 49.

[283]이훈구, *설교학 총론*(서울: 도서출판 양문문고, 1991), 56.

[284]*Ibid*., 57.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클레멘트의 뒤를 이어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 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학파 필로의 영향을 받아 성서의 문자적 해석을 등한히 하고 우의적 해석을 함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설교사에서 논쟁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후에 그의 신앙이 이단으로 지적되고 배척 받아 가이사랴에서 조용히 가르치다가 253 년 대 박해시 순교했다.[285]

(3) 라틴의 설교자

① Tertullianus (170~240)

Tertullianus 는 카르타고 출신의 엄격한 법률가였다. 30 세에 개종한 후 성서와 기독교 문학에 정통하기 위해 전념했다. 그는 라틴 기독교 사상을 명확하게 계통을 세워 설명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로마의 핍박에 자극 받아 기독교를 옹호하는 변증론을 썼다. 그 당시 철학화 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을 공박하고 계시를 초이론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했다.[286] "알 수 없기 때문에 믿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하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287]

② Cyprianus (200~258)

기독교 박해가 Cyprianus 시대에 와서 그치게 되었다.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 상층계급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박해의 시대를 견딘 상인한 신앙대신에 형식주의가 되어가고, 설교의 능력도 잃어가고 점점 교권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주장은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

[285]*Ibid*., 57.

[286]*Ibid*., 57.

[287]후등광삼, 곽철영 역, *설교학*, 53.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하였으며 가톨릭 교회에 구원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258 년에 카르타고의 감독으로서 순교하였다.[288]

③ Crysostomus (347~407)

Crysostomus 의 본명은 요한으로서 설교에 능하고 웅변적인 설교 때문에 황금 입을 가진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교회 역사가는 그를 참 주해자이며 동방교회에서 이제까지 나타난 최대의 설교자라고 찬양하고 있다. Crysostomus 는 그의 저서 "제사장" 에서 설교자의 자격을 말했는데 웅변 능하게 성서를 사용할 것, 언제나 성서를 옹호 할 것, 잘 준비할 것, 사람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명예를 구할 것 등을 들었다. 그가 남긴 설교는 1,000 편이 넘으며 그는 확실히 기독교 역사에 가장 천재적인 명 설교가로 영원히 기억 될 것이다.[289]

④ Augustinus (354~430)

Crysostomus 와 쌍벽을 이루는 당대의 신학자요, 설교가로 그는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배웠고 이태리 밀라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프리카로 돌아가 히포교회의 감독이 되어 세상을 마쳤다. 그의 설교는 약 400 편 정도가 남아 있는데 주로 해석과 강해설교에 뛰어났다. Augustinus 의 설교 이론은 그의 작품 "기독교 교리" 에 잘 나타나 있는데, 수사학과 설교의 유사점을 말하면서도 구별하였다. 설교 자료는 성서에서 얻어야 하며 성서를 많이 읽으면 성서를 읽은 만큼에 비례해 더 지혜롭게 설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290]

3) 중세시대의 설교

---

[288]De Witte T. Holland, *The Preaching Tradition, A Brief History*, 22.

[289]후등광삼, 곽철영 역, *설교학*, 54.

[290]De Witte T. Holland, *The Preaching Tradition, A Brief History*, 23.

중세시대를 일컬어 흔히 설교의 암흑시대라고 한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박해가 없어지자 교회는 안일에 빠지기 시작했다. 4 세기 이후 가톨릭은 전성하게 되고 설교는 의식의 그늘에 가려 서서히 빛을 잃게 되었다. 더구나 복음은 스콜라 철학에 화를 입어 그 모습을 잃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다 여러 가지 이교 철학과 지식을 보태 여러 가지 교회의 그릇된 전승을 붙여 성서를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냈다.[291] 이로 인해 예배는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성서 봉독을 하였고 6 세기에 와서는 성서 봉독이 아예 중단 되었다. 성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아주 낡은 습관으로 이해되었고, 가톨릭교회에서는 제사 의식이 복잡해졌고, 의식화 되어 성상 숭배, 마리아 숭배, 유물숭배 등이 왕성하게 되었고, 미사에서 우상 숭배 행위가 합법화 되어 예배의 중심이 되고 말았다.[292] 그러나 이렇게 암흑시대에도 미약하고 희미하나마 소수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들의 설교 운동도 있었다. 최근엔 중세 시대 설교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Francesco of Assisi (1182~1226)

Francesco 는 독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교회사에서 가장 거룩한 인물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의 설교는 가르치기 보다는 스스로 실천해야 하며 행위가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은 자신이 결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기를 원하며 또한

[291]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108.

[292]*Ibid.*, 109.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율에 복종함으로써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범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를 원하였다.[293]

사실 그의 설교 자료는 전혀 없다. 그래서 설교 그 자체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대개 그의 편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는 학문적이기보다는 신비적이며, 그의 소리는 선율적이고, 쾌적했으며, 풍부한 억양을 지녔다고 한다. 어떤 때는 극적인 생생함을 지난 급진적인 말로써 자신의 경험에 따른 내용을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하였다.[294]

(2) Thomas Aquinas (1225~1274)

그의 설교는 오늘날의 설교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충분하고 극히 평범한 것에 불과 하지만, 청중들을 감화시키는 데에는 탁월했다.[295] 그의 설교는 결코 모범적인 설교는 아니었으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진 설교였다. 설교학자 브로더스는 “그의 설교는 뛰어나고 놀라운 작품들 가운데 많은 간단한 강화들이 섞여 있다. 그것들은 분명하고 단순하고 실천적이다. 그는 표현에서 높은 상상력도 흐름도 없다. 문장들은 짧고, 모든 것은 대지와 소지로 되어 있고, 보통 셋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꾸임이나 부풀어 오르는 열정이 없는 반면에 그는 가정적이고 생생한 비교를 많이 사용했다.” 라고 하였다.[296]

---

[293]Leo Sherley-Price trans, *St Fransis of Assisi*(New York : Harper & Brother, 1959), 62.

[294]Father Cuthbert. *Life of St, Francis of Assisi*(London : Longmans, Green and co, 1921), 116.

[295]Alfred Emest Garvie, *The Christian Preacher*, 113.

[296]J. A. Broadus,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New York and San Francisco : Harper & Row, 1979), 105.

4)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주의 설교

(1) John Wycliff (1320~1384)

Wycliff 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1378 년 ‘가난한 사제단’ 을 조직하여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한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라틴어 성서를 영어로 번역했던 작업이다. 그의 설교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의 메시지로도 정확한 외침이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어휘는 단호했고 두려움 없이 당시의 교직자들을 공박하였다. 그의 설교의 방향은 개혁주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고 평범한 성서 해석에 복음적 교리를 힘 있게 가미시킨 일종의 요약 설교로서 다른 설교자들에게 자유롭게 확대 설교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 주었다.[297]

(2) John Huss (1373~ 1415)

John Huss 는 설교와 글로서 교황청과 교회의 부패를 공격하여 1410 년에 이단으로 정죄되어 파문당했으나 프라하에는 그의 추종자들이 있었고 설교는 계속 되었다고 한다. 1414 년에 시기스문드 콘스탄스 회의에 참석했다가 수감되어 1415 년 화형대의 불꽃 속에서 순교했다. 그는 언변적 자질은 없었으나 기교로서 만족시켜 주시 보다는 확신에서 오는 능력과 진실성 때문에 그의 설교는 매우 무게가 있었던 것 같다. 박해는 인간의 육체를 죽일 수 있으나 그 사상은 죽일 수 없었다. 그의 사상은 이후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독일의 모라비안 형제단은 그의 감화로 일어나게 되었다.[298]

---

[297]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120~122.

[298]*Ibid.*, 123~124.

5) 종교개혁 시대의 설교

중세 암흑기를 걸쳐서 이제 종교 개혁기를 맞는다. 개혁자들에 의해 다시 설교가 예배의 중심에 되었으며 쉽게 강해하여 설교하였고, 성서를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다.[299]

(1) Martin Luther (1483~1546)

Luther 는 아이슬레벤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그는 1505 년에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갔다. 성서 공부를 하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로써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과 만족을 발견하게 된다.[300] 그 후 1510 년 비텐베르크 대학에 교수로 취임하여 한 생애를 보냈는데, 특별히 1511 년에 로마에 방문했다가 성 베드로 성당의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로마 성직자들의 위선과 거짓, 세속화, 부패, 허무가 그의 마음에 끊임없는 인상을 남겼고, 로마서 1 :17 절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계속 울리게 되었으며, 1517 년 존테젤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 온 것에 분개한 그는 그해 10 월 31 일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95 개조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붙였다. 이 95 조는 인쇄되어 전 독일뿐 아니라 삽시간에 전 유럽을 울림으로써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었다.[301]

이렇게 로마 가톨릭과의 완전한 결별 후 그의 설교는 칭의 의 교리에 집중 되었고, 특히 로마서 연구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강조로

---

[299]후등광삼, 곽철영 역, *설교학*, 60.

[300]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128~129.

[301]후등광삼, 곽철영 역, *설교학*, 62.

로마교회의 기초를 흔들어 놓았으며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Luther 의 설교의 원칙은 첫째, 설교자는 문법적인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해석자는 해석할 책의 시대나 환경이나 그밖에 고려할 일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으며, 문맥에 조심할 것과 신앙과 깨우침의 필요가 있으며, 신앙의 조화가 보장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 모든 설교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중심 주제여야 한다고 했다.[302]

(2) Huldreich Zwingli (1484~1531)

Zwingli 가 활동하던 당시의 스위스 가톨릭 교회는 형편없이 타락하여 부패와 미신이 성직자들 가운데 성행했는가 하면 면죄부 판매자들이 스위스 전력에 걸쳐서 장사에 열을 올렸다.[303] 그는 35 세 때에 취리히 대성당의 사제로 있으면서 개혁운동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으며, 1529 년 독일 마르부르크에서 루터와 멜랑히톤과 만나 종교개혁자의 동지가 되기를 서명하기도 했다. 그의 설교는 솔직한 어투로 스위스 사람들의 행위의 동기들을 검토하여 그 행위를 폭로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정치적 · 도덕적 결함들을 폭로했다.

그의 설교는 깊은 명상과 사색으로 준비되었고, 스위스 사람들에게 친숙하고도 쉬운 용어들과 문구를 사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을 영원히 성취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가 삼가 하였던 설교의 기법은 연극조의 설교, 수사적 기법의 사용을 삼갔으며, 과장된

---

[302]H. Pattison, *The History Christian Preaching*(Piladelphia :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903), 136-137.

[303]John T. McNei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30~31.

몸짓을 피할 것과 너무 빠르거나 혹은 느리게 설교하지 말 것, 목소리를 너무 크게도 또 적게도 하지 말 것을 충고하였다.[304]

(3) John Calvin (1509~1564)

Calvin 은 프랑스인이며 법률가였지만 루터의 칭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Calvin 을 가리켜 종교 개혁자요 조직 신학자라고 하며 성서주석을 거의 완성했기 때문에 주경 신학자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는 제네바의 생 피에레 교회에서 일생 동안을 목회자로서 삶을 살았고 진실한 강해 설교자였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는 루터처럼 열정적 설교자도 아니고 웅변가도 아니었다. 그의 성격처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그러나 확신의 찬 설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4 세가 아우구스티누스나 크리소스토무스 이후 천년 만에 나온 가장 유능하고도 건전한 강해설교자였다. Calvin 은 탁월한 성서 원어 지식과 라틴어 지식, 그리고 놀라운 성서 지식으로 성서 본문을 연구하며 언제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이러한 설교의 사역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행해져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는 교회력에 따른 설교를 하지 않고 성서 전체를 차례로 설교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로 보아 그는 강해 설교의 왕이라고 할 수 있다.[305]

Calvin 은 강해 설교를 할 때 연속적인 문장을 각 절씩, 혹은 각 구절씩 설명과 각주를 달면서 본문을 설교를 하였다. 그는 언제나 원문대로 설교하면서도

---

[304]Oskar Famer, *Huldrich Zwingli, Vol. Ⅱ*(Zürich : Zwingli-Verlag, 1954), 94.

[305]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139.

성서 각 권과 각 장의 중요성을 철저히 고려했다. 그의 강해설교는 성서는 성서로 강해되고 해설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확증하는 설교였다.[306]

6) 종교개혁 이후의 설교

루터와 칼빈 이후 개혁교에서는 서로간의 신학논쟁이 심화되자 차차로 개혁자의 정신도 사라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주의 철학과 과학이 발달하여 개신교의 ‘ Scholaticism ’ 이라는 이지주의가 대두되면서 설교 형태도 변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특징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리스도는 도덕교사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복음의 본래적 의미가 상실되고, 이성에 의하여 발견된 자연법칙의 원리를 종교에 응용하며 설명하는 합리주의 이신론이 생겨났다.[307]

이때부터 스콜라적인 설교 기법이 등장하여 세밀하고도 분석적인 설교 구조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여 종교 개혁 당시에 빛을 발하던 설교가 17 세기에 와서 매우 쇠약해졌다. 그러나 17 세기 말엽에 와서 매우 경건한 복음주의적 경향이 Fox, 독일의 모라비안 형제단, John Bunyan, John Wesley 등을 통해 나타나 당시의 길고도 철학적이며 무미건조한 설교를 지향하고 생기 있고 직접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복음주의 설교를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미국 설교가들의 전형적인 설교흐름의 기초가 되었다.[308]

(1) John Bunyan (1628~1688)

306이주영, *설교학*, 68.

307후등광삼, 곽철영 역, *설교학*, 65~66.

308Veman L. Stanfield, *The History of Homiletics*, 53.

John Bunyan 은 '천로역정' 의 저자인데 이 책은 영문학의 고전적 작품 또는 경건 서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설교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당대 최고 설교자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세심하고 마음이 넓은 태도와 목회자로서, 복음주의자들의 서술 관점에서 설교한 설교자였다.[309] 그는 솔직하고 단순하게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설교할 때에 영원하고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했으며, 언제나 중심주제가 뚜렷하였다.[310]

(2) John Wesley (1703~1791)

Wesley 에게 있어서 성서는 가장 중요하고 원천적인 근거로 하며, 성서적 해석 없이 성화의 교리를 취급하지 않았다. 그의 설교는 단순히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권고하며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적 설교가 주를 이룬다.[311]

Wesley 설교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의 설교의 특징은 아르미니우스적 인간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교의적이고 복음적인 설교였다. 성구 인용이 많으며, 논리적 전개가 강하였고 말의 명확성과 논리성이 있었다. 과장적 표현은 없고 격렬하지 않았으나 청중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죄에 대하여는 신랄한 공격을 하였으며, 복음의 진리를 실생활에 응용하는데 철저했다.[312] Wesley 의 신학의 중심은 구원론이다. 루터의 구원론은 의인화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그는 의인화 뿐 아니라 성화에도 또 구원론에도 중심을 두었다. 따라서 루터에서 시작된 의인화의

---

[309]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151~152.

[310]Alfred Emest Garvie, *The Christian Preacher*(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21), 151.

[311]후등광삼, 곽철영 역, *설교학*, 67~68.

[312]웨슬리복음주의협의회 편, *웨슬리 복음주의 총서(Ⅰ)*(서울: 광림, 1992), 145.

신학이 Wesley 에 이르러서 성화의 교리로 꽃을 피웠고, 구원론에 있어서는 그가 개신교의 신학을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교는 신학과 실천의 통전적 조화라는 점에서 '구원' 의 메시지는 그의 설교의 강력한 강조점 이었다.[313]

7) 19 세기와 20 세기 설교

19 세기 전반에 걸쳐 성서에 대한 고등 비평의 공격들과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도 불구하고 강단은 영국에서 그 명성을 지켰다. 사람들은 그 당시의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들었고, 인쇄된 그들의 설교를 열심히 읽었다. 그 설교자들은 옥스퍼드 대학 교회의 Newman (1801~1890), 성 바울 성당의 Liddon (1829~1890), 브리튼의 Robertson, 런던의 Charlews Haddon Spurgeon (1834~1892), 스코틀랜드의 Carlyle (1795~1881)등을 들 수 있다.[314]

20 세기로 들어와서는 영국과 미국교회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한 영적 각성을 불러 일으켰다. 먼저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자들로는 Alexander Machraren, Cambell Morgan, Lloyd Johns 를 들 수 있겠다. Machraren 의 강해설교집 " The Expositors Bible " 에 기고 한 것과 함께 오늘날까지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315] Morgan 은 생활 속의 설교가 였으며, 본문의 석의와 해석과 예화로 풍부한 천재적인 설교가 였다. 그는 계시된 진리를 선포하였으며, 그의 영적인 감화력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316] 또한 Johns 는 본문 연속 강해로

---

[313]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3), 86.

[314]John R. W. Stott, 정성구 역, *현대 교회와 설교*(서울: 풍만 출판사, 1985), 41~42.

[315] John Machrthur, 김동완 역, *강해설교의 재발견*(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96~97.

[316]조태희, *21 세기 목회와 강해설교*(서울: 쿰란 출판사, 1996), 67~68.

유명하며, 강해설교의 구체적인 모범을 보인자로 그는 본래 의사였기 때문에 그의 성서 해석 방법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치료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모든 설교가 신학적이요 영적이요 강해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317]

두 번째로는 미국설교자들이다. 미국의 설교의 시작은 1620 년 Plymouth 때부터이고 설교는 여러 세대를 거쳐 미국의 종교와 정치를 좌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왔다. 1690 년 이전에는 인구의 대부분이 주로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으나 그 이후에 메노나이트, 모라비안 등이 건너와 교파의 분포를 바꿔놓게 되었다. 이때의 교회에 영향을 준 설교가는 John Locke 였다. 미국의 대 각성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이 낳은 첫 칼빈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이며 철학자인 Jonathan Edwards 에 의해 대 부흥운동이 일어났다.[318]

1791 년 인권선언에 명시된 대로 신앙의 자유시대가 도래 되었고 모든 교회는 가장 큰 기회와 함께 위험도 따르게 되었다. 미국 건국 초기에 특이한 것은 James McGreadly 목사에 의한 천막집회의 발전이었다. Charles Grandison Finnery 는 19 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전도자로 꼽힌다. 그 후 노예제도에 대한 상반된 교회의 입장 때문에 몇몇 개신교 교단간의 친목을 앗아가 버렸고, 남북 전쟁을 치르며 더욱 심화 되었다. 남북전쟁 직후의 사회, 경제, 신앙문제 등의 급격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의 부흥을 낳게 되었고 성도들의 부의 축적은 교회 내에서의 복음주의적인 중요성을 둔화시켜버렸다. 이때에 뛰어난 설교가로서 Henry ward Beecher 와 Phillips

---

[317]정근두, *로이드 존스 설교론*(서울: 여수룬, 1994), 66~67.

[318]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173~175.

Brooks 등을 들 수 있다.[319] Dwight L. Moody 는 1880 년 이전에 이미 부흥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Ira Sankey 와 함께 22 년 동안 부흥운동에 함께 봉사하며 설교의 관심은 죄인의 회심 그것 뿐이었다.[320] 그의 후계자로는 William Ashley Sunday 로 대중 전도는 약 650 명의 전속전도자와 1,200 여 명의 비상근 전도자가 활동했으나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신앙 기상도가 급진적으로 변신했고, 전도운동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현재는 남침례교회를 제외하고는 복음주의적 대립이 교회 간에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321]

3. 최근 설교의 동향

1) 설교에 관한 현대인의 거부감

오늘날 교회의 파멸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이제 설교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확신 있게 선언한다. 설교는 죽은 방식이며, 의사 전달의 낡은 형태며, 캐캐묵은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메아리' 라고 말하고 있다. 현대의 정보 전달 수단은 설교를 대신하게 되며 설교는 현대의 분위기에 상응 할 수 없다 하며, 더 이상 설교는 과거의 영예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는 당대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수집해서 서로 비교해 보기 위해 여러 교회를 순례하는 나쁜 습관들도

---

[319]*Ibid*., 184.

[320]*Ibid*., 187~188.

[321]*Ibid*., 188.

사라진 유행이 되었고, 어떤 교회들에서는 설교가 5 분간의 변증으로 격하되었으며, '대화' 혹은 '즉흥극' 으로 대치되었다고 한다.[322]

이러한 현대인들이 설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교회와 설교를 등한시하며 떠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세계가 권위에 대하여 이렇게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반항한 적은 거의 없었다. 저항과 반항이라는 현상이 새로운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본성은 반항적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 할 수도 없었다.(롬 8:7). 그리고 인간의 상태에 관한 이 기본적인 사실은 무수히 많은 추한 현상들을 자아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은 전 세계적인 규모의 반란과 이 반란을 종종 지지해 주는 철학적 주장이다. 지난 20 세기에는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으로 요약되는 세계적인 반란에 사로 잡혀 있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옛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대체되고 과거에 받아들여지던 모든 권위들(가정, 학교, 대학, 국가, 교회, 성경, 교황, 하나님)이 도전 받았다. 급진주의자란 엄밀히 말하면 과거에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기존의 질서에 대하며 불손하고 어울리지 않은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급진주의자들의 등장은 현시대의 반 권위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323]

그리하여 설교에 대한 청중의 태도에도 변화가 일게 된다. 오늘날 개화되고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 중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

[322] John R. W. Stott, 정성구 역, 현*대 교회와 설교 : 성경적 강해설교와 현대인의 삶*(서울: 반석문화사, 1992), 59.

[323] *Ibid*., 60~61.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 영역에서 있어서는 오직 설교하는 목사만이 청중을 조용히 앉혀 놓고 그들을 괴롭힐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오직 설교하는 목사만이 진부한 말들, 뻔한 소리와 엉뚱한 소리들을 마음껏 지껄이면서도 목사라는 특권 때문에 그의 모든 말들은 감정이 배제된 유창한 연설이나 설득력 있는 논리인양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법학 교수나 물리학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가서 미숙한 말들이나 무용하고 공허한 어구들을 쏟아 놓는다면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큰 기침을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말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정족수의 부족으로서도 그들의 말은 침묵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 현대인들은 설교자의 부당한 권위의 행사로 본다.[324] 이러한 현상은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현대 교회에 중년층과 노년층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저항의 시기가 지나서 비교적 가치기가 쉬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주장하며 고풍의 제도들을 피해 버린다.[325]

또한, 인공두뇌학의 혁명이 설교에 대한 거부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공두뇌학’은 인간과 전자계산기, 즉 두뇌와 컴퓨터의 의사 전달 메카니즘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따라서‘인공두뇌학 혁명’은 복잡한 전자계산기 장치의 발달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급격한 변화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사회 혁명에 있어서는 텔레비전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326] 이러한 혁명은 인간들을

---

[324]*Ibid*., 63.

[325]*Ibid*., 64.

[326]Marshall McLuhan, *The Medium is the Massage : An Inventory of Effects*(London : Penguin, 1967), 125.

신체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었으며,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었고, 도덕적, 심리적으로 혼돈에 빠지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복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함이 시대적 설교의 거부감의 원인이 되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 설교를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설교 한다'(케루세인 : Kérussein)는 것은 선구자 혹은 포고자의 역할을 맡고서 공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도하다'(유앙겔리제스타이 : euangelizesthai)는 복음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은유는 우리가 말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케루세인은 케리그마(선포)에 의존하고, 유앙겔리제스타이는 유앙겔리온(복음)에 의존한다. 분명하고 확신 있는 메시지가 없이는 설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결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확신인 듯하다.[327]

이러한 현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라는 추는 언제나 신앙의 시대와 회의의 시대 사이를 오락가락 했던 것이다. 1882 년에 맥밀란 출판사는 John Pentland Mahaffy 경의 " The Decay of Modern Preaching " 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출판했다. 그리고 20 세기 초 맨체스터의 성당 참사의원인 J. G. Simpson 은 영국의 권위 있는 설교자가 없음에 대해서 "이제는 위대한 설교자들의 경주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강단의 능력도 쇠퇴하고 있다.…오늘날의 강단은 분명하고, 널리 울려 퍼지는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328]

2) 시대적 회중의 경향

---

[327]R. W. John Stott, 정성구 역, *현대 교회와 설교*, 94.

[328]J. G. Simpson, *Preachers and Teachers*(Edward Arnold, 1910), 222~223.

오늘날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는 커다란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한 인쇄물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종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자문화에서 멀티미디어문화, 영상매체 문화로 급속도로 변화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00 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현대의 설교자들은 아직도 '읽는 문화'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Michael Rogness 는 영상매체 시대의 회중들의 특성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다.[329]

> 첫째, 멀티미디어 시대의 회중은'시각적인 세대'이다. 시각세대의 회중은 아이디어나 개념이 이미지나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면 아주 쉽게 이해하게 된다. 오늘날의 회중들은'칭의'의 교리를 추상적인 개념이나 대학 강의식의 설교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어떠한 한 사람의 삶에 그 교리가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어떻게'칭의'의 교리로 인하여 그 사람의 삶이 변화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때에 그것을 체험하며 알게 된다.
>
> 둘째, 멀티미디어 세대의 회중은 정보를 Bytes 나 Impressions 에 의하여 받는다. 인쇄물에서 아이디어나 생각은 논리적인 순서로 전개된다. 정보를 한 단계씩 질서 정연하고 통일성 있게 전달 받는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시대의 청중은 정보를 연속적으로 받지 않고 충격과 인상에 의하며, 즉 메시지를 바이트와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에 의하여 받아들인다. 예전에는 자동차 광고를 할 때, 자동차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정보, 예를 든다면 엔진의 홀스 파워가 얼마나 되고, 가솔린 1 갤런 당 몇 마일을 주행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의 30 초짜리 티비 자동차 광고를 보면, 시청자들에게 그 차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정보를 주려고 하기 보다는 시청자들의 무의식 세계 속에 강한 매력적인 인상을 심어 주어서 차를 구매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상 매체 시대의 회중은 일목요연하게 주제가 전개되고 설명되어지는 설교보다는, 어떤 충격과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미지나 바이트가 있는 설교를 더 선호하고 이러한 설교가 청중들의 마음에 더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
> 셋째, 멀티미디어 시대의 회중은 즐겁게 되기를 원한다. 영상매체 시대의 사람들은 스포츠나 정보, 교육이 즐거운 방식으로 제공되기를 원한다.
>
> 이러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예배 중에도 또한 설교를 통해서도 즐겁게 되기를 바란다. 미국의 상업 TV 방송은 적어도 10~12 분마다 광고가 TV 로방영된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익숙해진 청중들은 무엇을 오래 집중하여 듣지 못한다. 그러하기에 메시지가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회중들은 그들의 귀를 닫아 버리고 공상의 세계나 꿈나라에서 헤매게 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설교라 할지라도 회중들이 듣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 없다.

---

[329]Michael Rogness, *Preaching to a TV Generation*(Lima, OH : C.S.S., 1994), 23~32.

그러므로 회중을 즐겁게 하는 것 자체가 설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때때로 설교에 회중을 즐겁게 하는 요소가 있음으로 인해 효과적인 복음을 전달을 할 수 있게 된다.[330]

3) 현대시대가 요구하는 설교의 형태

(1) 스토리, 이미지, 은유가 풍부한 설교

'읽는 문화' 에서 '보는 문화' 로 변화된 시대에 설교는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보이는 현상'을 눈에 그려 볼 수 있는 다채롭고 풍요로운 언어, 상상을 불러 일으키는 언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회중을 책망하고 꾸짖고 대결하는 형태의 설교는 현대회중의 마음을 닫아 버리게 한다. 전통적인 설교는 큰 목소리로 외치며 지나치게 제스처가 많은 웅변조의 설교였다.

그러나 현대청중들에게 호소력 있는 설교는 같이 앉아 자연스럽게 대담하듯, 설교자가 마치 청중의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말하는 이야기체 설교이다. 이들에게는 이야기체 설교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 물론 이야기체로 하는 설교에는 이미지와 은유, 그리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언어가 명제적인 형태의 설교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체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설교에서도 상상력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설교학계의 경향은 이야기체 설교로부터 설교에서의 상상과 이미지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31] Rich Warren 목사는 스토리의 유익함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332]

---

[330]Timothy A. Turner, *Preaching to Programmed People*(Grand Rapids : Kregel, 1995), 40.

[331]Paul Scott Wilson, *"Beyond Narrative : Imagination in the Sermon," Listening to the Word, eds. Gail R. O' Day & Thomas G. Long*(Nashville : Abingdon, 1993), 132~146.

[332]Rich Warren, *The Purpose Driven Church*(Grand Rapids : Zondervan, 1995), 232.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을 유지 시킨다. 텔레비전이 인기 있는 이유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코미디, 드라마, 뉴스, 토크쇼, 심지어 광고물까지도 다 이야기들이다. 이야기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인다. 이야기는 교훈이나 명제들이 전혀 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메시지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작성 되어져야 한다.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돕는다. 목사의 재치 있는 설교 개요가 잊혀진 지 오랜 후에도 사람들은 설교의 이야기들을 기억한다.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청중들이 빨리 그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또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청중들의 관심이 신속하게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 매우 놀랍고 때로는 우습기도 하다.

그러면 상상이란 무엇인가? Henry ward Beecher 는 "상상이란 감각기관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333] 즉 상상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이다. 우리의 마음은 화랑과 같아서 많은 그림들이 걸려있다. 이 마음의 화랑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조각을 하기도 하며, 디자인도 하고 때론 어떤 이미지를 지워버리기도 한다. 인간은 늘 상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상상은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고 있다.[334]

그래서 Halford Luccock 도 "설교의 목적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교의 합리성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비전을 보게 하는 데 있다" 고 말했다.[335] 또한 Henry Ward Beecher 는 예일 대학에서 했던 강연에서 "여러분의 설교가 힘 있고 성공적인 설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상상이다. 상상은 설교자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 말하였다.[336] Garrrett Green

[333]*Ibid*., 146.

[334]Warren W. Wiersbie,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Wheaton : Victors, 1994), 24~25.

[335]*Ibid*., 25.

[336]*Ibid*., 29.

교수도 매우 중요한 그의 저서 “하나님 상상하기” 에서 상상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접촉하는 지점이라고 주장하였다.[337]

> 복음의 선포는 … 성경의 이미지들을 통하여 듣는 자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설교자의 과제는 자기의 상상을 활용해서 성서와 회중의 만남을 연결시키는 일을 중재하고 촉진시키는 것이다. 설교자는 성서 본문의 형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경의 형상이 회중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그것을 명료하게, 그리고 힘 있게 제시해야 한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상상으로 그들을 붙잡으신다. 설교자는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의 상상력을 명쾌하게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봉사할 수 있게 된다.

그에게 있어서 설교를 듣는 청중은 상상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상상을 불러일으킴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상매체 시대의 설교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진리를 어떠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 회중들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Walter Brueggeman 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기에, 그들의 귀에 단조롭게만 들리는 공허한 내용이 되었다고 말한다. 설교가 갱신되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산문의 세계에서 벗어나 시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설교 갱신의 가능성을 다른 형태의 설교를 개발하는 것, 즉 극적이며, 상상력과 은유가 풍요롭고 다채로운 언어와 회중을 초청하여 참여케 하는 스토리 세계의 언어로 개발하는 것에 두고 있다.[338]

그러므로 설교자는 청중들의 마음에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한다. 즉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청중들이 이 말을 듣고 볼 수 있도록 이미지화를 할 수 있겠는가?’ 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고, 또한 그들이 설교 안에서

---

[337]Garrett Green, *Imagining God*(San Francisco : Harper & Row, 1989), 149.

[338]Walter Brueggeman, *Finally Cimes the Poet*(Philadelphia : Fortress, 1989), 1~3.

내용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상상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339] Richard Jensen 교수도 인쇄 매체 세대의 특징인 아이디어로부터 생각하는 것을 은유와 이미지, 스토리로 생각하는 틀로 바꾸어야 한다는 패러다임 쉬프트를 주장하였다.[340]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은유적인 설교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비난을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으셨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시며, 그에게 오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긍휼과 용서로써 받아주신다.' 라고 설명 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정확한 대답이었겠지만 매우 평범하고 논리적이며 추상적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비유로써 대답을 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눅 15:11). 그때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추상적으로 대답을 하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오래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탕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심으로 그 비유 말씀이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가 된 것이다.

(2)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설교

과거에는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① 가정의 부모 ② 교회 ③ 학교 ④ 미디어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20 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도덕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① 미디어 ② 가정 ③ 학교 ④ 교회 라고

---

[339]Chales B. Burgg, *Preaching from the Inside Out*(Nashville : Broadman, 1992), 39.

[340]Richard Jensen, *Thinking in Story*(Lima, OH : C.S.S., 1993), 10.

한다.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도덕관과 가치관은 세속적인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설교자는 교육적인 설교를 통하여 청중들의 도덕관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설교에서 교육적인 측면이 약화된 것은 19 세기 전반기부터 20 세기 중반기까지의 교회학교가 크게 부흥한 시기였는데, 설교에서는 오히려 교육적인 면이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그러나 후기 기독교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에게 교육적인 설교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대형교회들 가운데는 설교가 35~75 분까지 소용되고 있고, 긴 시간동안 회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지하면서 교육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더욱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341]

교육적인 설교란 원리만을 제시하는 이론적인 설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말씀을 실제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설교이다. 청중들은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생활화 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니 믿으라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한다. 설교자는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려고 하기 보다는 회중으로 하여금 복음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회중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을 듣는

[341]Lyle E. Schaller, *21 Bridges to the 21st Century*(Nashville : Abingdon, 1994), 84~85.

것으로 만족치 않고, 이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342] Rick Warren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343]

>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는 설교이다. …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설교는 결코 청중에게 부족하지 않다. … 미국에 있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교리가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연관성 있게 적용되면,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을 나는 발견하였다.

이처럼 설교자들은 회중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회중들이 현대 아파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며, 회중들의 관심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그들의 삶에 연과성과 적용이 있는 설교를 해야 할 것이다.

(3) 긍정적인 설교

현대인들은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그들의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현대를 사는 청중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긍정적인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실로 한 주간의 삶에서 많은 아픔과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치유 받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교회에 나온다. 따라서 이들을 향한 설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희망으로 가득찬 메시지여야 한다. 이들에게 설교자가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죄를 정죄하기 보다는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 성결하고 신실하게 살아 갈 때 오는 기쁨과 만족감 있는 행복을 말해주는 긍정적인 설교가 더 바람직하다.

또한 죄인이라고 책망하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며, 그분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

[342]Timothy Wright, *A Community of Joy*(Nashville : Abingdon, 1994), 92.

[343]Rich Warren, *The Purpose Driven Church*, 229~230.

감격을 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Dough Murren 목사는 “청중들에게 무엇을 , 왜 행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책망하지 말라. 오히려 회중들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행동하게 되고 삶이 변화된다.” 고 말하고 있다.[344]

(4) 체험적, 고백적 설교

전통적인 설교에서는 설교자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것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설교학에서는 John Claypool 목사처럼 고백적 설교가 장려되고 있다.[345] Lyle Schaller 에 의하면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에는 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으나, 성장하는 교회의 설교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실제로 체험하고 자신의 체험을 확신과 설득력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50 년대의 설교에는 내용이 중요했는데, 미래의 설교는 내용 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인격과 성품, 설교자의 복음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청중들은 설교자가 실제로 자신이 전달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 설교자는 회중과 동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도 청중들처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씨름하고, 의심도 하고, 고뇌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것을 회중들에게 보여줄 때 회중은 크게 감동을 받게 된다.[346]

(5) 회중의 참여가 있는 설교

---

[344]Dough Murren, *The Baby Boomerang*(Ventura : Regal Book, 1990), 214~233.

[345]John Claypool, *"The Confessional Preaching," Preaching in Today's World, ed. James C. Barry*(Nashville : Broadman, 1984), 57~65.

[346]Lyle E. Schaller, *The Seven Day a Week Church*(Nashville : Abingdon, 1992), 95.

Thomas Long 교수에 의하면 인상파 화가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화에서 현대 설교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본다. 1874 년 파리의 어느 스튜디오에서 모네, 세잔느, 피사로, 르누아르, 드가의 작품 200 여점이 전시 되었다고 한다. 이들의 작품은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으나, 대중들은 열광적으로 그들의 작품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이들 인상파들의 그림에 있는 소용돌이, 점, 얼룩들은 캔버스 위에서 감각의 움직임과 가물가물하는 빛을 조성하고 있었다. 인상파 화가들은 그 당시로는 놀랄 만한 일인 일상생활의 평범한 제목의 그림들, 일요일의 피크닉, 카페에 있는 한 쌍의 남녀, 피아노를 치는 한 여인 등을 그렸었다. 그러나 인상파 화가들이 성취한 놀라운 업적 가운데 하나는 그림의 의미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성케 한 일이었다. 그들은 작가의 권위로 그림의 의미를 관람객에게 강요하지 않고, 관람객으로 하여금 그림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아 완성케 했던 것이다.

지나간 40 년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피동적인 청중으로부터 활동적이고, 메시지를 선별하여 듣는 청중, 메시지에 의하여 조정 당하지 않고 메시지를 조정하는 청중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Fred Craddock 이 설교의 귀납법적 접근과 열린 결론을 주장하는 것도 청중들을 설교에 참여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이다. 현대인들은 설교자가 설교의 의미를 완성하여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설교 보다는 그들이 설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347]

---

[347]Thomas G. Long, *"And How Shall They Heart?," eds, Gail R. O' Day & Thomas G. Long, Listening to the Word*(Nashville : Abingdon, 1993), 167~170.

현대의 청중들은 설교자가 '이것을 행해야만 한다.' 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과거의 스타일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보여주면서, 또한 설득력 있게 성서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회중들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메시지를 원하고 있다. Craddock 은 미국 흑인교회에서 회중들이 설교에 적극적인 반응과 참여가 설교 도중에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설교에 대한 안건을 넣도록 유도하는 질문함이나 건의함, 또는 설교에 대해 목사들과 함께 토론하는 소그룹 활동, 예배후의 토의 시간, 대화식 설교법, 그때그때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설교,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지나가는 기자 회견식의 설교, 그 밖에도 설교단이 청중들 중앙에 놓이도록 제단을 재배치하는 등의 노력이 회중 참여를 위한 설교의 노력에 포함된다고 하였다.[348]

4.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설교란?

지금까지 본 연구자는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이해와 더불어 세대별(연령별) 청중이해, 그리고 설교의 역사를 시대별로 정리해왔다. 이제 설교자와 청중들 간에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커뮤니케이터인 설교자는 어떤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청중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가? 에 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

[348]Fred B. Craddock, 김영일 역, *설교 : 열린 체계로서의 귀납적 설교방식*(서울: 컨콜디아사, 1989), 47.

설교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기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통한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여야 한다.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는 “성육신”이다. 하나님은 성육신의 방법으로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다.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349]

또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회복은 공동체인 교회에서 목회자과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회복을 가져 오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설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설교자와 청중간의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이루며 단절된 회복을 위해서는 성육신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둔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다. 그리고 메시지의 전달자인 설교자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정확한 신앙과 함께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함이 중요하다.[350]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설교를 위해서는 설교 전에 청중들에서 그들의 필요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의 감각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역할감당을 위해서 설교자는 심방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현시대는 맞벌이 부부와 자녀들의 방과 후 활동이 증가함으로 인해 심방할 여건과 상담의 시간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나 목회자가 이러한 현실에 타협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 심방과 상담에 피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적극적인 계획과

---

[349]김남식,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신학적 접근*(간행물: 신학지남, 제 57 권 4 집, 1990 년 겨울호), 195.

[350]김남식, *기독교 커뮤니케이션학*, 177.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심방과 상담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열정이 더욱 요구된다.[351]

2) 설교의 준비

설교자는 설교의 중압감에서 해방되기 어렵다. 날마다 새롭고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설교 자료로 보일 정도이다. 설교는 인격적 행위이기에 설교자의 자질론을 규명해야 한다. 박희천은 설교자의 자질을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인격,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 본문의 지식,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였다.[352]

설교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설교자의 인격과 성령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기도와 명상, 그리고 성경 연구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 받아야 하고, 주변 학문에서의 자극을 설교에 접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져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설교의 커뮤니케이션은 쌍방이어야지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설교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설교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설교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 보다는 평소에 설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설교하는

---

[351]이기춘, *돌봄의 신학*(서울: 도서출판 감신, 2003), 197.

[352]박희천, *설교자의 자질 문제와 성경외의 자료에 대한 태도 : 목회자와 설교*(서울: 풍만 출판사, 1987), 208~219.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설교의 계획은 교회력에 따르거나 성경 각권을 계속적으로 강해시리즈가 좋다.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들은 교회력의 절기를 여전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절기들을 달력에 표시되어 있으며, 적절한 성구집들과 함께 주일마다 지켜진다. 매년마다 교회력은 성경적 계시의 이야기 즉, 9 월부터 12 월까지의 기간에는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이야기인 구약을, 1 월부터 5 월까지의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묘사하는 복음서를, 그리고 오순절 후기인 5 월부터 9 월까지의 기간에는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을 되풀이 할 수 있다.[353]

두 번째는 설교자의 자기개방이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표현기법의 개발이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법으로서 설득력의 개발과 직결된다. 설교자들이 사용하는 어휘의 폭이 의외로 좁은 경우가 많다. 언어 사용의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소량의 독서로 인해 어휘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354] 따라서 다독과 문학적 소질을 함양하는 것에 설교자들이 노력해야 한다.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설교를 위해서는 설교자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설교는 언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의 강약, 빠르기 조절, 높낮이, 음성의 분리, 리듬 등으로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전달하고 또 전달 받게 된다. 또한 제스처의 사용하는 몸짓과 용모와 의상으로 전달하는 사물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설교를 행하는 강단과 청중들의 좌석, 교회건물과 내.외부 구조 등에서

---

[353]John R. W. Stott, 정성구 역, *현대 교회와 설교*, 233.

[354]유동준, *설교자를 위한 언어학*(서울: 쿰란 출판사, 1996), 21.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를 설교자들은 커뮤니케이터로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함이 중요 하다.[355]

설교자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도록 설교해야 한다. 비언어적 행위가 말과 일치하지 않을 때 청중은 설교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며 언어적 메시지를 신뢰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청중들을 설교에 끌어 들이기 위해 설교자의 인격과 감정 상태에 어울리는 활달한 비언어적 행위를 개발해야 하며, 청중들에게 확신감을 안겨주려면 끊임없이 눈길을 주는 동시에 언어적, 비언어적 의미를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교는 설교자들이 끝없이 추구해야 할 인격적 행위이기 때문에 삶으로서의 설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되고 신실한 삶이 요구된다.[356]

이러한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일치를 노력과 더불어 언어적 메시지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현대 시대가 요구하는 설교의 형태(챕터 3).현대시대가 원하는 설교의 형태)의 내용과 같이 스토리, 이미지, 은유가 풍부하게 준비되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며,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적인 설교, 긍적적인 메시지, 체험과 고백이 담겨 있는 진솔성과 어떻게 하면 회중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나는 설교를 준비 할 수 있겠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하는 준비성이 요구된다.

3) 설교자의 자아개방

[355]C. Pennington, M. R. Chartier, 정장복 역, *말씀의 커뮤니케이션*(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4), 241~245.

[356]*Ibid*., 246~255.

설교자는 성도인 회중들 앞에서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행동을 금하고 스스로의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개방을 모범으로 삼아야 하겠다. Thomas C. Oden 은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357]

> "완전하고도 자유로운 인간의 자기 노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조건들을 제공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조건적인 신의 사랑뿐이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사건 속에 노출시킴으로 모든 인간의 자기 이해와 자기 노출을 위한 기준과 원천이 되었다."

Sidney Jourard 에 의하면, 소통자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참 모습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아닌 딴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어느 정도 수수께기의 인물로 남겨 놓을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한다.[358] 그러나 설교에 있어서 이러한 딜레마는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각각의 설교 속에서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359] 앞서 Oden 이 말한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개방을 하신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인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최고의 개방행위이다. Clyde Fant 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360]

> "성육신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진실한 설교의 신학적 모델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는 그 이외의 딴 방법으로는 행해 질 수 없다."

성육신적 설교의 모범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말씀의 도구가 되는 것이며, 설교자의 인격을

---

[357]Thomas C. Oden, *Kergma and Counseling*(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6), 46.

[358]Sidney M. Jourad, T*he Transparent Self, rev. ed.*(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1971), vii.

[359]C. Pennington, M. R. Chartier, 정장복 역, *말씀의 커뮤니케이션*, 180.

[360]Clyde E. Fant, *Preaching for Today*(New York : Harper & Row, 1975), 29.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설교자의 과제는 그 자신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고자 한다면 성서의 복된 소식은 가식에 의해 가로 막히는 것이 된다. 이 성육신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성 안에 자신을 계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자기를 개방함으로써 진솔한 한 사람의 인간이 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라는 위치에 서게 된다. 설교자의 적절한 자아 개방은 청중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361]

이러한 자아 개방은 실질적으로 대인관계에 있어 효과적이며, 특별히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개방성을 습득하고 훈련하여 청중들에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토대를 든든히 하고 그 기초위에 자신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인 설교 전달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자아개방의 장애 요인들로 인해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자아 개방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외부적 장애와, 내부적 장애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외부적 장애란 인간의 한계, 자기선전, 상투적인 남녀 차별주의, 가정환경, 종교적 배경, 커뮤니케이션 훈련의 부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부적 장애란 자기 이해로 부터의 도피,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책임감과 변화에 대한 기피, 헤일로 효과[362] 에 대한 우려, 죄의식과 수치심의 문제,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363]

---

[361]C. Pennington, M. R. Chartier, 정장복 역, *말씀의 커뮤니케이션*, 183~184.

[362]헤일로 효과란 : 특정 영역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그 영역과 전혀 무관하 영역에서도 효력을 갖는 경향을 말한다. 따라서 한 문제가 갖는 영역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들어 맞는 것으로 판단 될까봐 두려워 하는 사람들의 우려는 헤일로 효과의 전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좋지 못한 점이나 사생활의 약점을 공개 했을때, 수용자들이 단지 그 정보만 생각하거나 또는 그들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등의 모든 영역에 그것을 확대 적용 시키지 않을까 하며 두려워 하는

청중인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성장 한다면, 설교자는 거부당하리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꺼이 자신의 인간됨을 개방해야 한다. 설교에서는 분명히 자아 개방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적합하고, 적당하며, 어울리고 알맞다는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 속에서 설교의 상황에 그리고 설교자의 인격에, 그리고 회중과 설교자의 관계성에 꼭 들어맞는 자아 개방이 비로소 적합한 것이 된다. 설교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 설교자가 자아개방을 해야 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정리된다.[364]

1. 모든 삶과 목회의 영역에서 자아개방을 실천하라.
2. 설교의 메시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아개방을 사용하라.
3. 회중들이 설교의 내용에서 자기와의 일치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아 개방을 사용하라.
4. 자아 개방을 타인의 필요와 연관시켜라.
5. 예배의 맥락 속에서 목사와 회중의 관계성에 부합되는 자아 개방을 고안하라,
6.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를 예상하라.
7. 자아 개방의 시기와 깊이, 그리고 감정적 색조를 정하라.
8. 관계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을 가속 시켜라.
9. 균형 잡힌 자기 모습을 드러내라.
10. 자아 개방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기대하고 찾으라.

이 모든 것은 항상 적절히 행해져야 한다. 적당히 행해지기만 한다면 성도들이 복음에서 대속의 능력을 설교자의 진실 된 인간성 속에서 구체화 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설교는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커뮤니케이터인 설교자는 먼저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과 자아개방과 현시대가 요구하는 설교의 형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개발하고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고 진솔 되며, 효과적인 방법을 창출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그리할 때 에 청중들에게 그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아 개방이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 측면만을 공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의 힘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 하지 못하고 있다. *Ibid.*, 190.

[363] *Ibid.*, 188~190.
[364] *Ibid.*, 191~195.

전달이 될 것이며, 이는 그들의 반응과 응답이 돌출되게 되고 그러한 반복과 지속력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이루는 관계성을 창출 또는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Ⅴ. 연구 시행

1. 연구반 운영과 활동

1) 연구반 구성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반 구성은 연구 기간 동안에 연구자의 사역지 변동에 따라서 뉴욕 베델 교회 와 뉴욕 성결 교회 두 교회에서 구성되어졌다. 뉴욕 베델 교회에서는 주로 설교 시행과 평가, 설문조사 등이 시행되어졌고, 뉴욕성결교회에서는 설교, 대화와 교제를 통해 세대별 문화를 접촉하며 그들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았다.

구분 / 이름	성별	나이	교회직분	전문분야	학력	기타
김영동	남	27	전도사	신학	대학원재중	Drew 신학교
김동욱	남	66	장로	경제	대학졸업	
김숙자	여	61	집사	교육	교대졸업	
김성은	여	24	교사	디자인	대학졸업	

표 1. 뉴욕 베델교회 연구반원

구분 이름	성별	나이	교회직분	전문분야	학력	기타
허소영	여	32	사모	음악	대학졸업	
홍재현	남	29	집사	관광업	대학졸업	
방주일	남	51	선교사	선교사	대학원졸업	뉴욕외항선교회
윤혜린	여	29	대학원	성악	대학원재중	

표 2. 뉴욕 성결교회 연구반원

2) 연구 과제 수행 계획

	날자	연 구 활 동 사 항	연구 활동 내용	기 타
의식변화기간	2012. 1월	*연구반 모집:시행일정과 연구반원 역할 교육 *설문조사: 금요기도회 참여자에게 의식 조사, 성향 조사, 설교자 평가 *청중의 의식변화를 위한 설교(1월분)	*연구반 모집:시행일정과 연구반원 역할 교육 *설문조사 : 금요기도회 참여자에게 의식 조사, 성향 조사, 설교자 평가	*금요예배 광고 및 홍보
	2월	* 청중의 소리함 : 제작 및 설치 * 청중의 의식변화를 위한 설교(2월분)	*청중소리함 : 제작 및 설치*청중의 의식변화를 위한 설교진행	
행동	3월	* Story Telling 설교 실시(초청) * 찬양 설교를 위한 레슨 받기	*Story Telling 설교자 초청	*4월중 미디어팀 모집
	4월	* 연구반원 모임 * 설문조사 평가 반영 * 영상 미디어팀 모집	*1,2,3월간의 연구자의 설교&초청설교에 대한 연구반원 피드백 모임	

변화기간	5월	* 영상 미디어팀 활동(예배자료, 설교자료, 영상자료등 수집) * 영상예배 준비	*영상설교자료 및 이미지 시각화 작업(영상팀)	*7월중 연구반 단합대회 및 상반기 평가
변화기간	6월	*영상예배(1) 실시	*영상팀과 함께 구성한 미디어설교를 시행해 본다	*7월중 연구반 단합대회 및 상반기 평가
행동변화기간	7월	*주제별 설교 *Story telling 설교 (연구자)	*상반기 설교 평가, 후반기 계획	*산문설교를 위한 준비
행동변화기간	8월	*초청설교(2) *일기, 산문(운문)식 설교	*미디어 설교자 초청	*영화예배 광고 및 홍보
행동변화기간	9월	*초청설교(3) – 영화설교 *강해설교	*영화감독 초청설교 : 시행 후 평가	*청중참여 설교(예배)에 관한 광고와 홍보
행동변화기간	10월	*성도참여설교(일기, 간증, 활동, 미션수행)	*청중이 참여 하는 설교 : 일기, 간증, 활동, 미션수행 등을 가지고 예배와 설교를 시행 한다	*음악예배 광고 및 홍보
행동변화기간	11월	*찬양설교(설교자의 음악예배와 설교, 찬양전문가 초청예배, 성도참여 음악예배) *설문조사	*전문가적(음악) 설교 시행	*당회 안건 상정을 위한 준비

구 조 변 화 기 간	12 월	*논문제출을 위한 준비 *설교 피드백팀, 미디어 영상팀 신설	*예배부 산하부서 2 팀 당회 안건 상정 : 설교 피드백팀 , 미디어 영상팀	

표 3. 연구과제 수행 계획표

(1) 의식변화 (Jan.2012~Feb. 2012)

① 시행홍보

금요예배 설교자인 본 연구자는 2012 년 1 월부터 두 달간(Jan.2012~Feb. 2012)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간의 연구자의 설교전달의 방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설교의 방향과 계획을 공지하며,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중이 원하는 설교는 무엇이며, 그 동안의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 받고, 연구반원들을 구성하여 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설교를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이를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 알리면서 설교자의 설교가 새롭게 다양하게 시도되고 평가 될 것을 모두가 인식하게 하는 의식 변화를 가져갈 것이다.

②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금요 기도회 참석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앞으로 다양한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자 희망하는 희망청중들을 대상으로

이차적으로 실시하겠다. 또한 중간 설문조사 및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기재하려 한다.

③ 대화 채널 개설

본 교회 예배의 청중들은 그 동안 능동적으로 자신이 설교시간과 설교 전후 과정에서 설교자와 함께 설교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와 성도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설교보다는 상담과 심방을 통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여기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설교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을 기대해본다.[365] 이에 설교 전후의 모든 작업을 설교자만의 몫이 아닌 설교자와 성도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설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교육과 더불어 '금요 소리함' 과 '온라인 카페 개설' 등으로 이전과 다른 대화의 창구를 열어 이들에게 의식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금요 예배 말씀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며 성도들의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일차적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 질 것이다.

(2) 행동변화 (Feb. 2012~Nov. 2012)

이제 의식변화를 일으키면서 일방적인 설교에서의 설교자와 성도들이 서로 설교의 전반적인 과정에 동참하는 실질적 참여의 행동변화(Feb. 2012~Nov. 2012)를 시행 할 계획이다.

① 설교준비

---

[365]C. Pennington & M.R. Chartier, 정장복 역. *말씀의 커뮤니케이션*, 38.

설교의 청중들인 본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 준비를 위한 목회자를 위한 시간적 배려를 주도록 요구하겠으며, 성도들이 설교자의 설교 준비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 다소의 이해를 갖도록 경험과 삶과 사고를 공유하는 채널 (청중의 소리함, 설교자가 청중에게 발송하는 쪽지)[366]을 만들어서 설교 전 과정에서 참여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그들이 설교에 상상력과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경청하고 그 내용을 실감나는 사건으로 더 잘 수용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변경해 나아가겠다.[367] 또한 심방과 상담으로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듣고 이를 설교에 반영하기에 힘쓰도록 한다.

② 피드백

설교 이후에는 피드백 시간을 할애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는 행동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듣는 청자가 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성도들의 피드백에 받아야 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청자가 되어야 한다.[368] 그러므로 연구반을 구성하면서부터 매주 금요예배 시간의 설교를 피드백 노트에 기록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열어 설교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듣고자 한다.

---

[366]금요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70%가 60 대 이상의 노인들이기에 소리함을 통한 그들의 의견과 기도제목, 삶의 에피소드를 설교자가 접하는 창고의 역할을 기대하며, 설교자는 금요예배 때마다 쪽지를 발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전달함으로 설교자의 근황을 알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자 한다.

[367]C. Pennington & M.R. Chartier, 정장복 역. *말씀의 커뮤니케이션*, 24.

[368]유동준, *설교자를 위한 언어학*, 8.

③ 초청설교

셋째로 외부 강사를 초빙(2~4 회)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강사의 설교와 연구자의 설교를 비교평가해 보며 수정, 보완해야 설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설교의 능력 향상에 도움을 삼고자 한다. 3 월에 초빙할 설교자는 Story telling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를 초청할 것이다. Story telling 과 귀납법적인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를 초빙하여 연구자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8 월과 9 월에는 미디어를 잘 사용하여 설교하는 설교자와 영화감독을 초빙하여 영화 설교를 시행해 보도록 할 것이다. 미디어 활용이 설교에 전달에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초청하여 시행해 보도록 한다.

(3) 구조변화(Dec 1. 2012~Dec 31. 2012)

① 피드백팀 구성

이제 10 개월간의 의식변화와 행동변화를 바탕으로 설교 피드백 부서가 교회안에 신설되어 지도록 하겠다. 설교란 삶의 정황(Context)에 대한 본문(Text)의 해석이다.[369] 그러므로 본 교회에서 목회부 산하 예배위원회 부서에 설교 피드백 팀을 만들고 예배부의 기능을 더 확대하여 그 동안 예배 준비를 위한 기관에서부터 설교 피드백을 하는 기관으로 또 청중의 소리를 설교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케 할 것이다.

---

[369]임태현, *설교의 설득력 커뮤니케이션에 있다*(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5), 30.

② 방송팀 구성

사람은 듣는 것을 10% 기억하며, 듣기 보기를 더하면 50%를 기억하고, 듣기에 보기에 행함을 더하면 90%를 기억한다고 한다.[370] 본 교회에 예배부 안에 산하 기관으로 미디어팀을 발족시켜 설교의 미디어 활용을 더욱 활성화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설교에 시각적 효과, 예술적 효과를 접목하고, 영상 미디어 기술로 설교를 더욱 이 시대의 청중에게 맞는 형태로 이끌어 주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미디어팀은 팀장 1 명 외 음향담당, 조명과 무대연출, 기술(미디어)담당 각 1 명씩 선발 총 4 명의 팀원을 구성토록 하겠다. 이들은 예배 이전에 설교자와의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예배와 설교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연출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③ 기대 결과

위의 두 가지 새로운 팀은 2012 년 발족 및 시행평가 후 2013 년 목회계획 행정임원회에 상정하여 정식으로 교회 산하 부서로 인준 받을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후 계속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설교자와 청중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중요한 기관으로 성장 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3) 연구과제의 실제 수행 내용

---

[370]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363~370.

	날자	연 구 활 동 사 항	연구 활동 내용	기 타
의식변화기간	2012. 1 월	*연구반 모집:시행일정과 연구반원 역할 교육 *설문조사 : 금요기도회 참여자에게 의식 조사, 성향 조사, 설교자 평가 *청중의 의식변화를 위한 설교 실시	*연구반 모집:시행일정과 연구반원 역할 교육 *설문조사 : 금요기도회 참여자에게 의식 조사, 성향 조사, 설교자 평가	금요예배 광고 및 홍보
	2 월	* 청중의 소리함 : 제작 및 설치 * 청중의 의식변화를 위한 설교 실시	*청중소리함 : 제작 및 설치	
행동변화	3 월	* Story telling 설교 실시 연구자 : 이야기식 설교		*4 월 미디어팀 모집
	4 월	* 연구반원 모임 * 영상 미디어팀 모집	*1,2,3 월간의 연구자의 설교&초청설교에 대한 연구반원 피드백 모임	
	5 월	* 영상 미디어팀 활동(예배자료, 설교자료, 영상자료등 수집) * 영상예배준비 *청중참여설교 : 김숙자 권사(간증일기)	*영상설교자료 및 이미지 시각화 작업(영상팀)	*6 월 연구반 단합대회 및 상반기 평가
	6 월	* 김영동 전도사 설교* “The Gate” 영화 감독 초청 설교 *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영상예배) * 설문조사	*영상예배 *설문조사 : 6 개월평가	
	7 월	*교회 사정으로 인해 뉴욕 베델교회 부목사 사임		
행	8 월	*뉴욕 성결교회 협동목사로 부임 *영상찬양예배(십자가의전달자)	*미디어 설교자 초청	

동 변 화 기 간		*새로운 연구반 구성(찬양팀)		
	9 월	*주제설교시행 : 신앙생활을 즐겨라 *연구반 단합대회(찬양팀)	*미디어설교, 초청설교 시행평가 및 피드백	
	10 월	*Story telling 설교 시행일기식 설교 : 내 그릇은 깨끗했는가? *온라인대화 및 상담(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청중이 참여 하는 설교 : 금요 기도회 참석자 중 1 명	
	11 월	*음악, 나눔 축제시행 *추수감사 특별 찬양예배	*전문가적(음악) 설교 시행	*음악설교
구 조 변 화	12 월	*논문 제출을 위한 준비	*예배부 산하부서 2 팀 신설 : 설교 피드백팀, 미디어영상팀	

표 4. 연구과제 실제 수행표

2. 연구 과제 실제 시행의 내용 및 평가

1) 금요 소리함, 온라인 대화, 설문 조사

먼저 뉴욕 베델교회에서 6 개월간을 연구 시행을 하며, 금요 예배에 청중과 설교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 한 것은 “금요 소리함” 제작과 “온라인 대화 채널” 개설이었다. 금요 소리함은 예배실 입구에 비치 해 놓았으며, 금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설교에 관한 피드백, 기도제목, 찬양 곡 신청, 간증문등 여러 가지 소리를 익명으로 소리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대화 채널 개설은 이메일로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유인즉슨 금요 예배에 참여하는

청중들의 70% 이상이 노년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는 청중은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중년층과 청장년층이기에 주로 "금요소리함" 의 사용이 활발하였다.

① 금요 소리함의 시행의 내용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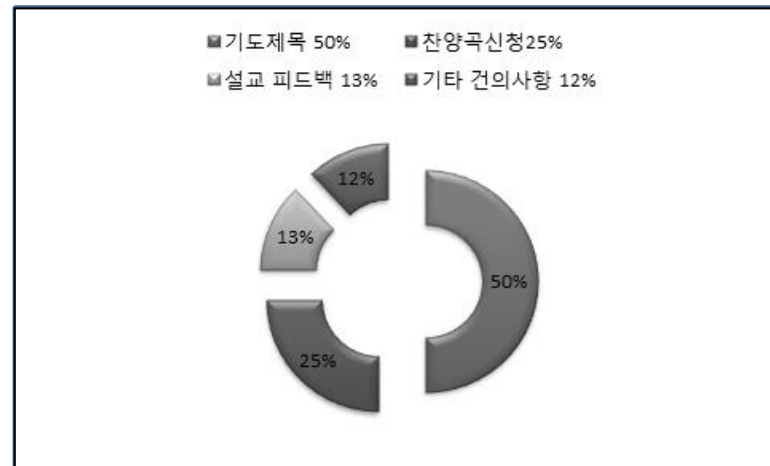



표 5. 금요 소리함 내용분석표

'기도제목' 은 청중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었기에 설교자로서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적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효과적인 것은 이 시대가 디지털화, 고속화, 사이버화 되어가는 인터넷 시대 속에서 아날 로그식으로 편지, 쪽지 형태의 서신의 교환은 잊혀졌던 추억과 흥미를 유발함으로 인해 30%의 청장년층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보다 이 서신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②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대화의 활용은 뉴욕성결교회에서 소그룹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안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건의사항 10%
출석여부 25%
진로문제 30%
고민상담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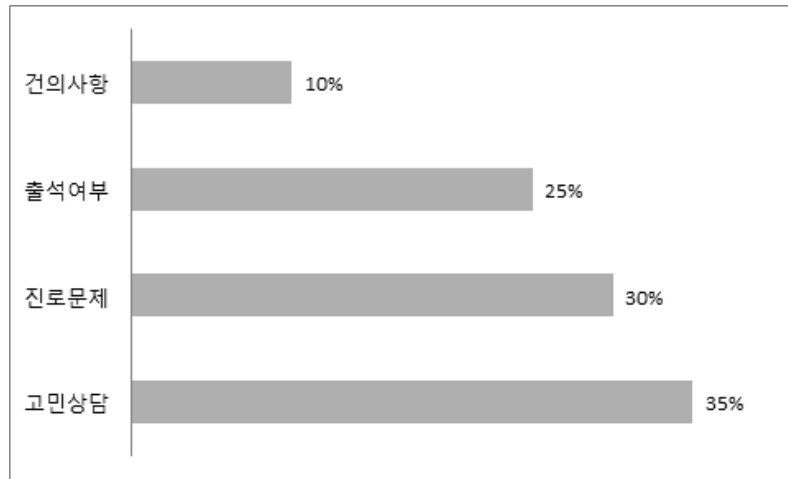



표 6. 이메일 온라인 상담 결과

비록 5 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결교회 경배와 찬양팀과 매주 이메일을 통해서 찬양예배 공지사항 및 커뮤니케이터로서 온라인 교제의 장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자아개방을 한 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자신의 고민과 진로문제를 놓고 상담하는 관계형성이 되었으며, 과거에는 찬양단 연습과 예배에 말없이 빠졌던 중요치 않은 출석여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③ 설문 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뉴욕 베델교회 사역 기간 동안에 2 차례 실시되었다. 아래의 도표는 순서대로 그 결과를 도표화 한 내용이다. 그림 왼쪽 편은 1 월, 오른쪽 편은 6 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항목별 결과를 도표로 나타내고 있다. 설문지는 Appendix 에 첨부 되어있다.

표 7. 설교자의 준비성

부족해 보인다, 2%
보통이다, 13%
열심히 준비한다, 85%

(1 월)

보통이다, 0%
부족해 보인다 , 0%
열심히 준비한다, 100%

(6 월)

표 8. 설교의 이해도

이해가 된다 33%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2%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0%
잘 이해가 된다 65%

(1 월)

이해가 된다 8%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2%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0%
잘 이해가 된다 90%

(6 월)

표 9. 설교를 통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생각해본적이 없다 2%
모르겠다 10%
잘 안된다 16%
잘 되고 있다 45%
때때로 된다 27%

(1 월)

모르겠다 4%
생각해본적이 없다 0%
잘 안된다 2%
때때로 된다 21%
잘 되고 있다 73%

(6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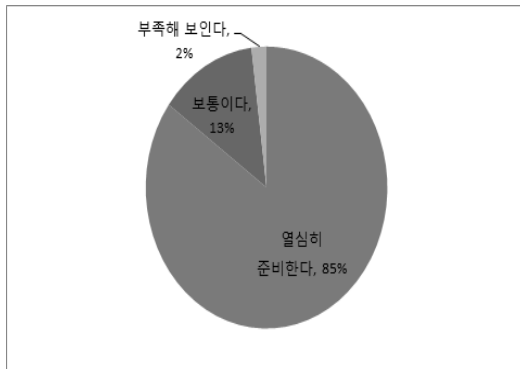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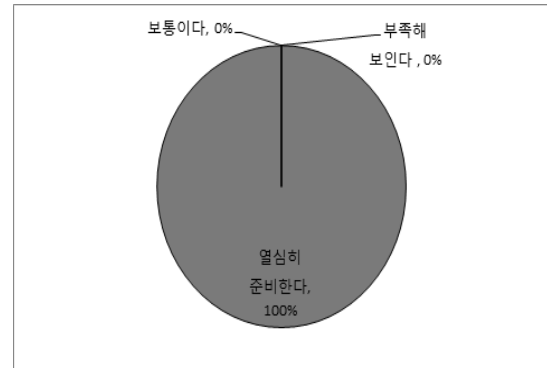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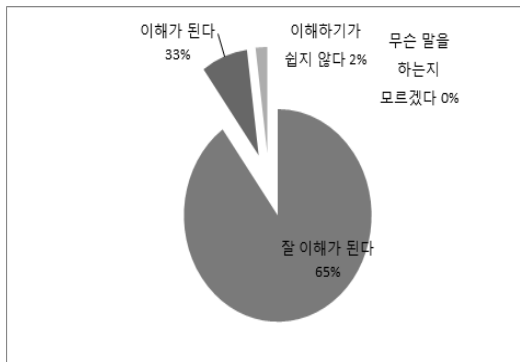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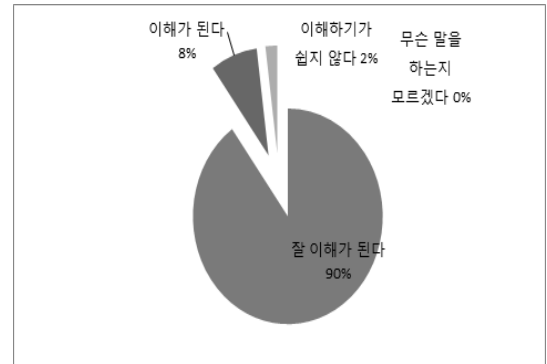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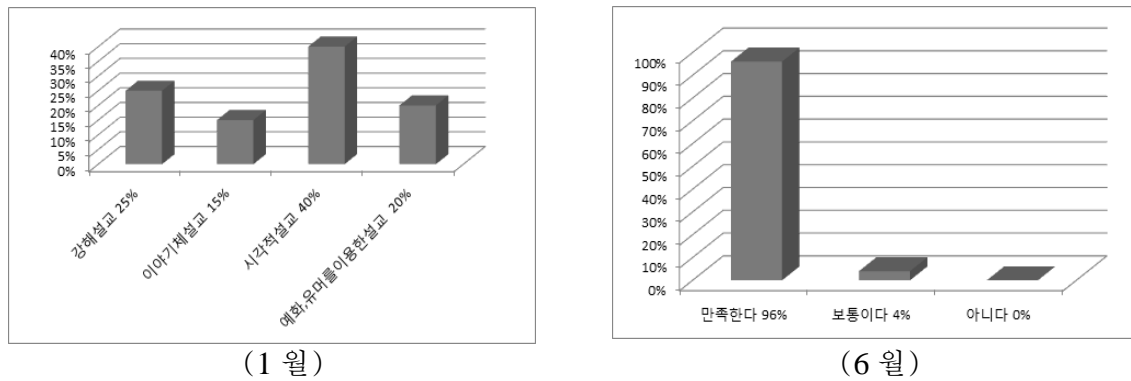



표 10. 설교자와 청중(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1 월)　　　　　　　　　　　　(6 월)

표 11. 설교에 관한 바램 및 평가

(1 월)　　　　　　　　　　　　(6 월)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서 특별했던 점은 비교적 평가를 후하게 내리는 노년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와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기준 이하의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설교자의 자아개방과 모범이 되어야 하는 생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일치에 관해서 연구자 자신에게 과제를 던져 주었다. 하나님과 청중, 그리고 그 중간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설교자인 커뮤니케이터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정도에 따라 청중들의 신앙적 커뮤니케이션 전체가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설문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2) Story telling 설교

연구자는 총 연구 기간 11 개월(뉴욕 베델교회-6 개월, 뉴욕성결교회-5 개월) 동안 각 교회별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실시하였다. 특별했던 것은 두 교회 모두 Story telling 설교를 처음 들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는 이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설교자인 연구자도 청중들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진솔하게 삶을 고민해 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전달하며 그 안에서 은혜의 메시지를 교감하기를 원했기에 일기 형식의 산문으로 준비하며 설교를 통해 자아를 개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결과는 신선함과 새로움이었고, 설교자의 자아개방은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Story telling 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설교문에 있어서 설교자의 정직함과 겸손함과 진실성이 삶에 늘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371] 자칫 자랑이나 변명의 수단으로 설교가 사용될 위험성이 있음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삶을 잘 영위하며, 필요한 이야기들로 잘 선별하고 사용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로 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3) 청중참여 설교

시행을 위해 먼저 청중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홍보기간을 두고 광고를 거듭했다. 4 월 첫 주부터 4 주간에 걸친 광고와 개별적 홍보를 통해서 1 명의 참여자를 선발하였고, 5 월 한 달 동안의 준비 기간을 두고 5 월의 마지막 주인 5 월 25 일 금요 기도회에 김숙자 권사를 강단에 세워 5 월 한 달 간에 간증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웠다. 간증의 형식은 일기식이였다.

---

[371]Fred B. Craddock, 김영일 역, *설교 : 열린 체계로서의 귀납적 설교방식*, 28~30.

내용에서 가장 인상을 심어주었던 것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진심 어린 사랑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던 내용이었다. 아들의 신앙생활을 걱정해주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은 청중들로 하여금 반영을 일으키게 하였다. 청중참여 설교에 관한 성도들의 반응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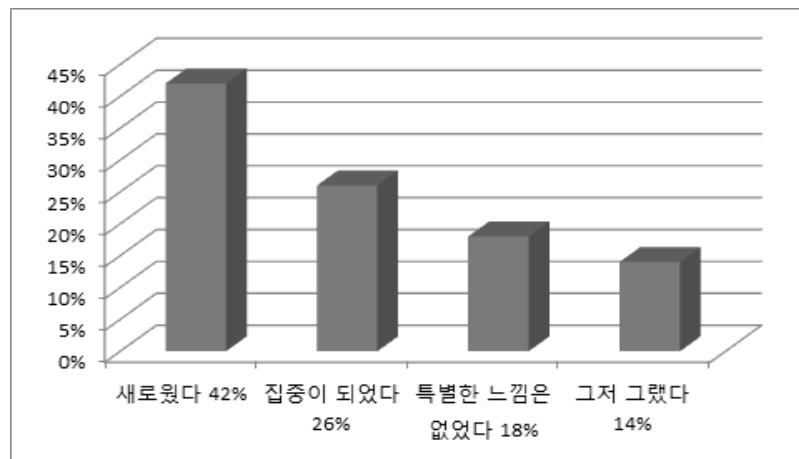



표 12. 청중참여 설교 후 평가

위의 표의 결과와 같이 성도들에게는 새로웠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그로인한 설교의 집중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설교자의 평소 신앙생활의 문제에 있다. 신앙생활과 인격과 성품에 타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필요로 한다. 메시지 전달의 성패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조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영화설교

베델교회에서 영화 설교의 시행은 예배의 대상자들에게 아직 접해 보지 못한 경험이었기에 시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메시지의 전달효과를 극대화 하며, 아직 교회에 영상 미디어팀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영화 설교는 6 월 둘째 주에 실시되었으며, " The Gate " 는 기독교 단편 영화로써 2011 년 "서울 기독교 영화축제" 최우수 영상으로 선정돼 상을

수상했고, 2011 년 " NYC Film maker's Festival " 에서 최우수 영상으로 선정되어 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박효섭 감독님을 직접 초청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의 뒷이야기, 영화 속 간증 등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웠다.

그에 반해 뉴욕 성결교회는 일찍이 예배 방송팀이 구성되었으며, 영상 미디어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며, 비교적 타 교회에 비해 앞서 나가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영화 개봉에 맞추어 교회에서 판권을 사들여 시행하는 영화상영(영화 " Littel Jacob ")을 할 정도로 열의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메시지 전달에도 효과적이다. 아이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그 외 성인 관람객까지 참여가 기대 이상이다. 또한 연구자는 영화 " A Christmas Carol "(월트 디즈니 2009 년작) 을 설교용 영화(19 분 55 초)로 편집하여 예배의 청중들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시행을 해 보았다. 그리고는 개인 온라인 싸이트에 업로드를 해 놓았다. 영상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크리스마스에 좋은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는 평을 들었다. 이처럼 시각화, 이미지화, 고속화 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사는 현대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설교자 개인적은 연구와 노력, 또 교회의 미디어 방송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5) 영상예배

영상예배는 6 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베델교회에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예배 주제로 시행되었다. 미디어 방송팀원 2 명과 함께 연구자가 총감독을 맡아 모든 영상을 준비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예배를 기획하였다. 영상예배 전체의 진행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Cue-Sheet 의 내용은 Appendix 에서 볼 수 있다.

영상 예배가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 사전 영상, 조명, 방송 리허설을 수차례 진행하여 예배시에 방송사고와 지체됨 없이 진행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영상 설교 안에는 뮤직비디오 한편과 설교 내용, 설교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단편영화 상영을 통해서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으며, 주제곡은 청중들이 생소한 찬양곡이 되지 않기 위해 한 달 전 부터 예배찬양으로 불러왔다. 또한 마지막에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촛불점화와 함께 영상미를 더해 예배의 절정을 이루는 정점으로 삼았다. 베델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영상예배이었기에 신선하고 새로운 메시지 전달 방식에 호의를 표하여 주었다.

6) 영상찬양, 섬김의 실천

뉴욕성결교회에서는 연구자가 주일 경배와 찬양단을 인도하며 찬양예배를 주관하였다. 그동안 연마한 영상편집 실력을 발휘하여서 새로운 찬양에 대한 뮤직비디오 상영과 찬양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미지와 자막, 영상을 입히고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주일 예배에 새로운 시도였고, 찬양예배의 질적 수준향상과 예배자들의 예배에로의 초대와 반응에 반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찬양곡에 대하여 거부감을 반감 시켜주는 역할을 해 주었고, 이미지의 잔영과 이미지화된 움직이는 메시지의 흐름이 찬양예배를 하는 청중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미지화된 메시지는 언어로 전달하는 메시지보다 그 유지력이 오래간다고 한다. 사람은 듣는 것을 10% 기억하며, 듣기에 보기를 더하면 50% 를 기억하고, 듣기에 보기에 행함을 더하면 90% 를 기억한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가 듣는 언어

메시지 전달을 시각화 하는 것은 청중들의 기억 속에 더욱 오래 남게 하는 효과를 창출하는 작업이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설교자의 행함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힘쓸 때에 모든 메시지가 조화를 이루어 신뢰를 주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어 원활한 관계 속에서 신앙적 성장과 성숙, 조화와 균형, 함께 가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한 가지 시행은 추수감사절기 주일 1 부 교역자 헌신예배(오전 7 시)에 예배 후 성도들의 아침 애찬을 교역자들이 준비하였다. 반찬을 한 가지씩 분담하여서 총 10 가지의 반찬을 뷔페식으로 성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물론 식사 후 설거지 등 모든 정리도 교역자들에 의해 행해 졌다. 이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교역자들의 작은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역자들도 대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단에서의 메시지를 몸소 실천하겠다는 작은 의지의 표현이다. 이 밖에도 정기적인 교회청소, 식당봉사 등도 좋은 실천의 예가 될 것이다.

3. 시행 후 변화

1) 연구반원 개인의 변화

연구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첫 번째 변화는 설교를 경청하는 집중력이 향상되었음을 말한다. 이는 설교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힘쓴 연구자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6 개월간을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한 설교를 준비하여 시행한 결과 일차적으로 연구반원들에게 설교의 경청하는 훈련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들의 임무가 설교의 피드백을 해주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지만, 그들의 미션수행이 자신들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다음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책임감의 향상이었다. 과거의 교회에서의 봉사는 자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움직였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의 요청이나 직임을 부여를 통한 책임적인 관리와 관계형성 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 봉사 한다는 개념이었다. 왜냐하면 베델교회에서의 연구 이전에 방송팀 구성 자체가 없었고, 예배 때 마다 개별적, 즉흥적 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으며, 성결교회의 찬양팀은 리더와 찬양단원들이 찬양대의 쏠리스트이면서 예배시작 전 찬양인도를 잠깐 감당해 주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임시적 봉사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6 개월 또는 5 개월간의 주어진 임무는 스스로의 결정도 있었지만, 목회자의 간곡한 요청과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임에 사명 의식과 책임감을 불어 넣어 준 결과로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본 연구에 동참해 주었고, 개인적 회복에도 본 연구가 기여하게 되었다고 평가를 듣게 되었다.

2) 청중들의 변화

청중들은 연구반원들의 첫 번째 변화의 내용을 동일하게 자신들의 변화의 첫 번째 항목으로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6 월에 실시한 2 차 설문조사에서 개인적 변화의 내용에 관한 결과를 이곳에서 도표로 나타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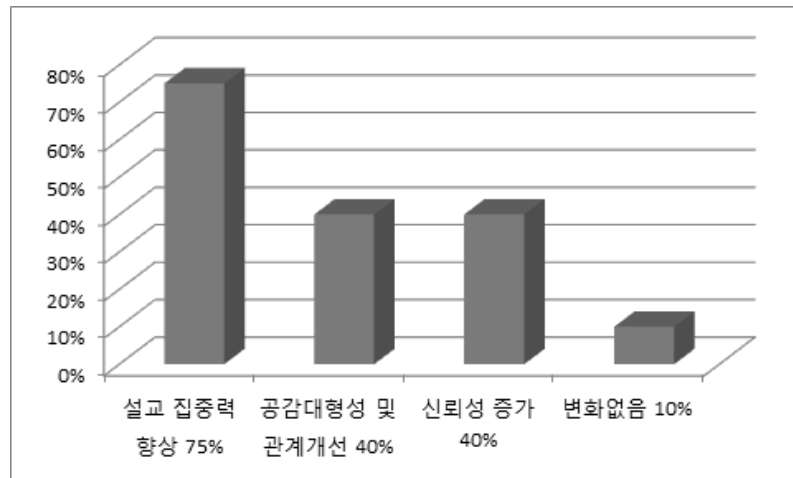



표 13. 청중들의 변화

그 외의 의견으로는 청중 참여 예배의 비도를 높여 줄 것과 예배의 주 대상자인 노년층을 배려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요구하였다.

3) 교회의 시스템 변화

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따라서는 베델교회에 목회자 설교 피드백팀과 방송미디어팀을 발족시키고, 12 년도 11 월중에 있을 13 년도 목회계획을 위한 행정임원회에서 의견이 상정되고, 12 월 당회에서 가결되어서, 13 년도부터 교회의 한 부서로 피드백팀과 방송 미디어팀이 자리매김 하도록 하는 목표를 두었으나, 갑작스러운 베델교회 사임으로 인해 연구반원들의 교회 이동과, 연구자의 사역지 이동에 따라서 한시적인 시행만 일어나고 말았다.

성결교회에서는 시스템의 변화를 주기 보다는 경배와 찬양팀의 결속력을 든든히 하고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서로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에 역점을 두었다. 실로 찬양단원들 끼리 모임을 가져 보는 것도 연구자의 부임으로 인해 처음 시행되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주로 교회에서 찬양대 쏠리스트로서

찬양대에서의 비중이 막중하였고, 경배와 찬양은 예배 전 준비찬양에 도와주는 역할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실력은 가지고 있지만, 경배와 찬양이라는 예배에 중요한 청지기로써의 사명감과 책임감은 덜하였던 현실이었기에 서로 관계성을 갖기 위해 모임을 활성화 하고 연습 시간 부족은 온라인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며 예배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한주간의 삶에서 찬양예배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따라서 이들의 의식의 변화를 주었던 것이 5 개월간의 성결교회 사역의 중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4. 연구자 목회 유능성 개발

1) 창의적 설교를 위한 목회 유능성 개발

본 연구에서 설교 능력함양을 위한 자기 계발은 필수 요소 중 첫째 되는 요소이다. 주로 연역적 방법으로 설교를 해온 본 연구자에게 현대적인 방법의 설교 시도는 이 연구에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을 기대한다.

(1) 성경 정독, 다독

① 시행

본 연구자는 이를 위해 3 가지 계발 계획을 세웠다. 그 첫째로 성경 다독이다. 성경말씀은 설교의 Text 이기 때문에 성경 다독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2012 년 1 월부터 연구시행의 마지막인 12 월까지 11 개월 동안(7 월 한 달 교회 이동기간 제외) 평균 3 개월에 1 독식 하여서 연구시행이 진행되는 기간에 성경

3 독을 정독 하였다. 이를 시행 한 후에 기대 하였던 것은 성경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 능력이 향상 될 것을 첫째로 기대했으며, 둘째로 본문의 배경과 본문의 앞뒤의 상황, 또한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상황을 숙지하게 됨으로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설교시에 연관 성구를 많이 암기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적용을 통해 설교자의 설교가 청중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울러 본문설교, 주제설교에서부터 강해설교로까지 설교자의 능력이 더욱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372]

② 평가

성경 정독, 다독의 시행으로 인해 먼저는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자신감은 말씀을 아는 정도와 비례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성경을 정독하는 과정에서 주석의 주해를 많이 참고하게 됨으로 인해 성경의 배경과 시대적 경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성경 전반을 다 인지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됨은 이 시행으로 인한 유능성 함양의 결과의 산물이다.

(2) Story Telling Sermon 훈련

① 시행

[372]Richard E. palmer, *Hermeneutics*,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서울: 문예 출판사, 2001), 20.

그간 연역적 방법에 의존했던 연구자의 설교에서 본 연구 기간 중 2012 년 2 월~3 월까지를 귀납적 방법의 설교를 학습하고 실행하였다.[373] 이를 위하여 Fred Craddock 의 Story telling 설교에 관한 책을 읽어 보았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설교를 청취하며 설교를 연구하였다.

② 평가

이 시행과정이 이행되어지면 설교 패턴의 획일적인 한 가지 스타일을 벗어나 귀납적 설교를 병행하게 되는 효과 창출이 기대하였다. 또한 청중들에게 설교자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설교자로써 신임을 더욱 얻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의 설교의 주된 패턴인 연역적인 설교 방식으로 된 웅변식의 전달 방법에서 이야기식 전달 방법으로 전환과 다양성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는 듣는 청중들에게도 더욱 유익한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3) 미디어 설교 능력 함양

① 시행

현 시대의 청중들은 테크놀로지의 혁명과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최첨단 과학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미디어 설교는 이 시대에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 주는 설교의 형태이다. 자료 수집은 2012 년 1 월~5 월까지로 하며, 5 월에 미디어팀이 구성되면 그들과 함께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을 편집하고, 설교에 콘티를 맞추는

---

[373] Fred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김운용 역, *권위 없는 자처럼*(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108.

작업을 하며, 기술적인 부분을 습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총 10 편의 영화감상을 계획하였다.

② 평가

연구자는 10 편 이상의 많은 영화를 보았다. 그 중에서 4~5 편의 작품은 영화 설교와 영상예배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편집을 해 놓았다. 이 시행 과정이 이행되어짐으로 기대하는 것은 청중들에게 귀로 기억되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더욱 지속적인 기억이 될 이미지화 (일반영상, 일반영화, 드라마, 쇼, 작품, 기독교 성극, 기독교 인물, 다큐멘터리, 기독교영상, 기독교 영화 등)된 메시지로 작품성과 기독교적인 메시지의 내용의 완성도가 높은 영상들의 상영을 병행함으로 청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또한 오래 지속될 이미지로 심겨질 것을 기대하였으며 좋은 평가를 듣게 되었다.

2) 예술가적 설교를 위한 목회 유능성 개발

예술가적 기질을 함양한다면 연구자의 설교에 예술적 감각과 감성이 표현되어질 것이며, 설교의 다양성을 이루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공감대 형성과 삶의 공유를 이루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1) 미술의 이해

① 시행

창의적 설교를 위한 목회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두 번째 요소로 예술가를 선정했다. 이는 예술적 감각과 지식과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훈련이다. 이 훈련은 2012 년 1 월~11 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1~2 월에는 미술의 이해를 돕는 도서를 읽고, 미술 전시회를 2 회 이상 관람하기를 계획하였다.

미술 작품을 가지고 이미지 설교를 시행하기와 미술적 지식을 설교 원고에 사용하는 것과 성화 등의 기독교 미술 작품의 자료수집과 지식의 습득으로 기대되는 것은 설교에 신선함을 더하여 주고 질적 수준도 향상 시켜 줄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청중들이 미술 작품을 통해 사고하게 해주며, 작품 속에 설교의 메시지를 더욱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요소가 될 것을 기대하였다. 이 시행이 실행된 후 본 연구자의 설교에 미술적 감성과 미술적 이해가 삽입되어 설교의 문장을 만들 때에도 보다 폭 넓고 감성으로 풍요로워질 설교 원고를 만들어 줄 것으로도 기대했다.

② 평가

이 분양의 목회 유능성 함양을 위한 실천으로 뉴욕 센트럴 파크 있는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 을 아내와 함께 관람하며 고전과 현대 미술, 조각, 문화, 역사를 공부하는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2) 문학의 이해

① 시행

설교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설교자가 문학적 소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글과 문체의 표현이 청중들에게 더 잘 전달되는 단어와 문구, 세련된 문법사용과 문맥을

창출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또한 국문학을 전공하거나 시인출신의 설교가의 설교집을 연구하고, 언어학의 기초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선정하여 어법과 문법과 글을 쓰는 요령을 습득하는 계획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② 평가

이 시행이 실시 된 이후에 설교자의 설교원고에 시대별, 계절별, 처지에 따른 상황별, 감정에 따른 상황에 따라 청중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을 수 있는 문학적인 감성이 적절하게 표현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적절한 문학 작품의 인용을 통해 설교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듣게 될 것을 기대하였다. 나아가서는 설교원고의 작성에서도 문체와 문장의 구성에 있어서도 국어의 세련미를 더함으로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언어 표현 구사력이 폭넓어지고, 적절해 지고 세련되어졌으며, 문장과 문장, 문맥과 문맥 사이의 연결도 자연스럽다는 호평을 받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 능력 함양을 위한 노력만으로 하루아침에 실력이 향상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행이 주는 문학적 감수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여가생활(대중문화) 이해

① 시행

현대 청중들의 대중문화를 이해하여 설교에 창의성을 갖기 위한 훈련이다. 이 훈련은 2012 년 5 월~6 월에 실시될 것이다. 영화관람(3 회 이상), 관광명소 여행(2 회), 콘서트 관람(1 회), 쇼 프로그램 시청, 인터넷 게임 등을 경험하는 시행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② 평가

이 시행으로 인해 설교 속에서 청중들에게 그들의 문화, 여가생활에 동참함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를 기대하였으며, 설교에서 문화적 공유가 인용되어지고 소개되어짐으로 설교 서두에 아이스브레이크 시간의 활용으로 또한 설교 중간 곳곳에 유머러스한 시간으로 이용하기를 기대하였다. 이는 설교의 초입에 집중력 향상과 더불어 중간 중간 설교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청중들의 일상의 문화에 설교의 메시지를 적용하는 것으로 청중과의 공감대 형성과 동질감 형성을 통해 설교 메시지의 현실화, 현재화를 이루는 데에 기여하는 연구 노력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영화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10 편 이상의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였으며, 여행은 나이아가라 폭포 가족 여행을 실행하였다.

3) 음악 전문가적 설교를 위한 목회 유능성 개발

본 연구자는 성악가적 전문가 자질을 이미 대학교에서 이수한바 있다. 성악도로서의 소질과 재능을 더 계발하여 설교에 청중과의 교감형성의 요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1) 음악사 연구

① 시행

음악전문가 함양을 위한 훈련, 시행기간은 2012 년 7 월~10 월로 정한다. 서양음악사, 교회음악사, 오페라 등 음악전문 서적[374]을 다시 공부하며 설교에 음악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할 창의적인 설교를 계발하였다.

② 평가

음악 전문가로써 음악사와 교회음악사를 아울러 설교에 예화로 적용하는 음악가적 전문성을 기대하였다. 위대한 음악가들의 생애, 합창곡들의 배경과 신앙고백의 스토리를 전달하겠으며, 찬송가에서부터 현재의 교회음악까지 역사와 흐름과 스토리들을 전달하는 계기로 삼는다.

(2) 성악실기

① 시행

---

[374] 김문자 외 4 명,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서울: 심설당, 2002). 과 허윤, *합창음악을 통해 본 교회음악사*(서울: 교보문고, 2000). 그리고 이성삼, *세계명작 오페라 해설*(서울: 세광 음악 출판사, 1981)를 읽는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그 소질을 더욱 함양하기 위한 시행 계획이다. 2012 년 7 월~10 월 동안 하루에 발성 연습을 25~30 분, 이탈리아, 독일 가곡, 오페라 아리아 책[375]으로 실기 연습한다.

② 평가

성악적 자질을 사용하여 설교 중에 음악찬양을 통해 청중들과 같이 호흡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설교, 설교자 독창회로 이루어진 설교, 설교와 음악이 조화를 이룬 음악 설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시행하여서, 음악적 전문성을 발휘하는 새로운 설교로 청중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설교로 다가감으로 메시지 전달의 효과 창출을 기대하였다.

실제 수행 과정 중에서는 봉헌 특송 1 회, 금요설교시에 찬양설교 1 회, 성결교회에서 교역자 남성 중창 1 회, 그리고 매주 금요일과 주일에 찬양인도 등이 있었다.

---

[375] 김청자, *도이치가곡집*(서울: 세광 음악 출판사, 1988).과 정경순, *이탈리아가곡집*(서울: 세광 출판사, 1989).그리고 박세원, *테너 오페라 아리아 앨범*(서울: 세광 출판사, 1994).이 세권의 책으로 실기 연습을 한다.

Ⅵ. 결론

목회자는 어느 세기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가장 유능한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 정치, 경제 지도자 또는 사회 어느 기관과 단체의 장들이 앞장서며 리더 해야 할 몫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역에서 일어난 완전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이 땅에 펼쳐야 할 사명이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매 시대마다 교회를 향한 사회, 정치, 경제의 문제로써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에 대한 회복을 교회에 요청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회와 목회자는 전문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연구 실행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목회현장을 잘 분석 해보고, 분석에 따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함에 지표가 되고자 했으며, 목회자로서 자신에게 어떠한 유능성을 개발해 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먼저, 연구를 시행한 이민교회에 목회자들에게 제언을 하고자 한다. 두 교회 사역지에서 시행을 해보며 느낀 점은 이민교회는 세대 간의 문화적, 언어적, 생활방식, 신앙생활의 방식이 매우 달랐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있는 한인과 미국에 있는 한인을 비교해 보아도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었다. 외형상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세대 간에 균열과 갈등이 심하고 정서적, 문화적 차이가 많음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터인 설교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이민 1 세대와 그 외 2, 3 세대의 차이를 들 수 있겠다. 1 세대 어르신들 (혹은 1.5 세대까지)은 그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그때를 기점으로 사고가 굳어져 버리는 현상을 보인다. 때문에 1 세대의 어려움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허물도록 커뮤니케이터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은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 생활습관을 고정화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도 고정되어 버리는 현상을 초래한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역사가 역동성 있게 그들의 삶과 생각과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와 목회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성도와 성도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두번째로,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하는 목회자들에게 본 연구는 각 세대를 이해하고 당면한 목회현장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목회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조화를 이루어 효과를 창출해 낼 것을 제언한 것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현 시대의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세대건 간에 방송과 미디어,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이라는 시각적, 공간적인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읽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의 전환이라고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마찬가지로 현 시대는 목회자가 성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설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만 그 직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늘 주시하고 있다. 성경에 입각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설교에서 전달한 내용을 먼저 실천하고 있는가? 말과 행실이 바른가? 언행이 일치하고 있는가? 등등으로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끊임없는 자아성찰, 자기반성, 도덕성, 자아개방, 성경연구, 유능성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다시 언어화 된 설교로 결합되어 전달될 때에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배가의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독립적으로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 목회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노력과 자기 개발이 이제 다시 강단에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날 때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이루는 목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한 목회자의 노력은 설교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설교자로서 성경 연구함에 있어서 설교의 역사를 각 시대 인물들을 통해 정리해 보았고, 현대청중들의 동향과 현시대가 요구하는 설교의 형태를 소개하였다. 이제 남은 몫은 독자의 판단과 결론에 달려 있다. 바라기는 당면한 목회지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고,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자인 성도들에게 존경받으며 강단에서 늘 언행이 일치된 신실하고도 성실하며 진실된 훌륭한 목회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Appendix

1 차 설문조사 설문지(1 월)

제 1차 금요기도회 설교에 관한 설문조사

* ( ) 괄호 안에 1, 2, 3, 4, 5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름 쓰지 않고 제출)으로 제출(큰오소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①. 금요기도회 설교 이해 ( )

1. 잘 이해가 된다.
2. 이해가 된다.
3.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4.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5. 설교라고 볼 수가 없다.

②. 설교자의 준비성 ( )

1. 열심히 준비 하는 것 같다.
2. 그런대로 잘 준비해 오는 것 같다.
3. 보통 준비 수준이다.
4.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
5. 준비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커뮤니케이션>

③. 설교를 통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 )

1. 매주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2. 비교적 하나님과 교감 할수 있도록 해준다.
3. 하나님과 교감의 정도는 보통인 것 같다.
4.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가 어렵다.
5. 설교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이룬적이 없다.

④. 설교자와 나(회중)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 )

1. 매주 설교자의 설교에 영적 교감(반응)이 일어난다.
2. 설교자와 영적 교감(반응)이 잘 되는 편이다.
3. 설교자와 영적 교감(반응)은 보통 정도이다.
4. 설교자와 영적 교감(반응)을 이루기 힘들 때가 많다.
5. 설교자와 영적 교감(반응)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다.

<기대>

⑤. 설교의 대한 바램 (, , , , ,)

(*1가지 이상 선택, 그외)

1. 설교자가 준비하는대로
2. 본문해석과 적용에 충실한 설교
3. 이야기체적 설교 (수필, 일기, 간증, 문학등)
4. 미디어(영상)를 이용한 시각적 설교
5. 예화, 유머를 이용한 설교
6. ....

....

....

⑥. 기도제목, 설교후 찬양 신청곡

....

....

....

-안내

* 큰오소리함 : 기도제목, 설교후에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곡, 간증, 설교자에게 고할 등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차 설문조사 설문지(6 월)

제 2차 금요기도회 설교에 관한 설문조사

* ( ) 괄호 안에 1, 2, 3, 4, 5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름 쓰지 않고 제출)으로 제출(금요소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도 평가>

①. 금요기도회 설교 이해 ( )

1. 잘 이해가 되었다.
2. 이해가 되었다.
3.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4.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5. 설교라고 볼 수가 없다.

②. 설교자의 준비성 ( )

1. 열심히 준비 하는 것 같다.
2. 그런대로 잘 준비해 오는 것 같다.
3. 보통 준비 수준이었다.
4. 준비가 부족해 보였다.
5. 준비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커뮤니케이션 평가>

③. 설교를 통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 )

1. 매주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었다.
2. 비교적 하나님과 교감 할수 있도록 해주었다.
3. 하나님과 교감의 정도는 보통이었다.
4.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가 어렵다.
5. 설교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이룬적이 없다.

④. 설교자와 나(회중)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 )

1. 매주 설교자의 설교에 영적 교감(반응)이 일어났다.
2. 설교자와 영적 교감(반응)이 잘 되는 편이었다.
3. 설교자와 영적 교감(반응)은 보통 정도였다.
4. 설교자와 영적 교감(반응)을 이루기 힘들때가 많았다.
5. 설교자와 영적 교감(반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행평가>

⑤. 청중참여설교 ( )

1.새로웠다. 2. 집중되었다.
3. 특별한느낌없었다. 4. 그저 그랬다.

⑥. 영상예배 소감문

....
....
....
....

⑦. 개인적 변화 (, , , , ,)

{*1가지 이상 선택}

1. 설교에 집중력이 향상과 기대감 상승.
2. 설교자와 공감대 형성 및 관계 개선.
3. 메시지의 신뢰성 증가.
4. 별다른 변화 없었음.

*그 외 ....
....

* 감사합니다

6 월 영상예배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영상예배」 Cue-Sheet

뉴욕베델교회 금요기도회

순서	시간	제 목	내 용	담당자	출연자	조 명	노래/BG/음향	스크린		기 타
								Power point	영상/카메라	
0		예배준비		최요한 목사		불을전체밝게	①BGM 1,2,3	「곧 영상 예배가 시작 됩니다」		Q 8:15 E 8:32
1	4분	예배의 시작	영상예배 소개		최요한	All In	①BGM	영상예배소개	In	Q 8:32 E 8:35
Bridge						All Out	앞, 뒤 모두 소등			
2	40분	영상설교	① 영상경건의시간 ② M.V 당신만은 ③ 단편영화-Most ④ interview	방송실		All Out	① 전도묵상 ② 박지혜 Violin ③ 당신만은 ④ Most ⑤ 성도님들	영상설교 "빛을 비춰라"	Cam 1,2,3,4	Q 8:35 E 9:11
3	2분	촛불점화		김성은,김영동,최요한		All Out	조용한 가운데	"촛불점화" 밝은화면		Q 9:11 E 9:13
4	5분	주제곡	빛을들고 세상으로	방송실		All Out	BGM	슬라이드쇼 진행	Cam 1,2,3,4	Q 9:13 E 9:18
Bridge			초 수거(1)							
5	4분	통성기도	사명을 위해	방송실	최요한	All Out	BGM 주제곡	주제곡 자동실행		Q 9:18 E 9:22
6		자유기도	초 수거(2) 및 예배실 정리			All Out	BGM 반주기	종료		

* 준비물 : 교회열쇠, 초 점검, 라이터, 외장하드, 오디오과, 화면정리, 예배 사전 리허설
* 김영동 전도사님과, 김성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JUN 22. 2012 뉴욕베델교회 「영상예배」 "빛을 들고 세상으로"

Ⅶ. 참고도서

1. 한국서적

유동준. 설교자를 위한 언어학. 서울: 쿰란출판사, 1996.

김남식. 기독교커뮤니케이션학. 서울: 도서출판베다니, 1999.

정정숙. 기독교 교육 심리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부, 1982.

김은성. 마음을 사로잡는 파워 스피치. 서울: 위즈덤 하우스, 2007.

임태현. 설교의 설득력 커뮤니케이션에 있다.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5.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0.

정장복 외 8 인. 설교학 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리대룡 이명천. 현대사회와 광고. 서울: 나담출판사. 1988.

손두환. 기독교회사(Ⅰ).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2.

박형룡. 교의신학ㆍ인죄론. 서울: 은성문화사. 1973.

변한규. 짤막한신학ㆍ교의신학.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0.

홍기선.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나남. 1991.

윤희준. 인성심리입문. 서울: 교육출판사. 1977.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사. 2005.

박희천. 나의 설교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7.

김창규. 교회성장과 설교 방법론. 서울: 쿰란출판사. 1992.

유부웅. 성서적 설교와 한국교회 강단. 서울: 문장출판사. 1984.

이중표. 교회성장과 케리그마 설교. 서울: 쿰란출판사. 1994.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1.

정규남. 구약 설교의 활용, 성서와 현대 교회.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후등광삼. 곽철영역. 설교학. 서울: 제일출판사. 1970.

박형용, 바울의 신학과 설교 : 신학정론 Vol., 7. 1986.

이주영. 설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3.

이훈구. 설교학 총론. 서울: 도서출판 양문문고. 1991.

웨슬리복음주의협의회 편. 웨슬리 복음주의 총서(Ⅰ). 서울: 광림. 1992.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조태희. 21 세기 목회와 강해설교. 서울: 쿰란출판사. 1996.

오미영.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6.

박근원. 오늘의 설교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김준수. 마음의 치유. 서울: 디모데. 2007.

박영선. 교회론. 서울: 엠마오. 1991.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 바이블 리더스. 2008.

현유광. 갈등을 넘는 목회. 서울: 생명의 양식. 2001.

김태련 외. 청소년심리학. 서울: 서원. 1997.

손종국. 청소년 지도. 서울: 예루살렘, 1993.

남승희. 청소년은 누구인가. 서울: 서원. 1993.

이승재. 기독교 청소년 상담 지도서. 서울: 은혜출판사. 1995.

유병선. 청소년. 서울: 청소년 전도협회. 1996.

이진우. 청소년 교육 핸드북. 서울: 한국 문서 선교회. 1994.

정영석. 형사정책. 서울: 법문사. 1982.

정태기. 한국교회와 청소년 프로그램. 서울: YMCA. 1986.

김명자. 중년기 연구. 서울: 교문사. 1994.

김기태. 위기 개입론 : 일상생활의 위기와 극복방법. 서울: 대왕사. 1993.

정옥분. 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4.

조복희 외.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1994.

장휘숙. 전 생애 발달 심리학 인간발달. 서울: 박영사. 2000.

송명자. 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6.

정정숙. 인간발달과 상담Ⅱ. 서울: 베다니. 2006.

정태기. 위기와 상담. 서울: 크리스챤 치유목회연구원. 2000.

임춘식. 현대 사회와 노인 문제. 서울: 유풍출판사. 1992.

사미자. 노년의 심리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5.

김성순. 노인 복지론. 서울: 이우 출판사. 1972.

윤진.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 적성 출판사. 1995.

이창희. 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 봉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홍익사. 1993.

전천혜. 노인과 여가 : 한국 교회와 노인 목회.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5.

이기춘. 돌봄의 신학. 서울: 도서출판 감신. 2003.

박희천. 설교자의 자질 문제와 성경외의 자료에 대한 태도 : 목회자와 설교. 서울: 풍만출판사. 1987.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정인교.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이해와 한국적 수용 복음과 실천신학 제 6 권.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CLC, 2003.

뉴욕성결교회 역사편찬위원회. 뉴욕성결교회 25 년사 Mother Church. 서울: 진흥문화사. 2001.

2. 번역서적

Palmer. Richard E. Hermeneutics.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이한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1.

Craddock. Fred. As One Without Authority. 권위 없는 자처럼.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Kraemer. Hendrik. The Cimmuncication of Christian Faith. 기독교신앙의 커뮤니케 이션. 임춘갑 역. 서울: 종로서적, 1981.

Richards Lawrence O & Hoeldtke Clyde. A Theology of Church Leadership. 창조 적인 교회 지도자.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Pennington. C & Chartier. M.R. God Has a Communication Problem. 말씀의 커뮤니케이션.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Bartow. Charles L. The Preaching Moment - A Guide to Sermon Delivery. 설교의 실제. 차호원 역. 서울: 도서출판 소망사, 1993.

Küng. Hans. Die Kirche.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Cornelis Antonie Van Peursen. 몸 · 영혼 · 정신. 손봉호 역. 서울: 서광사. 1989.

Knott. Harold E. 설교작성법. 곽정운 역. 서울: 태광출판사. 1985.

Brown. H. C. 설교 구성론. 정장복 역. 서울: 양서각출판사. 1984.

Baumann. J. D. 현대설교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양서각. 1980.

Bohren. R. 설교학 원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Barth. Karl. 설교학 원강. 박근원 역. 서울: 전망사. 1981.

Adams. J. E.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청중에의 적용. 정양숙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2.

Stott. John R. W. 현대 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 서울: 풍만출판사, 1985.

Machrthur. John. 강해설교의 재발견. 김동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Craddock. Fred B. 설교 : 열린 체계로서의 귀납적 설교방식. 김영일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9.

Clyde. Reid. The Empty Pulpit. 정장복 역.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Ken Sande. 피스메이커. 황규명 역. 서울 : 피스메이커. 2000.

Bynum. Bill. 청소년 이해와 교회 교육. 김현철 역. 서울 : 나침반사. 1986.

H. Norman Wright. 위기상담학 : 위기와 스트레스 극복을 위하여. 전요섭, 황동현 역. 서울 : 쿰란 출판사. 1998.

Howard W. Stone, Geofrey Peterson. 위기상담. 오성춘 역. 서울 :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9.

Jerry White & Mary White. 중년기와 그리스도인. 네비게이토 선교회 역.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1991.

Jim Conway , Men in Mid life Crisis.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라. 권명달 역. 서울: 보이스사. 1989.

Howard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목회 상담 신론. 박근원 역. 서울: 예장 총회 출판국. 1987.

D. B. Bromley. 노인 심리학. 김정휘 역. 서울: 도서출판 성원사. 1992.

John R. W. Stott. 현대 교회와 설교 : 성경적 강해설교와 현대인의 삶. 정성구 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2.

Eugene L. Lowry. The Homiletical Plot, 이야기식 설교구성. 이연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Ronald Richardson.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 유재성 역. 서울 : 국제 제자 훈련원. 2008.

Louis Verkhof. 조직신학 상. 박희석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3. 외국서적

Leith, H. John. John Calvin's of the Christian Life.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 John Knox Press, 1989.

Engel, James F. Contemporary Christian Communications: It's Theory and Practice.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79.

Ellul, Jacques. The Meaning of the City. Grand Rapids: Eerdmans. 1970.

Webber, Robert E. God Still Speaks: A Bilblical View of Human Communication. Nashville: Thomas Nelson inc., Publisher, 1980.

Dubrin, A. J. Foundations of Organization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ress, 1984.

Robbins, S. P. Organization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ress, 1986.

Richardson. Cyril ed., Early Christian Father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3.

James Orr. The Christian View of God and The World, as Centering in the Incarnation, 3rd ed. Edinburgh: Andrew Elliot, 1897.

Augustii. On the Trinity, trans. Stephen McKenna, C.S.S.R.,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45 Washington, D.C.: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63, Book 2, Ch.5.

Robert, E. Webber. God Still Speaks: A Biblical View of Christian Communication. Nasfville: Thomas Nelson, Inc., Publishers, 1980.

Jacques Ellul. The Meaning of the City. Grand Rapids: Eerdmans, 1970.

Arthur, F. Holmes. "Symbol and Truth", Imagination and the Spirit, ed. Charles Hutter. Grand Rapids: Eerdmans, 1971.

Paul Minear. Images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Henry Morris. Evolution and The modrrn Christian. Phillipsburg. NJ : Presyb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7.

John Calvin. A Commentary on Genesi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5.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Ⅱ. Grang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40.

Allport, G. W. 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61.

Kurt Lewin. Principles of Typological Psychology. New York: Mc Graw · Hill, 1995.

Jay, E. Adams. More Than Redemption :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Phillipsburg, NJ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9.

Morrill, F. Unger. Principles of Expository Preaching. Grand Rapids : Zondervanpub. House, 1970.

Forsyth, P. T. Positive Preaching and the Modern Mind. Grand Rapids : Wm. B. Eerdmans, 1966.

Lloyd, M. Perry. A Mannual for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Mich : Baker Book House, 1965.

David, J. Randolph. The Renewal of Preaching.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69.

Dwight, E. Stevenson. In the Biblical Preacher' s Workshop. New York : Abingdon Press, 1967.

Alfred Emest Garvie. The Christian Preacher.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21.

De Witte, T. Holland. The Preaching Tradition, A Brief History. Nashville : Abingdon, 1980.

Cleverley, D. W. The Ministry of The Word(Grand Rapids : Eerdman Publishing Co. 1980.

Dargan, E. C. A History of Preaching. Hodder & Stoughton, 1911.

Huijer, J. Het Example in de Prediking. Groninger : J. Niemijer, 1952.

Stalker, J. The Life of Jesus Christ.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1984.

Garvie, A. E. The Christian Preacher. New York : Charles Scribner' s Sons, 1921.

Veman, L. Stanfield. The History of Homiletics.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3.

Leo Sherley-Price trans. St Fransis of Assisi. NewYork : Harper & Brother, 1959.

Father Cuthbert. Life of St, Francis of Assis. (London : Longmans, Green and co. 1921.

Broadus, J. A.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 New York and San Francisco : Harper & Row, 1979.

Pattison, H. The History Christian Preaching. Piladelphia :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903.

John, T. McNei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Oskar Famer. Huldrich Zwingli, Vol. Ⅱ. Zürich : Zwingli-Verlag, 1954.

Michael Rogness. Preaching to a TV Generation. Lima, OH : C.S.S., 1994.

Timothy, A. Turner. Preaching to Programmed People. Grand Rapids : Kregel, 1995.

Paul Scott Wilson. "Beyond Narrative : Imagination in the Sermon," Listening to the Word, eds. Gail R. O' Day & Thomas G. Long. Nashville : Abingdon, 1993.

Warren, W. Wiersbie.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Wheaton : Victors, 1994.

Chales B. Burgg. Preaching from the Inside Out. Nashville : Broadman, 1992.

Rich Warren. The Purpose Driven Church. Grand Rapids : Zondervan, 1995.

Garrett Green. Imagining God. San Francisco : Harper & Row, 1989.

Walter Brueggeman. Finally Cimes the Poet. Philadelphia : Fortress, 1989.

Lyle E. Schaller. 21 Bridges to the 21st Century. Nashville : Abingdon, 1994.

Timothy Wright. A Community of Joy. Nashville : Abingdon, 1994.

Dough Murren. The Baby Boomerang. Ventura : Regal Book, 1990.

John Claypool. "The Confessional Preaching," Preaching in Today's World, ed. James C. Barry. Nashville : Broadman, 1984.

Lyle E. Schaller. The Seven Day a Week Church. Nashville : Abingdon, 1992.

Thomas G. Long. "And How Shall They Heart?," eds, Gail R. O' Day & Thomas G. Long, Listening to the Word. Nashville : Abingdon, 1993.

William F. More. "Communication for Churchmen", B. F. Jackson, Jr. ed., Communication : Learing for Churchmen. Nashiville : Abingdon Press, 1968.

David. k. Berlo.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Claude E. Shanon and Warren Weaver.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IL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49.

Wilbur Schramm. "How Communication Works"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rbana, IL :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1.

David K. Berlo.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Dawson. P. P. Fundamentals of Organization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Press, 1985.

Robbins. S. P. Essentials of Organization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Press, 1984.

Reitz. H. J. Behavior in Organization. Homewood, IL : Richard D. Irwin, Inc., 1981.

Huse E. F. and Bowditch J. L. Behavior in Organizations; A Sustem Approach to Managing, 2nd ed,. Boston; Addison- Weseley Co., 1977.

Harris, T. I'm OK- You're OK. New York : Avon, 1967.

Jung, C. G.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Erik H. Erikson.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York : W. W. Norton, 1968.

Borland, D. C. "Research on Middle Age : An Assessment". The Geron to logist 18 no.4, 1978.

Karl A. Slaikeu. Crisis intervention: a handbook for practice and research . Boston: Allyn and Bacon, 1990.

Parad, H. J. “The Use of Time Limited Crisis Intervention in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ming,”. Social Service Review, 40 no. 9, 1966.

Caplan, G. Principle of Preventive Psychiatry. New York: Basic Books, 1964.

Poon, L. W. Aging in the 1980s: psychological issues.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80.

Patricia Teuting. Special Report on Depression Research. Rockville, Md.: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Alcohol, Drug Abuse, and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82.

Robert E. Neale, The Art of Dying. NewYork : Harper and Row Publish, 1973.

Marshall McLuhan, The Medium is the Massage : An Inventory of Effects. London : Penguin, 1967.

J. G. Simpson, Preachers and Teachers. Edward Arnold, 1910.

Thomas C. Oden, Kergma and Counseling.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6.

Sidney M. Jourad, The Transparent Self, rev. ed.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1971.

Clyde E. Fant, Preaching for Today. New York : Harper & Row, 1975.

Leonard Z. Breen,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Chicago :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0

4. 논문

김준수. 기독교인의 부부 갈등에 관한 연구. 논문집 :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성경과 신학 29 권. 2001.

정장복. 성서적 설교와 그 진전 과정에 대한 이해. 장신논단 : 제 3 집, 1987.

백장흠. 교회내의 인간 관계 연구. 논문 : 계명대대학원. 1976.

황규명. 인간 관계 갈등 해결을 위한 피스 메이커의 사역과 성경적 상담.논문 : 총신대논총 제 26 집. 2006.

임희섭.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고찰. 논문 : 청소년 문제에 관한 논설집 제 16 집. 1986.

송은천. 교회 교육을 통한 청소년 문제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 논문 : 서울신학대학원. 1991.

조남영. 중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사역 방안. 논문: 총신대학교. 2003.

김예식. 중년기 위기 부부상담. 논문 : 장신대학교. 1991.

최재원. 중년기 여성 우울증 극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 논문 : 계명대학교. 2006.

이정효. 노인 기독교 교육에 관한 기초적 연구. 부천: 교수 논총 제 1 집, 서울 신학 대학교 출판사 2000.

장성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 논문 : 천안대학교 기독신학대학원. 2002.

이광근. 한국의 고령화 사회를 위한 교회 복지 목회의 선교적 접근. 논문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강용원. 죽음에 관한 목회, 교회문제 연구 제 1 집. 천안 : 고려신학대학교 교회문제 연구소. 1979.

5. 간행물

1) 외국본

John W. Montgomery. "Mass Communication and Scriptural Proclamation", The Evangelical Quarterly. Jan.~Mar., 1977.

Charles H. Kaft. "The Incarnatio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Theory",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Fall, 1973.

2) 국내본

송현옥, 설교가 좋은 교회를 선택한다. 목회와신학 제 14 호. 서울: 두란노서원 1999 년, 8 월호.

박용상,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 설교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기독교학 저널 2 호.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06.

정영숙 손상희, 신세대 소비주의 문화의 실체와 특성. 사회과학 연구 제 12 집. 대구: 사회과학연구소. 2004.

방래혁, 현대 위험 사회와 교회의 복음화 사명. 광주: 카톨릭대학원 논문집. 2010.

임희섭, 산업사회와 한국사회의 미래. 현대 사회 발전 연구소 논문 3 집.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1988.

김현철. 목회 현장에서의 갈등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목회와 신학 통권. 178. 2004.

유재성. 인간의 특성으로 본 갈등 원인의 상담학적 이해. 목회와 신학 통권. 178. 2004.

이관직. 교회내 갈등 그 부적절한 해결의 결과들. 목회와 신학. 2002. 4 월호.

기독교 목회 자료 연구소 편. 목회 상담 자료 백과. 서울: 기독교 목회 자료 연구소, 제 4 권. 1995.

정태기. 중년 남성의 우울증을 진단한다. 간행물: 목회와 신학 2000. 2 월호.

정정숙. 주일 학교 노년부 교육 연구Ⅱ. 간행물: 신학지남 1979. 여름호.

김종옥. 현대 사회와 가정의 인간화를 위한 과제. 간행물 : 기독교 사상, 1994 년 5 월 호

문영탁. 교회와 노인. 간행물 : 풀빛 목회. 1982. 12 월호.

김태현. 한국의 노인 문제와 가정의 역할. 간행물 : 이성과 신앙, 수원 가톨릭 대학 출판사 제 3 호. 1997.

김남식.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신학적 접근. 간행물 : 신학지남 제 57 권 4 집, 1990 년 겨울호.

6. 신문

남윤근. 노인 빈곤의 개념과 실태. 간행물 : 노년신문 1995 년 9 월 10 일자. 4 면.

7. 사전

김익달 편저. 세계백과대사전. 서울: 학원사. 1974.

이재순 편저. 세계철학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1980.

8. Web Site

http://nypumc.net/?document_srl+4957.

http://blog.naver.com/mokpojsk?Redirect=Log&logNo=130003824408

http://asiailbo.co.kr/detail.php?number=66755&thread=21r03.

http://www.city-data.com/city/Bronx-New-York.html.

http://nypumc.net/?document_srl=4957.

http://blog.naver.com/mokpojsk?Redirect=Log&logNo=130003824408.